

노어노문학과 대학원 어학분과 세미나

일 시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장 소

연세대학교 외솔관 427-1호

발 표

1부 10:00 ~ 11:30

- 김세림(석사) 언어유형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 연구
- 임혜민(석사2학기) 한국인 학습자의 러시아어 폐쇄음 습득에서 나타나는 간섭현상 연구: 초급 학습자의 음성 표본을 중심으로
- 이예린(석사2학기) 러시아어 문장의 고립성분 연구
: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를 중심으로

2부 11:40 ~ 13:00

- 이상아(박사7학기) 러시아어 동사 현재형의 시제 전이 현상 분류
- 조서진(석사3학기) 일성분문장의 주어성에 대한 연구
: 무인칭문을 중심으로

토 론

변군혁(한국외대), 김형섭(중앙대)



노어노문학과 대학원 어학분과 세미나

PROGRAM

1부 10:00 ~ 11:30

- [발 표] 김세림(석사) 1
언어유형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 연구
- 임혜민(석사2학기) 14
한국인 학습자의 러시아어 폐쇄음 습득에서 나타나는 간섭현상 연구
: 초급 학습자의 음성 표본을 중심으로
- 이예린(석사2학기) 30
러시아어 문장의 고립성분 연구: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를 중심으로
- [토 론] 변군혁(한국외대)

2부 11:40 ~ 13:00

- [발 표] 이상아(박사7학기) 41
러시아어 동사 현재형의 시제 전이 현상 분류
- 조서진(석사3학기) 58
일성분문장의 주어성에 대한 연구: 무인칭문을 중심으로
- [토 론] 김형섭(중앙대)

언어유형론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 연구

김 세 립
(석사)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언어유형학에서의 연속동사구문
 - 2.2. 러시아어 연속동사 구문에 관한 선행연구
3.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 분석
 - 3.1.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변이형
 - 3.2.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통사구조
 - 3.3.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
4. 결론

1. 서론

연속동사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 SVC)이란 일반적으로 동사의 연속적 배열을 갖는 단문을 말한다. 연결 표지가 없는 동사연쇄의 구조로서 형식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는 다양하다. SVC는 상당히 많은 언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언어유형학적 자료 WALS(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에 의하면 고찰된 250개의 언어 중에서 109개의 언어에 SVC가 존재한다(정혜인 2016: 94). 마찬가지로 러시아어에서도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연속해서 쓰이는 구성이 관찰된다.

- (1) a. иду курю ‘(나는)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워’
b. иди ляг поспи ‘가서 누워 자’

(Акутина 2017: 1)

Weiss(2012)는 (1)과 같은 러시아어의 연속된 동사들이 인칭, 수, 시제 등의 형태가 같고 주어 논항을 공유하는 등의 특성을 보이므로, 해당 문장들을 연속동사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의 유사성이 러시아어의 동사연쇄를 일반언어학에서 일컫는 ‘연속동사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속동사구문’이라는 용어는 세계 여러 언어의 현상에 적용되면서 그 정의와 범위에 이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선웅(2011) 또한 특정 개별 언어에서 연속동사구문의 독자성을 부정한 연구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를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기보다는 논쟁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고는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지위를 언어유형론(linguistic typology)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언어유형론은 형식문법과 달리 인간의 보편적 인지 구조, 문화, 환경 그리고 도상성, 경제성과 같은 언어외적 요인들을 원용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한다. 따라서 범언어적으로 확립된 유형론적 보편성은 개별 언어의 문법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을 범언어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재고해보고 그와의 차이점을 밝힐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연속동사구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정의와 범위를 논한다. 3절에서는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며 세계 언어의 일반적인 SVC와 어떠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4절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언어유형학에서의 연속동사구문

언어학계에서는 연속동사구문을 다양한 이론과 관점에서 설명해왔다. 언어유형학적 관점에서 세계 언어의 연속동사구문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Aikhenvald(2006), Bisang(2009) 그리고 Haspelmath(2016)를 들 수 있다. 먼저 널리 용인되는 Aikhenvald의 이론을 살펴보자. 그는 연속동사구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Aikhenvald 2006: 1).

- (2) a. 단일서술어(single predicate)로 기능하는 동사의 연속적인 배열이다.
- b. 대등(coordination), 종속(subordination) 또는 여타 동사적 의존성의 표지를 갖지 않는다.
- c. 단일사건(single event)으로 개념화된 것을 묘사한다.
- d. 단일절의(monoclausal) 현상으로 단일동사절/단문(monoverbal clause)과 동일한 억양의 특징을 지니고, 하나의 시제(tense), 상(aspect) 그리고 극성(polarity value)만을 갖는다.
- e. 핵심 논항(core argument) 및 부가 논항을 공유한다.
- f. 각 구성요소(=동사)는 자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 g. 구문 내에서 각 동사의 타동성(transitivity value)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2)를 토대로 Aikhenvald는 연속동사구문의 의미, 기능, 문법화 규칙 등을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정의에 사용한 용어 및 개념과 관련하여, Bisang(2009)은 ‘단일사건’을 나타내는 특성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단일사건을 판별할 수 있는 원칙을 제언하고 (2)의 기타 기준들은 단일사건의 기준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isang(2009)이 지적했듯이 Aikhenvald(2006)에서 다루는 세계 언어의 많은 연속동사구문은 내부적으로 일치점이 적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khenvald는 전형적인 연속동사구문과 비전형적인 연속동사구문이라는 분류를 제시했으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세계 언어의 연속동사구문이 본질적으로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규명하기는 어렵다(정혜인 2016: 96).

Haspelmath(2016)는 기존의 연구에서 연속동사구문에 대해 필요 이상의 넓은 정의를 내려 그 범위를 확실히 규정하지 못한 결과를 비판했다. 예컨대 통용된 ‘단일사건’은 복수/다중사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연속동사구문을 분류하는 배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또한 ‘단일서술어처럼 쓰인다’라는 기준은 모호한 설명이며, ‘시제, 상, 논항을 공유한다’라는 특징은 모든 연속동사구문에 해당하므로 불필요한 정의라고 지적했다. Haspelmath는 언어유형학적 보편성을 위해 연속동사구문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했다(Haspelmath 2016: 296).

- (3) 연속동사구문은 다수의 독립적인 동사들로 구성된 단일절의 구문으로, 해당 동사들은 그 어떤 요소로도 연결되지 않으며 술어-논항 관계(predicate-argument relation)를 갖지 않는다.

Haspelmath는 위의 정의에서 다섯 가지의 주요 성분을 뽑아 부연 설명하였다. 첫째, 연속동사‘구문’은 합성성의 원리를 따르며 생산적이어야 하기에 특정 언어에서만 사용되는 관용적인 동사 조합은 그와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단일절’은 통상 연속동사구문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인정된다. 단일절성의 판별 기준은 ‘단일 부정가능성(single negatability)’, 곧 부정표지가 전 동사를 아우르는 영역을 한 번만 부정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¹⁾ 셋째, ‘독립적인 동사들’이라는 규정은 문법

적 의미를 지닌 보조사(auxiliary) 또는 부치사(adposition)를 제외하는 것으로, 다른 동사 없이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동사를 말한다. 연속동사구문에서 쓰이는 동사는 동적 사건(dynamic event)을 지칭하므로 상태 및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제외된다. 넷째, 동사 사이에는 ‘연결 요소가 부재’하나, 연속동사구문에서만 출현하거나 시제, 상, 부정을 나타내는 요소는 예외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동사 간에 술어-논항 관계가 없음’이라는 정의는 두 동사가 서로 내포 관계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역구문(He made her cry ‘그는 그녀를 울게 했다’), 종속절을 내포한 문장(She helped me solve the problem ‘그녀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다’) 등은 연속동사구문에서 제외된다. 아래에서는 Haspelmath(2016)의 정의에 근거하여 러시아어의 연속동사구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에 관한 선행 연구

SVC를 허용하는 언어들에서는 SVC가 특정 상황을 묘사하는 주된 방법이지만, 러시아어의 경우 그렇지 않다. 화자는 일련의 동작을 표현할 때 동사들을 ‘и’와 같은 접속사로 결합하기도 하고 부동사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형식들이 발달했다고 해서 러시아어가 언어유형론적으로 SVC를 갖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러시아어에는 SVC의 가장 전형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무표지 연결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언어학에서는 전통적으로 ‘пойду прогуляюсь’, ‘поди отопрй’와 같이 두 동사로 표현되는 술어는 ‘복잡화된 단순동사술어(осложненное простое глагольное сказуемое)’²⁾로 구분한다(Валгина 2003: 96-97).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결합하여 술어로 기능하는 같은 형태의 동사들을, 단문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확장시키는 ‘동종 문장성분(однородные ч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³⁾으로 간주하지 않는다(Акимова и др. 2009: 150).

현대러시아어에서 연속동사구문을 논의한 학자는 거의 Weiss가 유일무이하다. 1993년 한 문장 내에서 두 개의 동사가 연속하여 출현하는 현상을 ‘이중동사(double verbs)’라고 기술한 이래, 그는 이와 관련된 충실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Weiss(2000)에서는 이중동사구문이 어떻게 의존문법의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틀에서 모델화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었고, Weiss(2003)에서는 현대 신문과 소셜 언어의 자료를 분석하여 Finno-Ugric 언어들에서 구문과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Weiss(2008)는 완료상 이중동사의 해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Weiss(2012)는 전체 구문을 SVC의 일례로 다루며 러시아어 구어체 및 문어 장르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피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능한 모든

1) 예외적으로 Li&Thompson(1981)은 표준 중국어의 일부 다중절 패턴을 SVC로 간주하였다. 이선웅&풍정(2012: 151)에 의하면 중국어의 연속동사구문은 단문 효과를 지니지만, 일반적인 단문과 달리 서술어 두 개가 별개로 쓰일 수 있는 문장이다. 예컨대 선행동사 V1과 후행동사 V2가 각각의 목적어나 상 표지를 갖는 경우와, 다음과 같이 두 동사 사이에 부정 부사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예) a. 我包了餃子吃了. ‘나는 만두를 만들어 먹었다.’
 b. 我沒包餃子吃. ‘나는 만두를 만들어 먹지 않았다.’
 c. 我包了餃子沒吃. ‘나는 만두를 만들었는데 먹지 않았다.’ (이선웅&풍정 2012: 150)

부정 부사 ‘沒’가 b에서처럼 선행동사 ‘包(만들다)’와 후행동사 ‘吃(먹다)’ 전체의 앞에 오면 전체가 부정되고, c에서처럼 후행동사 앞에 오면 후행동사만 부정된다.

2) 단순동사술어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은 정형 동사이다. 그러나 두 동사의 결합 또는 동사와 소사(частица)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경우 ‘복잡화된 동사술어’로 간주된다. 복잡화된 동사술어는 행위와 그 목적(пойду напишу), 행위의 임의성(взял да и пришел), 행위 실현의 불가능성(ждем не дождемся), 행위의 완전성 및 충분성(поеть так поеть), 행위의 연속성(глядит не наглядится) 등을 나타낸다. 이 중에는 어휘의미가 불안정한 동사와 어휘의미가 완전한 동사의 결합도 있다. 그러나 ‘Он взял да и пришел’(그는 느닷없이 왔다)와 같은 경우는 합성성의 원리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접속사가 포함된 구성이므로 언어유형론적으로 전형적인 SVC와 구별된다.

3) 동종의 성분들은 문장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연합될 수 있다. 이때 해당 그룹의 통사적 기능은 각 성분의 통사적 기능과 같다: В окно увидела Татьяна; поутру побелевший двор; Куртины, кровли и забор; на стеклах легкие узоры; Деревья в зимнем серебре; Сорок веселых на дворе; и мягко усланные горы. 이처럼 대등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성분들은 어휘적으로 비교될 수 있어야 하며, 전체-부분의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В магазине продаются огурцы, помидоры, овощи).

문법적 형태를 띤 대략 800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코퍼스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Weiss(2013a,b)에서는 러시아국립코퍼스(Russian National Corpus, 이하 RNC)를 활용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Акутина(2017)는 러시아어의 ‘다동사(multiverb)’ 구문을 연구하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400개 이상의 문장을 수집한 결과 ‘ляг поспи’와 같은 2동사구문 19개, ‘иди сходи посмотри’와 같은 3동사구문 11개가 발견되었다.⁴⁾ 주어진 동사연속 구성에서 첫 번째로 오는 동사(V1)는 이동동사나 위치동사인 데, 특히 이동동사 *идти* 또는 *пойти*가 3동사구문을 강력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제한된 동사 부류를 포함하는 경우를 Aikhenvald(2006)는 ‘비대칭적 연속동사구문(asymmetrical SVC)’이라고 칭한 바 있다.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문형을 짚고 가겠다. 언어유형학적 정의 (3)에 의거할 때 아래의 유형들은 연속동사구문으로 보기 어렵다.

- (4) a. Не поленись прочитай.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읽어.’
 b. Ешь не беспокойся! ‘먹어 걱정하지 말고’
 c. Не пели не плясали. ‘노래 부르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았다.’
- (5) Они могут ж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그들은 스스로 살 수 있다.’
- (6) Он ненавидит ходить в школу. ‘그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4)는 ‘단일절’의 규정을 위배한 문장들이다. (4a)와 (4b)에서 부정소 ‘не’는 전 동사를 아우르는 영역에 작용하지 않고 차례대로 V1과 V2 앞에 쓰였다. 이들은 물론 각주 1)에서 언급한 표준 중국어의 연속동사구문과 마찬가지로 단문의 효과를 지니기는 하지만, 단일 부정가능성에 어긋난다. (4c)는 부정이 반복된 문형이다. ‘не’가 각 동사 앞에 모두 위치함으로써 그것이 나타내는 행위를 따로 부정한다.⁵⁾ 이로써 해당 문장은 동등한 가중치를 지닌 절이 상관 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복문이라는 인식이 강해진다. (5)는 보조동사(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глагол)구문으로 ‘독립적인 동사들’의 규정에 어긋난다.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결합한 구조의 복합동사술어(составное глагольное сказуемое)는 동사의 개별 의미보다 더 복잡한 의미를 전달한다. 해당 술어의 어휘적 의미는 미정형 본동사에 의해, 문법적 의미는 정형의 보조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본동사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므로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보조동사는 그러지 못하고 주로 단계나 필요, 능력 등과 같은 양상의 의미를 본동사에 더한다. 이러한 보조동사구문은 비교적 동일한 의미적·문법적 가중치를 지닌, 독립된 동사들을 갖는 연속동사구문과 구별되어야 한다. (6)에서는 하나의 절(ходить в школу)이 다른 문장(Он ненавидит)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다. 동사 ‘ненавидит’과 ‘ходить’는 술어-목적어의 논항 관계에 있으므로 연속동사구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2동사구문: ляг поспи; ляг полежи; открою посмотрю; посижу почитаю; посижу послушаю; посиди подумай; посиди отдохни; сходи узнай; схожу узнаю; схожу спрошу; сходи посмотри; иди ляг; иди сходи; иди посиди; пойду открою; пойду посижу; пойду схожу; пойди сходи; сядь посиди. 3동사구문: : иди ляг поспи; иди сходи посмотри; иди ляг полежи; иди посиди подумай; иди сходи узнай; пойду открою посмотрю; пойду посижу почитаю; пойду схожу узнаю; пойду схожу спрошу; сядь посиди подумай; сядь посиди отдохни.

5) 두 번째 부정소는 생략될 수 있다(Weiss 2012 1.3 참조): Не пели плясали.

3. 러시아어의 연속동사구문 분석

3.1.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변이형

연속동사구문은 동사 병치의 일종으로 운율적 휴지 없이 동사들이 결합한 현상이다. 만일 동사 사이에 휴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본문의 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절의(biclasual) 구문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 러시아어에서는 동사연쇄에 쉼표(,) 또는 줄표(тире, —)가 삽입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이와 관련하여 Акутина(2017)는 동사연속 구성에서의 구두법 문제를 지적하고 구두점이 나타나기도 생략되기도 하는 변이형들을 고찰하였다.

(7) *сядем подумаем* ‘(우리는) 앉아서 생각해볼 것이다’

(7) a. *сядем, подумаем*

b. *сядем — подумаем*

(Акутина 2017: 1)

Акутина는 (7')과 같은 변이형은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령 화자가 사고의 과정을 강조하고 싶을 때 반점을 삽입한다고 서술하였다. 반점에 수반하는 휴지가 성분들을 열거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의 설명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쉼표의 사용은 동사연쇄가 일종의 운율적 단일체가 아님을 반증한다. Акутина는 실제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동사연속 구성에서 어떠한 요소가 쉼표 또는 휴지의 유무와 상관관계에 있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V1의 의미 유형이 쉼표의 사용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3동사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이동동사(идти)에는 쉼표가 수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2동사구문만을 형성하는 위치동사(посидеть)의 경우 다른 동사와의 사이에 휴지가 있을 확률이 높다⁶⁾.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도 언급하였듯, 구문 유형별 데이터의 양이 제한적이고 균일하지 않기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줄표는 러시아어 문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복된 문장성분을 생략하며 문법적으로 대등한 절을 연결한다. 즉 나열, 인과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и’와 같은 등위 접속사를 줄표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8) a. *Утром просыпаются, смотрят — а одного ребенка нет.*

b. — *На следующее утро просыпаются — смотрят, еще одного ребенка нет.*

[В. Пелевин. Синий фонарь (1991)]

(8)은 하나의 작품에서 발췌한 문장들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동일한 동사 어휘 쌍이 사용되었으나, (8a)에는 쉼표가 (8b)에는 줄표가 삽입되어 있다. 이로써 러시아어 화자마다 쉼표나 줄표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쉼표와 줄표가 접속 또는 연접의 표지이기 때문에 (8)과 같은 구성을 엄격한 의미에서 정규적인 연속동사구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동사들이 단일사건이 아닌 별개의 ‘각립사건’을 표상하게 됨으로써 해당 구문은 복문의 효과를 띤다. 그러나 사실상 구두점의 문제는 수신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도 달려 있다. 동사 사이에 접속 표지가 없는 것을 보고, 화자 또는 글쓴이가 그것을 (실수로) 생략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6) 비교 예)

a. *Иди сходи посмотри*, что там — предложила Галина русоволосой.

[Е. Семенов. Тайны старой осени (2017)]

b. Только не волнуйся, — залепетала я, — *посиди, отдохни*, сейчас все лечат!

[Д. Донцова. Доллары царя Гороха (2004)]

- (9) а то я не отвечаю, жду все твоего продолжения... Пишу стираю пишу стираю)
 [Переписка в icq между agd-ardin и Колючий друг (16.01.2008)]
- (9') Пишу, стираю, вновь пишу... (Александр Розенбаум)
- (10) а. Пойду схожу посмотрю.
 б. Пойду сяду посмотрю.
 с. Сядь посиди.
- (10') а. Пойду схожу, посмотрю, кто пришел.
 б. Пойду сяду, посмотрю телевизор.
 с. Сядь, посиди во дворе. (Акутина 2017: 6)

(9)는 인터넷상의 개인적인 대화를 모사한 글이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상 여기에서는 쉼표가 생략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어휘가 사용된 시 (9')에서는 쉼표가 삽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쓰는 행위와 지우는 행위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순차적인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람마다 행위 간의 시간 폭을 다르게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들을 단일사건으로 범주화하는가 각립사건으로 인식하는가는 결국 주관성의 영역에 자리한다. 또한 Акутина의 관찰에 의하면 생략된 문장성분 없이 완전한 문장은 쉼표를 포함할 경향이 있다. (10)을 보면 각 문장에는 보어 및 부차적 성분이 생략된 채로 동사만이 배열되어 있고, 동사 사이에는 구두점이 없다. 반대로 후행동사의 보어가 명시되는 (10')의 경우 쉼표가 삽입된다. 이러한 현상은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화자가 휴지로 구분을 둔 것에 기인하나, 선호도는 완전무결한 설명이 될 수 없겠다.

복잡한 논의의 연장선상에는 불임표(дефис, -) 또한 포함된다. 불임표는 철자법의 표시로 합성어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다. 합성동사(compound verb)는 둘 이상의 동사로 이루어졌지만 하나의 통사원자(syntactic atom)로 기능하는 복합체이다. 곧 구성 전체는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가지며 의미의 변화 없이 그 내부가 분리될 수 없다. 합성동사의 예를 들자면, 영어의 ‘stir-fry’(강한 불에 빠르게 볶다), ‘kick-start’(시동을 걸다; 촉진시키다)와 러시아어의 ‘выпить-закусить’(식사하다), ‘ходить-гулять’(산책하다) 등이 있다.⁷⁾ 합성동사의 유형은 동사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누어진다. 위의 예들은 두 어근이 각각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대등 합성동사’ 혹은 두 어근의 뜻이 하나의 새로운 뜻으로 합쳐진 ‘융합 합성동사’에 해당한다. 특히 융합 합성어는 주로 사전에 등재되는데, 문법적으로 고정된 형태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거형의 ‘жил-был’(옛날 옛적에 살았다)와 명령형의 ‘ищи-свищи’(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어; 헛수고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고정성은 단어들이 높은 어휘화 정도를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용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의 합성동사는 다양하게 어형변화 한다. 이때 합성동사를 구성하는 동사들은 연속동사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제, 서법과 같은 형태론적 특성을 공유하고 운율적 휴지를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합성동사와 연속동사 구성은 단순동사술어를 형성하여 단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심지어 동사들이 불임표 없이 연속해서 쓰이는 용례가 흔하게 발견된다.

- (11) а. *Жил-был* Пэ. Капитан Пэ, как называли его космические волчары, пропускающие кружку-другую между рейсами в барах Фомальгаута-2.
 [Запись LiveJournal (2004)]
- б. Лузеры и достигаторы. *Жили были* Коля и Оля.
 [Форум: комментарии к фильму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2008-2011)]

7) 러시아어 합성동사의 예는 Фомин(2017)에서 발췌하였다.

붙임표를 삽입하는가 누락시키는가의 선택은 앞서 언급한 구두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화자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⁸⁾ 이러한 수의적인 상황을 말미암아, 본고는 붙임표의 여부가 동사들의 결속력 정도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사 사이에 붙임표가 삽입된 구성도 동사연속구문에 포괄된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단, SVC의 정의에 따라 동사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사건 및 동작을 나타내야 한다.

- (12) a. [중략] в ней не только *грабят-убивают*, но нормально живут, работают [중략]
 b. [중략] без конца выбирают себе новых начальников да с замириением сердца следят за тем, как *растут-падают* рейтинги вождей.
 [Второе пришествие Рюрика // «Культура», 2002.04.01.]

3.2.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통사 구조

연속동사구문의 통사 구조는 논항이 실현되는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Haspelmath(2016: 293-296)는 다수의 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속동사구문을 크게 동작주(agent)를 공유하는 유형과 피동작주(patient)를 공유하는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3)
- ① 동작주를 공유하는 연속동사구문:
- A. 동사 중 하나가 방향-이동(directional motion)을 나타내는 경우
 Òzó sáán rrá ógbà. | Edo (Benue-Congo; Hagemeyer & Ogie 2011: 47)
 Ozo jumped crossed fence. (= ‘Ozo jumped across the fence.’)
- B. 피동작주(patient)가 서로 다른 경우
 ku tsi klo’ ŋkú.me | Ewe (Kwa; Ameka 2006: 131)
 2SG.scoop water wash face (= ‘Fetch water and wash your face.’)
- C. 단일타동사(monotransitive verb)와 이중타동사(ditransitive verb)가 사용된 경우⁹⁾
 Ja’o kéma dapu ti’i ’ine. | Keo (Central Malayo-Polynesian; Baird 2008: 60)
 I built kitchen gave to mum (= ‘I built a kitchen for mum.’)
- D. 피동작주와 도구(instrument)가 일치하는 경우
 I pran transpò désann anvil. | Guadeloupean Creole (French-lexified; Ludwig 1996: 248)
 3SG took bus go.down to.town (= ‘He went to town by bus.’)
- ② 피동작주를 공유하는 연속동사구문:
- A. 동작주도 공유되는 경우
 Den fon owrukuku kiri. | Sranan (English-lexified; Sebba 1987: 43)
 They beat owl killed (= ‘They beat the owl to death.’)
- B. 타동사 V1의 피동작주가 자동사 V2의 피동작주인 경우
 n=babas welik n=mot do | Taba (South Halmahera-West New Guinea; Bowden 2008: 82)
 3SG=bite pig 3SG=die real (= ‘It bit the pig dead.’)

8) 다음의 예는 하나의 작품에서도 같은 동사들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 a. Я с ней уже намучилась. Ездим, ездим... То не так, это не этак.
 b. Если мы ездим-ездим, а толку — кот нагадил!

[A. Волос. Недвижимость (2000) // «Новый Мир», 2001]

그러나 단순히 강조의 효과를 위해 동일한 동사 어휘가 반복된 구성은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9) 이중타동사가 주로 V1이고, 그 대상(theme)은 V1의 피동작주이다.

러시아어는 Haspelmath가 분류한 연속동사구문의 하위유형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주요 통사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분류를 간소화 내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13-①)과 (13-②)의 큰 틀은 유지하되, 대상, 도구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역-논항에 관한 서술 부분을 제거하고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4)

① 동작주를 공유하는 연속동사구문:

A. 자동사+자동사

a. 이동동사가 포함되는 경우¹⁰⁾

Кто заплатил, а кто не хочет, ко мне **идут жалуются**.

[Ф. Горенштейн. Куча (1982) // «Октябрь», 1996]

А уж сколько мы **ходили орали** потом: «Фрооооооост!».

[Форум: Блэйд (трилогия) Blade (2008-2010)]

b. 위치동사가 포함되는 경우

я пока отвечала. . сама **сидела хихикала**... да я не делаю никогда шпор...

[Переписка в icq между agd-ardin и Колочий друг (17.01.2008)]

— Да вон... **ругается лежит**, — сказала старуха недовольно.

[В. Шукшин. Калина красная (1973)]

B. 자동사+타동사

Поеду провожаю своих — узнаю, чем там они занимаются, пофоткаю..

[Наши дети: Подростки (2004)]

Мы вчера с кристиной весь день **сидели расшифровывали** фотки.

[Переписка в icq между agd-ardin и Колочий друг (21.12.2007)]

C. 타동사+타동사

[중략] Ольга у нас получила права, так что из семьи уже вторая **водила получила** права. [Письмо девушки из Перми сестре в Москву (2001)]

[중략] парень пару раз останавливался, видно, ожидая, что фельдшер ему что-то **скажет-укажет**, куда идти дальше. [В. Быков. Болото (2001)]

② 피동작주를 공유하는 연속동사구문:

A. 타동사+타동사 (동작주도 공유되는 경우)

Отдавай, а не то мы тебя **загребем-замучаем**, как Пол Пот Кампучию.

[К. Букша. Inside Out (Наизнанку) (2005)]

Так что я-то [중략] Амадея Домиановича у себя также вот в гробике **хоронил-выхаживал** с того света, пока не выходил.

[О. Павлов. Карагандинские девятины, или Повесть последних дней // «Октябрь», 2001]

위의 분류를 통해 러시아어의 연속동사구문이 일반적으로 동작주 논항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왜 러시아어가 (13-②-B)의 유형을 보유하지 않는지 설명한다. 대표성과 균형성을 갖춘 RNC의 주요 코퍼스에서 용례를 검색한 결과, 동작주를 공유하는 유형 중에서도 자동사+자동사(14-①-A)와 자동사+타동사(14-①-B)의 조합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특히 이동동사와 위치동사가 V1 자동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Акутина(2017)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2동사구문이 구

10) 이동과 관련하여 러시아어에서는 경로가 접두사로, 양태가 동사 어근으로, 방향이 동사 어근 또는 접미사로 표현된다. 이를 고려하여 (13-①-A)의 ‘방향-이동동사’라는 용어에서 ‘방향’을 누락시켰다.

어체에서 사용된다: заеду узнаю, побегаю поищу, поеду помогу, приду проверю, приеду посмотрю, сидеть отплёвываться, сиди помалкивай, сходила купила 등.

위와 같이 하나의 동사가 폐쇄 부류에 속하는 비대칭적 연속동사구문은 역사적으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¹¹⁾를 겪는 일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에서는 동사가 어느 정도 의미탈색을 거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3동사구문까지 형성할 수 있는 이동동사 ‘идти’나 ‘пойти’는 V1의 위치에서 어휘의미가 약화된다. 이는 곧 해당 이동 동작이 V2가 나타내는 과정의 초기 단계 혹은 하위 사건이라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Weiss(2012)는 ‘пойду проверю’와 같은 경우에서 V2가 신체적 움직임을 함축하므로 V1 이동동사는 의미상 잉여적이게 되며 생략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 그러나 후행 동작을 위한 ‘기동/시동’은 ‘시도’의 의미와도 관련된다: Приходили проверять, а я накрывался с головой (мы жили в номере с Эмилом) — и пойдя догадайся: я это или Эмиль? [И. Э. Кио. Иллюзии без иллюзий (1995-1999)]. 여기서 동사 ‘пойти’의 명령형인 ‘пойди’는 자연스럽게 조사(частица) ‘поди’¹²⁾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поди’는 명령법을 수반할 때 ‘попробуй(те)’의 유의어처럼, 후행동사가 가리키는 행위를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표지로 기능한다: Солоухина нет, и поди догадайся, что из этого незавизированного автором интервью правда, а что ложь. [Л. А. Левицкий. Дневник (1997)]; В выходных данных будет указано 100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и поди проверь, сколько их было. [А. Маринина. Чужая маска (1996)].

연속동사구문에 서로 다른 두 목적어가 자리하는 경우는 러시아어에서 드물다. 문장성분이 많아질수록 동사 사이에 삽입나 줄표가 삽입될 확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피동작주가 서로 다른 (13-①-B)의 유형은 Haspelmath(2016)도 흔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선웅&풍경(2012)은 SVO 어순의 중국어에서 [V1+빈어(宾语)¹³⁾+V2+빈어]와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기본 어순이 SVO인 러시아어에서도 각각의 목적어를 갖는 두 타동사가 연속으로 사용된다. (14-①-C)의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주어 ‘Ольга’(올가)는 가족 중에서 두 번째로 면허를 받아 운전하게 된 사람이다. ‘получить’(받다)의 목적어인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면허)는 명시되지만, ‘водить’(운전하다)의 목적어인 ‘машину’(차)는 상투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두 논항 모두 대상(theme)에 해당한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동사 ‘сказать’(말하다)와 ‘указать’(알려주다)의 논항이 ‘что-то’(무언가)와 의문부사절 ‘куда идти дальше’(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로 내용(content)이다.

두 타동사가 피동작주역 논항을 공유하는 연속동사구문도 존재한다. (14-②-A)의 각 예문에서 피동작주는 확대받을 수도 있는 ‘ты’(너)와, 관에 묻히고 간호받은 ‘Амадей Домианович’(아마테이 도미아노비치)이다. 이처럼 동사들이 하나의 목적어를 공유하는 경우 목적어는 주로 V1 앞에 위치하고, 동사들이 서로 다른 목적어를 갖는 경우 O1은 V1 앞에, O2는 V2 뒤에 온다. 이는 목적어가 그와 연관된 동사 가까이 놓이려는 언어의 보편적인 경향과 상통한다.

러시아어에 (13-①-C) 유형의 연속동사구문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일타동사와 이중타동사 사이에 삽입나 줄표 또는 줄표가 삽입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중략] милиция деньги получит, передаст государству... [А. Грачев. Ярый-3. Ордер на смерть (2000)]; Марина купила для нас две курицы, спасибо ей. Сварим, отнесем Зинаиде Ивановне. [Ю. Л. Нельская-Сидур. Дневники 1968-1973 (1970)]; Мы его вылечим — передадим прокурору. [Ф. Абрамов. Две зимы и три лета (1968)]. 한편, 자동사(주로 이동동사)와 이중타동사는 직접 연속되는 경우가 다음의 예에서처럼 흔하게 확인된다.

11)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그 범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고 앉아 있다’라는 동사구에서 동사 ‘сидеть’(앉다)는 본래의 자세 의미에서 벗어나,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하게 표현하며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된다: Он всегда сидит и жалуется. ‘그 사람은 불평만 하고 앉아 있다.’(이지희&남해현 2020: 80).

12) RNC의 주요코퍼스에서 명령형 동사에 선행하는 ‘поди’는 391개, ‘подите’는 3개의 용례가 검색된다.

13) 동사나 개사(介詞) 뒤에 ‘손님’처럼 오는 성분으로 목적어라고도 하지만, 한국어의 목적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15) a. Про это, что ли, поэма написана! А то я им *приду объясню!* Ты им...

[В. Шукшин. Калина красная (1973)]

b. Я вот про твои дела отпишу и сам *приеду* сдам вам в контору, тогда [중략]

[Ю. О. Домбровский. Хранитель древностей, часть 1 (1964)]

(15)에서 V2는 순서대로 ‘설명하다’, ‘건네주다’라는 뜻의 세 자리 서술어이다. 각 술어가 필요로 하는 대상역의 직접목적어는 선행 맥락에서 암시되어 생략되었지만, 목표역(goal)의 간접목적어는 명시되어 있다. V2의 직접목적어는 (15a)에서 V1 앞에 오고 (15b)에서는 V2의 뒤에 온다.¹⁴⁾ 제시된 예문들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은 동사 사이에 다른 요소를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3.3. 보편성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

SVC의 정의에 불필요한 기준이 포함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ikhenvald(2006)의 정의에 해당하는 “SVCs may also share core and other arguments” 문장은 사실상 연속동사구문을 분별해주는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은 정의 기준보다 주어진 현상의 일반화로서 유도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Haspelmath는 기존의 비교언어학 연구(Aikhenvald 2006, Baker 1989, Bisang 1989, Durie 1997, Foley & Olson 1985)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언어에 적용되는 SVC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Haspelmath 2016: 307-311 재인용).

- (16) a. 동사들의 시제가 같다.
b. 동사들의 서법이 같다.
c. 동사들은 서로 다른 시간 또는 사건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modifier)를 갖지 않는다.
d. SVC는 하나의 동사가 쓰인 절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음조 곡선을 지닌다.
e. SVC가 인과 관계 또는 동작의 선후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 두 동사의 순서는 시제-도상적(tense-iconic)이다. 즉 원인 동사는 결과 동사에 앞서고, 선행 사건을 표현하는 동사는 후행 사건을 표현하는 동사에 앞선다.
f. 동사들의 인칭, 시제, 서법 또는 부정의 표지가 하나로 같다면, 해당 표지는 주변부 위치, 즉 첫 번째 동사 앞이나 마지막 동사 뒤에 위치한다.
g. 모든 동사는 적어도 하나의 논항을 공유한다.
h. SVC를 갖는 모든 언어는 동사들이 주어를 공유하는 유형을 갖는다.
i. 주어가 다른 SVC에서 두 번째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이다.
j. SVC는 서로 다른 두 동작주를 가질 수 없다. 비-동작주가 공유되면 동작주 또한 반드시 공유된다.

이 장에서는 (16)에 근거하여 러시아어의 연속동사구문이 SVC의 유형적 보편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

앞에서 계속 논하였듯, 러시아어에서 연속적 배열을 형성하는 동사들은 동일한 시제와 서법의 표지를 갖는다. 따라서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은 (16a)와 (16b)에 부합한다(— *Сбегай принеси* мне чего-нибудь

14) 이와 관련하여 남미혜(1996)는 선행동사와 후행동사의 성분 구조에 따라 SVC를 동심 구조, 내심 구조, 외심 구조로 나누었다. V1과 V2의 성분 구조가 같을 때 즉, 둘 다 자동사이거나 둘 다 논항을 공유하는 타동사일 때 동심 구조를 갖는 반면, V1과 V2의 성분 구조가 같지 않은데 공유되지 않은 성분이 V1의 지배를 받을 때 내심 구조를, V2의 지배를 받을 때 외심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남미혜(1996)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이지만, 해당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어순에 상관없이 러시아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5a)는 외심 구조 (15b)는 내심 구조에 해당하겠다.

пожрать, иначе мне некогда [중략] [С. Спивакова. Не всё (2002)].

Bohnmeyer et al.(2007)에 의하면 모든 절은 ‘macro-event 특성’ 곧 하나의 시간 수식어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사건 장소의 수식어도 마찬가지다. 문장에서 동사들이 갖는 시간이나 사건 장소의 수식어는 하나로 일치하므로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은 (16c)에 부합한다(*По дороге* пять раз останавливался-отдыхал. [О. Тихомиров. Про козла Евдокима // «Мурзилка», 2001]).

연속동사구문이 단일동사절처럼 하나의 어조로 발음되는 것은 많은 학자가 동의하는 SVC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다중 어조를 갖는다고 기술된 바 있는 Barai의 구문은 다중 부정의 가능성을 지닌 것인데(Foley & Olson 1985: 39), 이는 (3)에 의해 배제된다.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에는 (16d)의 보편성이 나타난다(*Повез их в ресторан. Сидят выпивают.* [Д. Гранин. Зубр (1987)]).

일반적으로 연속동사구문 내 동사들의 위치는 하위 사건들의 자연스러운 발생 순서를 반영한다. 러시아어의 연속동사구문에서도 V1의 동작이 V2의 동작보다 먼저 이루어진다(«Слабо, не отработано, вот *возьмите почитайте* рецензию и подумайте над ней, а потом поговорим». [Ю. О. Домбровский.

Факультет ненужных вещей, часть 4 (1978)]). 동작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동시 동작 상황의 경우에서도 동사들은 일반 상식적인 시간 순서에 따른다(A те, в оранжевых робах, ворочающие шпалы и рельсы на путях, — мужчина-руководитель *стоит покрикивает*... [И. Грекова. Перелом (1987)]). 반면, Weiss(2012: 614)는 ‘ты бы спала легла’(네가 좀 잤으면 누워서), ‘Рассказывай садись’(얘기해봐 앉아서)와 같이 동사들이 도치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상적인 구문은 화자가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중점을 둠으로써 통상의 선후 관계가 무효해진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한 맥락에서 사용되므로¹⁵⁾ 이 글에서는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이 일반적으로 (16e)의 특성에 따른다고 결론하겠다.

동사연속의 중간에 다른 요소가 삽입되는 경우 그 배열의 통합성 내지는 전일성은 상실될 수 있다. RNC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사들 사이에 특정 단어나 표지가 자리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4)에서 보았듯이 부정소 ‘не’는 선행 또는 후행 동사 앞에 출현할 수도 두 동사 앞에 두 번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연속 구성은 부정의 범위가 동사 전체를 망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문의 ‘단일 부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각주 2)의 ‘*Не* пели плясали’와 같이 하나의 부정소로 V1, V2 모두 부정되는 문장만이 연속동사구문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서법 표지의 경우 부정 표지와 마찬가지로 두 번 쓰일 수 없지만, 동사 사이에는 올 수 있다(*Пошел бы* спросил — может, ей помощь какая нужна? [А. Мельник. Авторитет (2000)]). 따라서 러시아어의 연속동사구문이 (16f)의 보편성을 띠는가에 대해서는 △ 기호로 판정하겠다.

(14)를 통해 연속동사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들이 최소 하나의 논항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연속동사구문에서 어떠한 논항을 공유하는가에 따라 동작주를 공유하는 유형과 피동작주를 공유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러시아어의 경우 두 유형에서 모두 주어를 공유하는 연속동사구문이 존재한다. 고로 러시아어의 연속동사구문은 (16g)과 (16h)에 부합한다. 주어가 다른 연속동사구문의 용례는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기에 (16i)는 논외로 한다. 또한 러시아어에서는 서로 다른 동작주를 갖는 연속동사구문의 용례가 없다. 두 동사의 피동작주 논항이 일치하는 경우 동작주 또한 일치하므로(14-②-A)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은 마지막 (16j)의 자질을 갖는다.

러시아어의 연속동사구문은 Haspelmath(2016)가 도출한 일반화 가운데 예외가 있는 (16e), (16i)를 제외한 8가지 특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범언어적 보편성을 확보한다고 말할 수 있다.

15) 예를 들어, ‘취침하다’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은 ‘ложиться спать’이다. RNC에서 수집한 2,680개의 연속동사구문 가운데 ‘быть’와 함께 결합하여 쓰인 미정형 ‘ложиться спать’ 128개와 ‘спать ложиться’ 4개, 명령형 ‘ляг поспи’ 1개와 ‘ложись спи’ 1개 그리고 미래시제 ‘лягу посплю’ 1개가 확인된다. 그리고 동사가 도치된 ‘спать ложиться’의 경우는 모두 소설 작품의 용례에 해당한다.

4. 결론

본고는 범언어적 연구를 기반 삼아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에서 나타나는 언어보편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SVC 연구를 종합하여 발전시킨 Haspelmath(2016)의 정의에 근거해서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범위를 규정하고, 동사의 성질과 논항의 실현을 기준으로 통사 구조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문의 통사 구조와 그것을 형성하는 동사들의 의미 부류는 다소 제한되지만,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이 세계 언어의 일반적인 SVC가 지닌 보편적인 특성들을 고루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언어적인 보편성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SVC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자주 언급되는 ‘단일사건’의 기준을 명확히 논하지 못하였다. 어떤 경우가 각립사건으로서 SVC에서 제외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정한 상황이나 상태를 단일사건과 다중사건 둘 중 무엇으로 개념화하는지는 근본적으로 언어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실용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또 교차언어학적 비교에 유용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다동사’구문이므로 동사의 사건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 언어에서 단일한 복합사건으로 이해되는 행위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문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 또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겠다.

둘째,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의미 유형을 기술하지 못하였다. Aikhenvald(2006)는 언어유형학의 관점에서 SVC가 나타내는 의미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¹⁶⁾ 여러 의미 유형이 SVC라는 동일한 언어형식으로 표현되는 현상은 해당 의미들이 우연히 임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정혜인 2019: 129). 의미지도 모형(semantic map model)을 적용하여 범언어적 보편성을 지닌 개념공간(conceptual space)에서 의미지도를 그려본다면,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이 지닌 의미기능¹⁷⁾의 분포 및 관계를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혜인(2019)은 표준어를 비롯한 중국어 여러 방언에서의 연속동사구문을 대상으로 개념공간과 의미지도를 구축한 바 있다. 특이하게도 의미기능 간의 원근 관계를 ‘의미기능의 유무’가 아닌, ‘의미기능을 표현할 때 구문 내 두 동사 사이에 사용된 표지의 분포 양상’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그 이유는 의미기능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형식은 의미기능 간의 유사성을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코퍼스에 기반하여 러시아어 연속동사구문의 의미기능을 분석하거나, 의미지도 모형을 적용하여 의미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참 고 문 헌

<국문>

- 남미혜(1996), 국어의 연속 동사 구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선웅(2011),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연속동사구문. 언어연구, 27(1), 165-182.
이선웅&풍정(2012), 한국어와 중국어 연속동사구문의 통사적 대비. 인문학연구, 39(1), 141-165.
이연화(2018), 이동사건의 유형학적 분석과 한국어 어휘화 유형. 외국학연구, 제43집, 197-214.
이지희&남혜현(2020), 러시아어와 한국어 자세 동사의 대조 연구: ‘сидеть’와 ‘앉다’를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44(4), 61-87.
정혜인(2017), 언어유형학적 시각에서 본 중국어 연속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s)의 정의와 범위. 중국언어연구, 73, 93-114.

16) 1) 인과(cause-effect), 2) 수혜자(benefactive), 3) 수반(comitative/sociative), 4) 도구(instrument), 5) 방식(manner), 6) 사동(causative), 7) 선후 행위(sequential action), 8) 동시 동작(concomitant action), 9) 방향(direction), 10) 기원(orientation), 11) 상(aspect), 12) 범위(extent), 13) 상태변화(change of state), 14) 서법(modal), 15) 비교(comparative), 16) 최상급(superlative), 17) 보문 전략(complement strategy), 18) 유의적 동사 중첩(synonymous verb serialization).

17) 의미지도 모형에서 말하는 ‘의미기능’의 개념은 ‘구문 의미’와 일치한다.

정혜인(2019), 연속동사 구문에 관한 의미지도 연구: 중국어 방언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81, 127-157.

<논문>

Акимова Г.Н., Вяткина С.В., Казаков В.П., Руднев Д.В.(2009), *Синтаксис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ик для студ. высш. учеб. заведений* — СПб.: СПбГУ — 346 с.

Валгина Н.С.(2003),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Синтаксис: Учебник* — 4-е изд., испр. — М.: Высш. шк. — 416 с.

Фомин Э.В.(2017), О сущностных параметрах парных сл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И. А.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и мировая лингвистика. Казань, 2017. Т. 1. С. 278–280.

<영문>

Акутина Н.(2017), “Russian multiverb constructions”, Studiorum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ортал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рпу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https://studiorum.ruscorpora.ru/text_author/%d0%b0%d0%ba%d1%83%d1%82%d0%b8%d0%bd%d0%b0-%d0%bd%d0%b0%d1%82%d0%b0%d0%bb%d1%8c%d1%8f/ (2023.07.29).

Aikhenvald A.Y.(2006),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typological perspective”, *Serial verb constructions: A cross-linguistic typology*, 1-68.

Bisang W.(2009), “Serial Verb Constructions”.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3: 792-814.

Bohnenmeyer J., Enfield N. J., Essegbey J., Ibarretxe-Antuñano I., Kita S., Lüpke F. & Ameka. F. K.(2007), “Principles of event segmentation in language: the case of motion events”, *Language* 83.3, 495-532.

Haspelmath M.(2016),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Comparative Concept and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s”, *Language and Linguistics*, 17(3), 291–319.

Weiss D.(1993), “Dvojnye glagoly v sovremennom russkom jazyke”, In: F. Fici Giusti & S. Signorini (eds.), *Kategorija skazuemogo v slavjanskix jazykax: Modal'nost' i aktualizacija*, 67-97.

_____ (2000), “Russkie dvojnye glagoly: kto xozjain, a kto sluga?”, In: L.L. Iomdin, L.P. Krysin (eds.). *Slovo v tekste i v slovare. Sbornik statej k semidesjatiletiju akademika Ju. D. Apresjana*, Moskva: Jazyki slavjanskix kul'tur, 356-378.

_____ (2003), “Russkie dvojnye glagoly i ix sootvetstvija v finnougorskix jazykax”, *Russkij jazyk v naučnom osveščeenii*, 6(2), 37-59.

_____ (2008), “Vremennaja sootnesennost' dvojných glagolov soverenno go vida”, In: *Dinamičeskie modeli: Slovo. Predloženie. Tekst. Sbornik statej v čest' E.V. Padučevoj*, Moskva: Jazyki slavjanskix kul'tur, 155–177.

_____ (2012), “Verb serialization in North East Europe: the case of Russian and its Finno-Ugric neighbours”, In: Wiemer, B., Wälchli, B. & Hansen, B. (eds.), *Grammatical replication and grammatical borrowing in language contact*, 611-646.

_____ (2013a), “Dvojnye glagoly v russkoj razgovornoj reči v zerkale Nacional'nogo korpusa. Formy imperativa mn.č.”, In E. Vel'mezova (ed.), *Schweizerische Beiträge zum XV. Internat. Slavistenkongress in Minsk, August 2013*, 319–341.

_____ (2013b), “Russian double verbs in the 1st pl Imperative”,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85: 165-175.

한국인 학습자의 러시아어 폐쇄음 습득에서 나타나는 간섭현상 연구: 초급 학습자의 음성 표본을 중심으로

Исследование явлени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при освоении взрывных звук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йскими студентами

— на примере голосовых образцов студентов начального уровня

임혜민
(석사2학기)

<목차>

1. 서론
2. 한국어와 러시아어 폐쇄음의 특징
3. 선행 연구 검토
4. 파일럿 테스트 (Pilot Test) 설계 및 분석
 - 4.1. 실험의 설계
 - 4.2. 실험의 분석
 - 4.2.1. 러시아어: 양순 파열음, 한국어: 양순 파열음
 - 4.2.2. 러시아어: 치 파열음, 한국어: 치경 파열음
 - 4.2.3. 러시아어: 연구개 파열음, 한국어: 연구개 파열음
5. 결론

1. 서론

언어학 연구에서 언어 발음의 특징과 언어 간 발음의 차이는 항상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주제는 음성 인식 기술, 비교언어학, 대조언어학, 외국어 학습,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언어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그 중 외국어 학습의 관점에서 한국인 러시아어 초급 학습자가 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러시아어 폐쇄음(stop sounds)¹⁸⁾에 주목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 폐쇄음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폐쇄음에 대해 다룬 기존 연구는 대부분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반대의 경우가 대상인 본 연구는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원어민 학습자에게 러시아어 습득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2장에서는 먼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폐쇄음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두 언어의 폐쇄음 간 발음 차이를 조음·음향·청음 음성학적 관점 모두를 활용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한국인 러시아어 초급 학습자의 러시아어 폐쇄음 음성 표본을 수집하고, 이를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이용해 분석하여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러시아어 폐쇄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1언어의 간섭과 관련지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8) 파열음(plosive sounds)이라고도 한다.

2. 한국어와 러시아어 폐쇄음의 특징

한국어의 음운은 일반적으로 음소와 운소로 구분되며, 음소는 ‘분절 음운’으로 마디를 나눌 수 있는 자음, 모음, 반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운소는 ‘비분절 음운’으로 마디를 나눌 수 없으며, 반드시 분절음운을 동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범언어적으로 운소는 소리의 길이, 높낮이, 세기 등이 존재하나, 한국어에서는 오직 소리의 길이만이 비분절음운으로 기능한다.

음소 중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로, 한국어에는 19개의 자음이 음운으로서 존재한다. 한국어의 자음은 다섯 가지 조음 위치(place of articulation)와 다섯 가지 조음 방법(manner of articulation)으로 산출된다.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로는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이 가능하며,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이 해당한다.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에 속하는 15개의 자음은 장애음(obstruents)이며, 비음, 유음에 속하는 나머지 자음은 공명음(sonorants)이다. 장애음은 기식(aspiration)의 정도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의 3중 체계로 구분되는데, 타 언어의 자음이 보통 유성음과 무성음의 2중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징적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1]과 같다.

조음 위치 가의 세기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p]	ㄷ [t]		ㄱ [k]	
		경음	ㅃ [pʰ]	ㄸ [tʰ]		ㄲ [kʰ]	
		격음	ㅍ [pʰ]	ㅌ [tʰ]		ㅋ [kʰ]	
	마찰음	평음		ㅅ [s]		ㅎ [h]	
		경음		ㅆ [sʰ]			
		격음					
		파찰음	평음			ㅈ [t͡ʃ]	
			경음			ㅉ [t͡ʃʰ]	
			격음			ㅊ [t͡ʃʰ]	
공명음	비음	ㅁ [m]	ㄴ [n]		ㅇ [ŋ]		
	유음		ㄹ [l]				

[표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박현정 2021:12)

한국어의 장애음이 가지는 흥미로운 특징은 15개나 되는 장애음 전부가 무성음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어의 장애음은 발성 유형(voice type)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신지영(2016:100)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장애음이면 모두 무성음’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국어 폐쇄음 또한 장애음에 속하므로 총 9개의 폐쇄음 모두가 무성음이다. 한국어 폐쇄음은 조음 위치와 발성 유형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조음 위치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
발성 유형	평음	p (ㅂ)	t (ㄷ)	k (ㄱ)
	경음	p* (ㅃ)	t* (ㄸ)	k* (ㄲ)
	격음	ph (ㅍ)	th (ㅌ)	kh (ㅋ)

[표 2] 한국어 폐쇄음의 분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어 폐쇄음은 기식(aspiration)의 정도에 따라 평음 계열, 경음 계열, 격음 계열로 나뉜다. 평음 계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평음보다 기식성이 강하면 격음으로, 평음보다 기식성이 약하면 경음으로 분류된다.

신지영(2016: 53)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음을 음성 기호로 나타낼 때 연구자에 따라 [p', t', k']로도, [p*, t*, k*]로도, [P, T, K]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아포스트로피(apostrophe)를 붙일 경우, 후술될 러시아어 연자음 [p', t', k']와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경음을 라데포그드(Ladefoged) 식으로 [p*, t*, k*]로 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폐쇄음의 다중대립과 관련된 최소대립군(minimal set)을 나타내면 아래 (1)과 같다.

- (1) a. 달 /tal/ 'moon' 딸 /t*al/ 'daughter' 탈 /t^hal/ 'mask'
 b. 불 /pul/ 'fire' 뿔 /p*ul/ 'horn' 풀 /p^hul/ 'grass'
 c. 큰 /kin/ 'unit of weight' 끈 /k*in/ 'string' 큰 /k^hin/ 'big'
 (윤아름 2013:5)

이에 반해, 러시아어 자음은 발성 유형(voice type), 조음 위치,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러시아어 자음은 성대의 울림이 동반되는 유성자음과 진동이 동반되지 않는 무성자음으로 분류되며, 서로 대응하는 유성음과 무성음은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서 오로지 성대의 진동이 수반되는지의 여부만 다르다. 한편, 러시아어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7가지 방법으로 분류되며,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장애음에 해당하는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및 공명음에 해당하는 비음, 유음, 활음(반자음, glide)이 가능하다.

이를 한국어 자음과 비교해 보자면 러시아어의 자음이 구개음화의 여부에 따라 경음과 연음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활음이 반모음으로 분류되는 한국어와 달리 러시아어에서는 반자음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방법	자리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경음	연음	경음	연음	경음	연음	경음	연음		경음	연음
파열음	무성	п[p]	п'[p']			т[t]	т'[t']				к[k]	к'[k']
	유성	б[b]	б'[b']			д[d]	д'[d']				г[g]	г'[g']
마찰음	무성			ф[f]	ф'[f']	с[s]	с'[s']	ш[ʃ]	ш[ɕ :]		х[x]	х'[x']
	유성			в[v]	в'[v']	з[z]	з'[z']	ж[ʒ]	ж'[ʒ']			
파찰음						ц[ts]			ч[tʃ]			
비음		м[m]	м'[m']			н[n]	н'[n']					
유음	혀옆					л[l]	л'[l']					
	떨림							р[r]	р'[r']			
활음									й[j]			

[표 3]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 (박현정 2021:17)

[표 3]의 상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성음만 존재하는 한국어의 파열음과 달리 러시아어의 파열음에서는 무성음과 대립되는 유성음 쌍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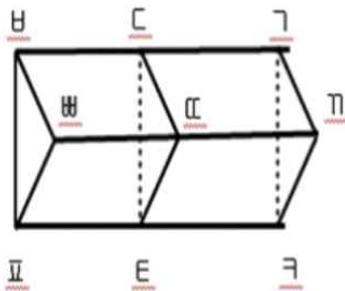
- (2) a. пил /pil/ ‘마셨다’ бил /bil/ ‘때렸다’
 b. там /tam/ ‘거기에’ дам /dam/ ‘줄 것이다’
 c. кот /kot/ ‘고양이’ гот /got/ ‘고트족’

(2)는 무성 파열음 /p, t, k/가 상응하는 유성 파열음 /b, d, g/와 각각 두음에서 대립을 보이는 단어 쌍의 예시이다. (2)의 예시에서, 어두의 무성음을 유성음으로 발음하거나, 혹은 반대로 유성음을 무성음으로 발음하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러시아어의 유무성은 단어의 뜻을 구별짓는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이다. 또한 러시아어의 파열음은 기식의 정도에 따라 최소대립쌍을 구성하지 않으며, 한국어 [t], [t*], [th]의 조음 위치는 치경음(alveolar)인데 반해, 러시아어 [t], [t’], [d], [d’]의 조음 위치는 치음(dental)이다. 이와 같은 한국어와 러시아어 자음 조음의 차이, 특히 두 언어에서 폐쇄음의 변별적 자질의 차이는 한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러시아어 습득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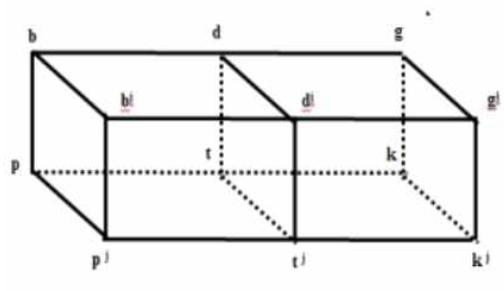
3. 선행 연구 검토

예시나 외(Jesina et al. 2012:19)에 따르면, 러시아어 치 파열음 [t]-[d]는 한국어 치경 파열음 [t*]-[t]와 조음점이 다르다. 치경음은 기류의 협착 혹은 폐쇄가 혀와 윗잇몸 사이에서 일어나며 조음되는 반면, 치음은 혀와 윗니에서 일어나며 조음된다. (신지영 2023:73)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 원어민 화자가 [t] 또는 [d]를 발음할 시, 혀끝은 아랫니 쪽으로 내려가고 전설은 윗니에 닿은 채로 발음된다.

최영미(2018:290)는 한국어 파열음 조직과 러시아어 파열음 조직을 [그림 1]과 [그림 2]처럼 시각화하여 제시하며,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파열음을 습득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성학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한국어권 학습자의 경우에도 러시아어 파열음 습득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림 1] 한국어 파열음 조직



[그림 2] 러시아어 파열음 조직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 구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러시아어의 경우 평음과 경음이 변별적 자질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이 한국어 평음 [p], [t], [k]를 경음 [p*], [t*], [k*]로 발음하는 실수를 자주 일으킨다. (김빅토리아 2004:28) 비슷한 이유로, 필라델퍼브(2007:37)에 따르면 러시아어 단어 книга(/kniga/, ‘book’)의 발음을 한국어로 전사하는 경우, 러시아인은 보통 [크니가]와 [꼬니가]를 같다고 인식한다. 양순 위치에서 성대가 울리지 않게 [k]를 발음했으면,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가 [k]를 발화해도, [k*]를 발화해도 러시아인 원어민 화자의 귀에는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 화자들은 러시아어 파열음 중 유성음을 한국어 평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p]-[b]의 경우 변별적 자질은 무성음-유성음 대립이지만, 한국인 학습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별적 자질을 한국어의 경음-평음 대립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음향음성학적으로, 유성 파열음은 아래의 (3)과 같은 음향적 특징들에 의해 그에 대응하는 무성 파열음과 구별된다.

- (3) a. 유성 파열음의 개방파열 직전에 약하고 주기적인 신호가 선행한다.
- b. 유성 파열음의 시간길이가 그에 대응하는 무성 파열음의 시간길이에 비해 더 짧다.
- c. 유성 파열음 앞 모음의 시간길이는 그에 대응하는 무성 파열음의 시간길이에 비해 더 길다.
- d. 유성 파열음 뒤에 위치하는 모음의 F0는 그에 대응하는 무성 파열음의 F0에 비해 더 낮은 주파수에서 시작한다.
- e. 유성 파열음의 개방파열은 그에 대응하는 무성파열음보다 더 작은 진폭과 더 짧은 시간길이를 보인다.
- f. 선행모음의 끝 부분과 후행모음의 앞 모음에서의 포먼트전이(formant transition)는 유성 파열음의 경우에 길고, 무성 파열음의 경우에 짧다.
- g. 유성 파열음 뒤의 모음은 동일한 조건에 있는 무성 파열음 뒤의 동일 모음보다 시간 길이가 더 길다.
- h. 일반적으로 유성선행(voice lead, 개방파열 직전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주기적인 음성신호)은 무성 파열음에서보다 유성 파열음에서 존재한다.

(Baart 2010: 100-101)

흥미로운 점은 위의 (3a) - (3h) 중 어떤 것도 유성 파열음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 중 일부만 존재해도 유성성의 인지가 가능하다. 이외에 (3h)에서 언급된 유성선행의 존재는 파열음의 발화 초기에 발생할 시 보다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유성선행과 관련하여 유성 파열음이 유성선행을 보이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어의 경우 유성 파열음이 유성선행을 보이는 언어이나, 영어의 경우 유성 파열음이 유성선행을 보이지 않는 언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영어는 음운론적 유성 파열음이 음성학적으로는 무성음이 되는, 즉 파열음의 폐쇄와 개방 시기에 성대 진동이 없는 언어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대진동 개시시간(Voice Onset Time, 이하 VOT)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VOT란 파열음의 개방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성대진동의 시작 순간이다. 파열음의 개방 시간을 0으로 할 때, 0값을 기준으로 좌측은 음수값, 우측은 양수값인 가로 형태의 연속적 눈금자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파열음의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성대의 진동이 시작되는 경우는 이 눈금자 상에서 음수값, 즉 -VOT 값을 가지고, 반대의 경우 양수값, 즉 +VOT 값을 보인다. 개별 언어의 VOT 값을 측정하여 눈금자 위에 위치시킬 때, 네덜란드와 영어 모두 유성 파열음의 VOT는 눈금자에서 보다 왼쪽에 나타나고, 무성 파열음의 VOT는 보다 오른쪽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영어 파열음의 VOT는 유성과 무성 파열음 모두 네덜란드어의 VOT보다 늦추어져 있다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VOT를 초기, 중기, 말기의 3구간으로 나눈다면, 네덜란드어 유성파열음은 초기이고 무성파열음의 VOT는 중기에 해당하는 반면에, 영어 유성 파열음의 VOT는 중기, 무성 파열음의 VOT는 말기에 해당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VOT		
	초기 (대략 -80ms)	중기 (대략 +10ms)	말기 (대략 +80ms)
네덜란드어	유성 파열음	무성 파열음	
영어		유성 파열음	무성 파열음

[표 4] VOT 값에 따른 네덜란드와 영어 파열음 분류

네덜란드어 유성 파열음의 경우, 파열이 생기기 전에 성대가 진동하므로 -VOT 값을 가진다. 반면 영어 유성 파열음의 경우에는 파열 이후에 성대가 진동하므로 +VOT 값을 가진다. (Baart 2010: 97-105) 본고에서 분석할 러시아어의 경우 유성 파열음은 -VOT 값을 가지고, 한국어의 경우 유성 파열음은 부재하며 무성 파열음은 +VOT 값을 가진다. (변군혁 2006:5-6) 러시아어 유성음은 -VOT 값으로, 무성음은 +VOT 값으로 구분되나, 한국어에서는 +VOT 범위 내에서 평음, 경음, 격음이 구분된다. (정버들 2019:16)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진행하여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가 유성 파열음이 어두에 오는 러시아어 단어를 -VOT 값으로 발음하는지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후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동일 단어를 발음하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학습자의 VOT 값을 측정하여 비교해보려고 한다.

4. 파일럿 테스트 (Pilot Test) 설계 및 분석

4.1. 실험의 설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러시아어 파찰음 산출 양상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된 녹음기는 Zoom사의 H6 모델이며, 해당 모델에 장착이 가능한 XY 마이크에 윈드스크린을 장착하여 녹음했다. 샘플링 주파수(sampling frequency)는 44,100Hz로 설정하였다. 실험 음성 표본의 품질을 최대한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삼각대를 이용해 마이크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녹음하였으며, 녹음기의 Lo Cut 필터를 활성화해 237Hz 이하의 불필요한 저음역대 럼블 잡음(rumble noise)을 줄였다. 실험을 통해 산출된 음성 파일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6.3.14를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은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러시아어 초급 학습자 1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향후 본 실험에서는 러시아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군 모두를 대상으로 음성 수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실험에서 성비를 균일하게 맞추어 피실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피실험자가 발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평상시의 발음 습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어 음성뿐만 아니라 피실험자의 한국어 파찰음 산출 표본까지도 수집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한국어와 러시아어 원어인 음성을 각각 네이버사전과 KoRusDic Pro에서 수집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사전에서 수집한 음성과 함께 원어인 피실험자의 음성 다수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한 피실험자 정보는 아래 [표 5]와 같다.

피실험자 식별 기호	성별	나이	제1언어 (First Language)	수준	학습기간 (년)	전공여부	러시아권 거주 기간 (년)
KRL1	여	만 27세	한국어	초급	1	부	-

[표 5] 파일럿 테스트의 피실험자 정보

실험을 통해 (1)과 (2)에 제시된 한국어와 러시아어 단어들을 수집하였다. 피실험자가 실험의 목적인 유무성 대립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발음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단어 6개 외에 추가로 무작위 단어(dummy words) 24개를 섞어서 제시하였다. 실제 실험 단어와 무작위 단어 목록은 아래 (4), (5)와 같다.

- (4) a. 한국어 실제 실험 단어 목록
 뽕, 불, 딸, 달, 끈, 근 (/p*ul/, /pul/, /t*al/, /tal/, /k*in/, /kin/)
- b. 한국어 무작위 단어 목록 (가나다 순)
 가족, 갈매기, 굴, 기념품, 낙타, 마당, 맥주, 문어, 바닥, 밥, 벚꽃, 서울, 숫자, 악기, 양파, 언어, 정원, 창문, 책, 층, 콩, 표, 학생, 형
- (5) a. 러시아어 실제 실험 단어 목록
 пил, бил, там, дам, кот, гот (/pil/, /bil/, /tam/, /dam/, /kot/, /got/)
- b. 러시아어 무작위 단어 목록 (알파벳 순)
 билет, вишня, дом, дым, жук, забор, кит, лев, мак, кукла, Москва, мяч, нуль, ок
 но, пиво, пол, сад, сок, сом, студент, торт, чайка, этаж, язык

각 언어당 30개의 실험 단어 목록을 형성하였고, 엑셀에서 난수(random number)값을 만들어 주는 RAND 함수를 이용하여 단어의 순서를 무작위로 조합하였다. 각각의 단어를 생성된 무작위 순서에 따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옮겼다. 한 슬라이드에 한 단어만 삽입하여 피실험자가 보고 읽을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슬라이드 쇼 자동 화면 전환 기능을 이용하여 매 3초마다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였다.¹⁹⁾ 실제 녹음을 진행하기 전에 피실험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단어 세트를 각각 1회씩 연습하였고, 이후 본 녹음에서는 한국어 단어 세트를 먼저 녹음한 후 러시아어 단어 세트를 녹음하였다. 동일한 과정을 한번 더 반복하여 그 결과 단어 30개씩 4회 녹음으로 총 120개의 음성 샘플을 획득하였으며, 이 중 실제로 분석할 실제 단어는 (4a)와 (5a)에 제시된 단어들이다.

4.2. 실험의 분석

서술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어 사전²⁰⁾ 음성은 RUD로, 한국어 사전²¹⁾ 음성은 KRD로,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 음성은 [표 5]를 통해 사전에 부여한 피실험자 식별 기호로 작성하고자 한다. 음성 표본은 Praat 6.3.14로 분석되었으며, 파열순간과 파열소음 및 유성 파열음의 폐쇄구간에서 나타나는 유성성을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최대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각적으로 대조를 줄 목적으로 스펙트로그램의 주파수대를 보수적으로 0Hz부터 10,000Hz까지로 넓게 설정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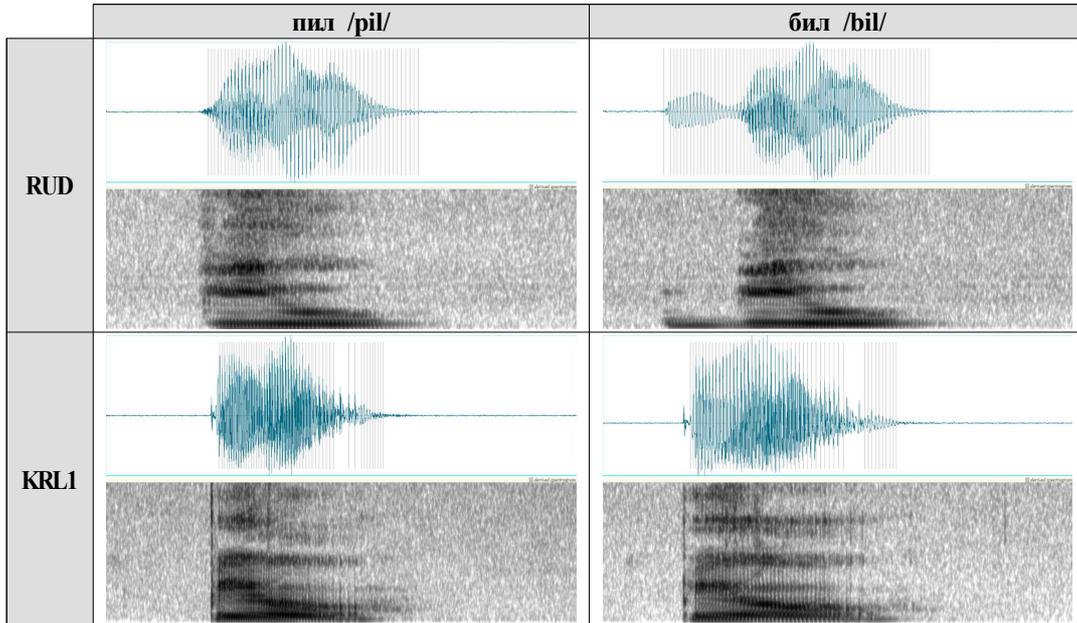
19) 실험에 사용된 슬라이드 일체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20) KoRusDic P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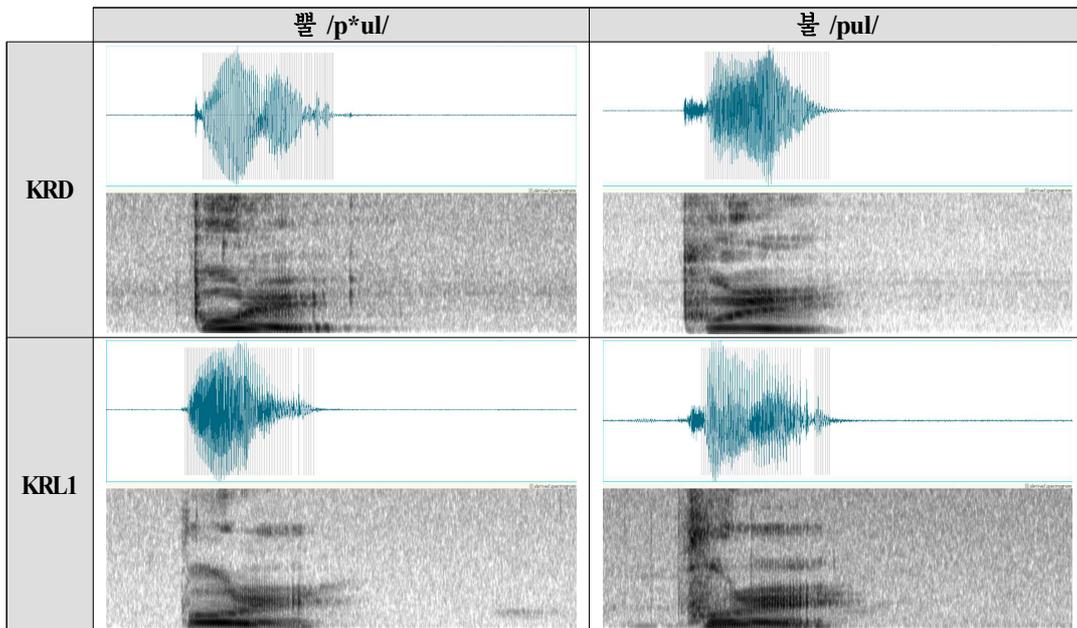
21) 네이버사전

22) Praat 기본값은 5,000Hz이다.

4.2.1. 러시아어: 양순 파열음, 한국어: 양순 파열음



[표 6] 러시아어 양순 파열음 실험 단어의 Praat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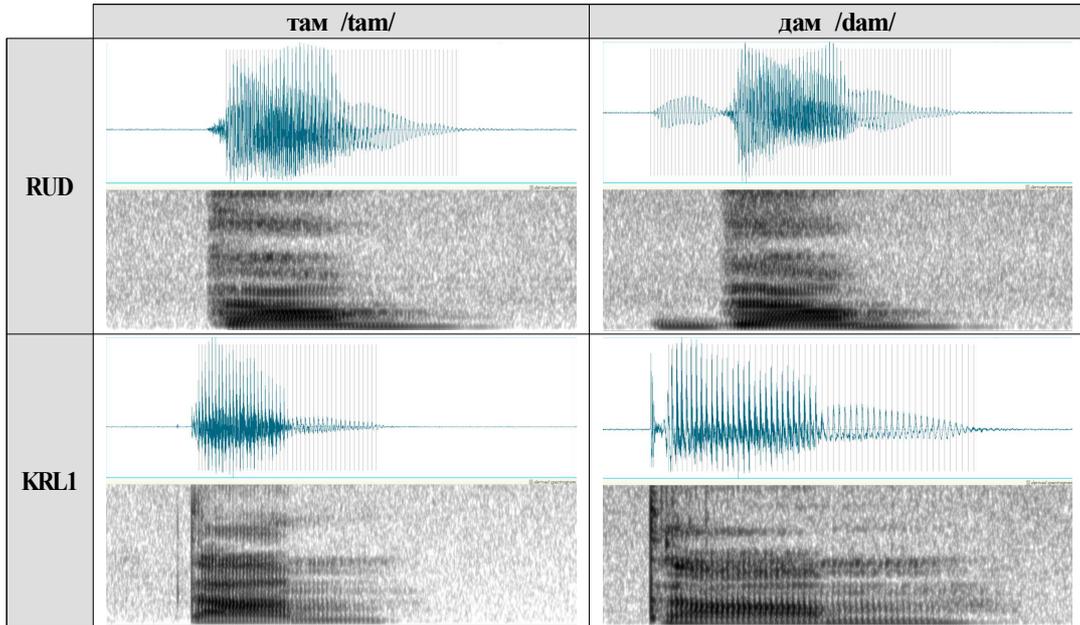


[표 7] 한국어 양순 파열음 실험 단어의 Praat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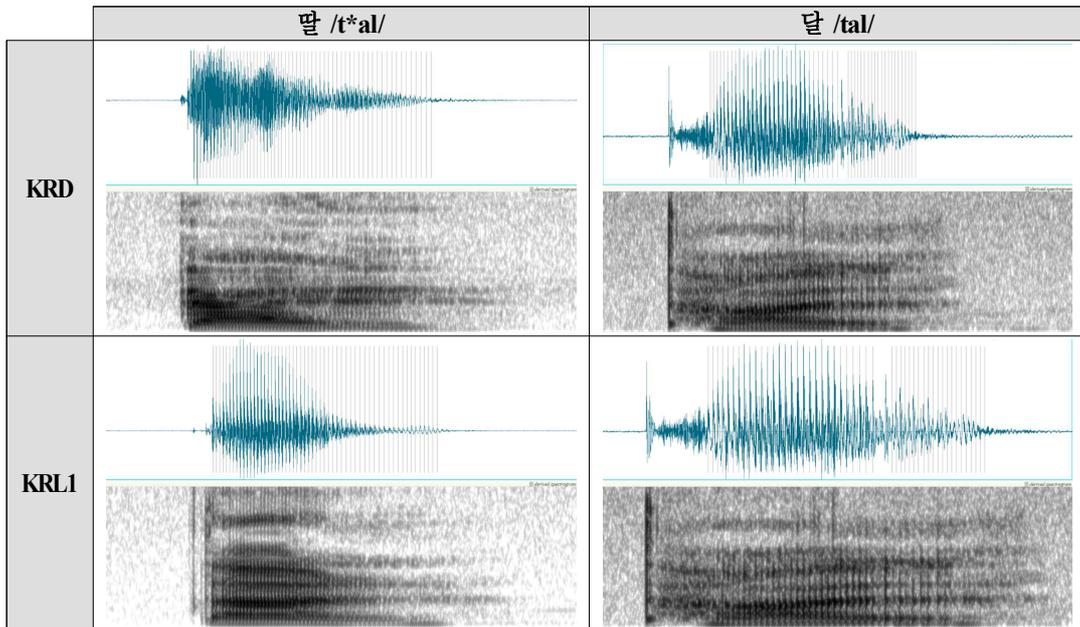
[표 6]의 RUD 표본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러시아어의 경우 양순 파열음이 유-무성의 대립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RUD의 /bil/ 표본에서는 유성 파열음의 폐쇄구간에서 나타나는 유성성이 스펙트로그램 상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 러시아어의 유성 폐쇄음은 -VOT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RUD의 /pil/ 표본에서는 폐쇄구간에서의 유성성이 부재한다.

반면, [표 6]에 제시된 KRL1의 실험 음성 표본에서는 유성 파열음이 어두에 오는 단어 /bil/의 폐쇄구간에서 나타나야 할 유성성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는 KRL1이 제1언어인 한국어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 러시아어의 유성 양순 파열음이 -VOT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어의 무성 양순 파열음 중 평음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4.2.2. 러시아어: 치 파열음, 한국어: 치경 파열음



[표 8] 러시아어 치 파열음 실험 단어의 Praat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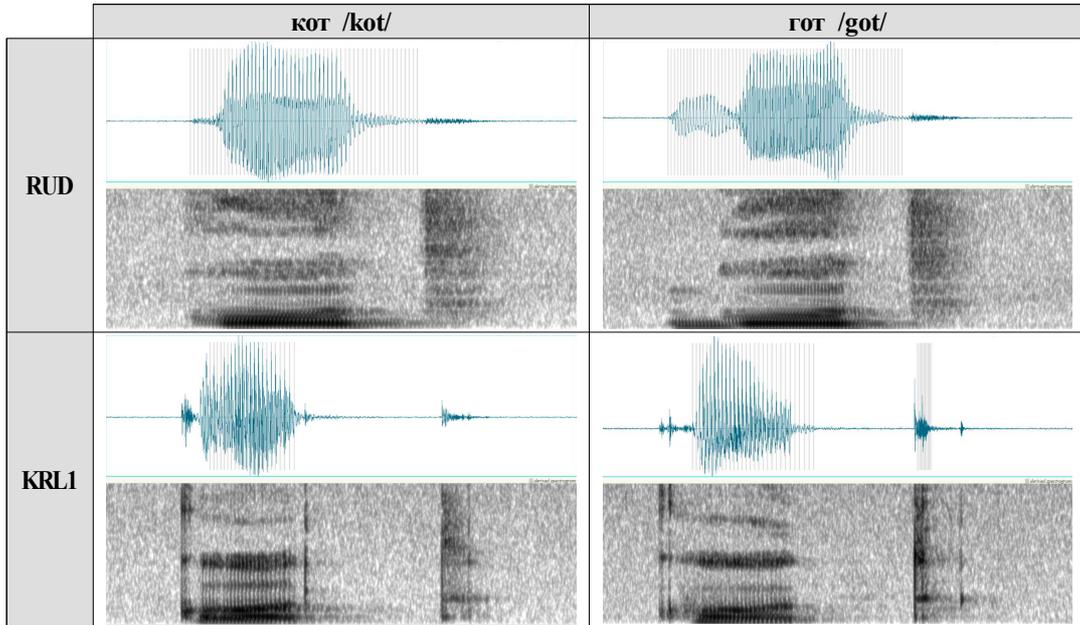


[표 9] 한국어 치경 파열음 실험 단어의 Praat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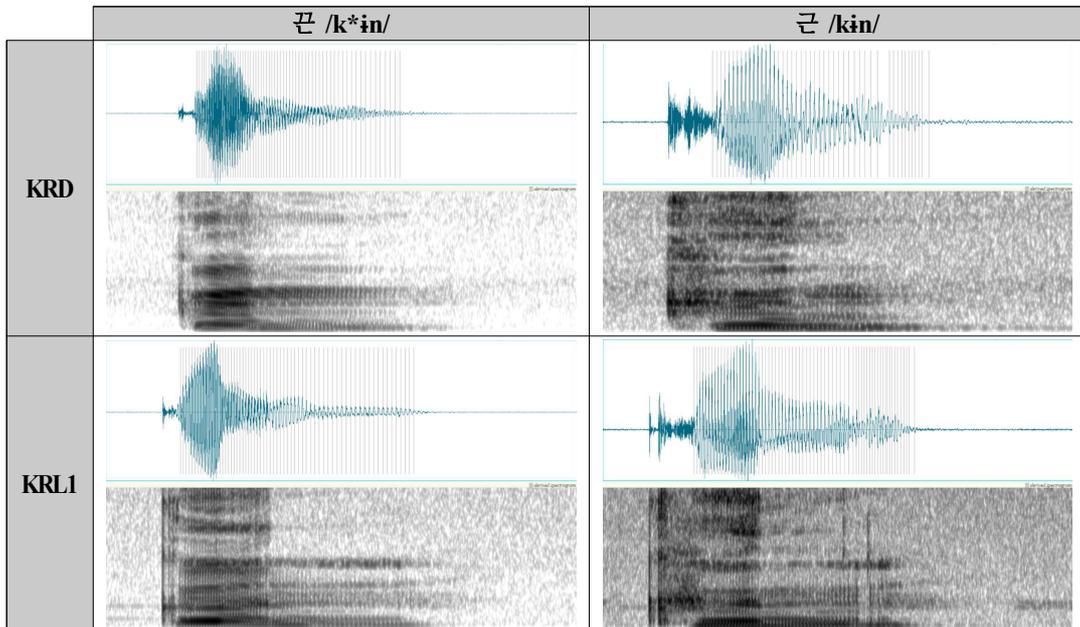
[표 8]의 표본을 통해 러시아어 치 파열음이 유-무성의 대립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RUD의 /tam/ 음성에서는 폐쇄구간에서의 유성성이 부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RUD의 /dam/ 음성에서는 유성 파열음의 폐쇄구간에서 나타나는 유성성이 스펙트로그램상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에, 이를 통해 러시아어의 유성 폐쇄음은 -VOT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표 8]에서 KRL1의 실험 음성 표본에서는 유성 파열음의 폐쇄구간에서 유성성이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는 KRL1이 제1언어인 한국어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 러시아어의 유성 치 파열음을 한국어의 무성 치경 파열음 중 평음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4.2.3. 러시아어: 연구개 파열음, 한국어: 연구개 파열음



[표 10] 러시아어 연구개 파열음 실험 단어의 Praat 분석 결과



[표 11] 한국어 연구개 파열음 실험 단어의 Praat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표 10]의 표본으로 러시아어 연구개 파열음에 유-무성 대립이 존재함을 검증할 수 있다. RUD의 /got/에서는 유성 파열음의 폐쇄구간에서 나타나는 유성성이 스펙트로그램상에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러시아어의 유성 폐쇄음은 -VOT 값을 가진다. 대조적으로, RUD의 /kot/에서는 폐쇄구간에서의 유성성이 부재한다.

반면, [표 10]에 제시된 KRL1의 실험 음성 표본에서는 유성 파열음의 폐쇄구간에서 유성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제1언어인 한국어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 KRL1이 러시아어의 유성 연구개 파열음을 한국어의 무성 연구개 파열음 중 평음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 러시아어 초급 학습자의 발음 특성과 그 원인을 탐구하였다. 러시아어 원어인 음성의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통해 러시아어의 파열음이 유·무성의 대립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성 파열음의 경우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뚜렷한 유성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어의 유성 폐쇄음이 -VOT 값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피실험자의 실험 음성 표본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어의 조음 방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발음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러시아어와 상이한 한국어의 음성·음운론적 특성과 그에 따른 발음 습관이 러시아어 발음 학습에 영향을 미침을 방증한다. 학습자의 제1언어인 한국어가 간섭 현상을 보이는 것이 초급 학습자의 러시아어 발음 습득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러시아어 학습자들에게 러시아어 발음 교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지적한다. 또한, 교육자들은 이러한 제1언어의 간섭 현상을 고려하여 러시아어 발음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학습 전략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파일럿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본 실험까지도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물은 한국인 원어인 화자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어 교육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중 일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욱 상세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유사한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로 러시아어의 어말파열음, 러시아어 치음과 한국어의 치경음의 차이점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어 원어인 화자가 영어를 제1외국어로 학습하는 국내의 현실을 반영해, 영어 유성 파열음의 +VOT와 러시아어 유성 파열음의 -VOT 값을 비교하여 이를 러시아어 학습에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은 러시아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 간의 발음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의 발음 학습 전략과 교육 방법론의 개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빅토리아(2004),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정(2021), 러시아어권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군혁(2006), 러시아어 파열음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15.
- 신지영(2016), 한국어의 말소리 (개정판). 박이정.
- _____ (2023), 말소리의 이해 (개정판). 한국문화사.
- 윤아름(2013),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t/ 발음 오류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준욱(2020), 영어와 한국어 어두파열음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 정버들(2019), 러시아인 학습자의 한국어 파찰음 습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조현관(2023), 영어 자음·모음 강의노트. 궁미디어.
- 최영미(2018), 러시아어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음성적 특성. 한말연구. 49(0). 289-324.
- 필라델퍼브 폰스판친(2007), 한국어 자음과 러시아어 자음의 발음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 Baart J.L.(2010), A field manual of acoustic phonetics. 한국문화사. 조현관 옮김.
- Jesina Z.I, Kalinina V.S, 추석훈 & 김민수(2012), 한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음성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부 록

자료 1. 실험에 사용된 한국어 단어 슬라이드

1 학생	2 낙타	3 책
4 악기	5 갈매기	6 층
7 창문	8 가족	9 표
10 딸	11 양파	12 굴
13 끈	14 숫자	15 기념품
16 콩	17 맥주	18 형

언어

19

뿔

20

벚꽃

21

마당

22

정원

23

근

24

문어

25

서울

26

밥

27

불

28

달

29

바닥

30

자료 2. 실험에 사용된 러시아어 단어 슬라이드

этаж	жук	сом
1	2	3
окно	вишня	студент
4	5	6
сок	билет	чайка
7	8	9
бил	пиво	дом
10	11	12
гот	нуль	дым
13	14	15
торт	кит	язык
16	17	18

пол

19

дам

20

Москва

21

забор

22

сад

23

КОТ

24

лев

25

мяч

26

кукла

27

там

28

пил

29

мак

30

<Abstract>

**Study on the Interference Phenomena in Russian Stop Sound Acquisition by Korean Learners
– Focusing on Voice Samples of Beginner Level Students**

Im, Hyemin

This study delves into the phonetic characteristics of stop sounds in both Korean and Russian using the Praat program for detailed acoustic analysis. Given the distinct linguistic backgrounds of the two languages, the differences in pronunciation, especially in stop sounds, are evident. The research begins by introducing the fundamental features of stop sounds in both languages, followed b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previous studies. A pilot 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nunciation characteristics of a native Korean learner at the beginner level of Russian, providing tangible insights into the differences and causes in the pronunciation of stop sounds between Korean and Russian. The use of the Praat program allowed for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se phonetic differences.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stop sound pronunciation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to offer valuable guidelines and directions for Russian language instruction and research.

<Keywords>

Stop Sounds, Korean-Russian Phonetics, Acoustic Analysis, Language Interference, Beginner Learner Pronunciation

<주제어>

폐쇄음, 한-러 음성학, 음성 분석, 언어 간섭, 초급 학습자 발음

(mia.hyemin@gmail.com)

러시아어 문장의 고립성분 연구: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를 중심으로

Анализ обособленных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фокусе адъективного обособленн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이 예 린
(석사2학기)

<목차>

1. 서론: 연구의 목적
2. 고립 성분에 대한 선행연구
3.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의 기능
 - 3.1. 부연설명 기능
 - 3.2. 반서술적 기능
4. 결론

1. 서론: 연구의 목적

문장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성분은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통합체(синтагма)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서 문장 성분은 구두점과 어조를 통해 주변 성분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언어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문장은 선형적 연결성을 갖는데, 그 연결을 단절시키는 고립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립이란 문장의 확장 성분, 곧 주어와 술어 이외의 성분을 어조를 통해 분리하는 것인데, 이때 고립된 문장 성분(이하 고립 성분)은 둘 이상의 주변 문장 성분들과 문법적 의존관계와 의미적 연결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컨대, 문장 “Он шел, размахивая руками(그는 팔을 흔들며 걸어갔다).”에서 고립성분인 부동사구 ‘размахивая руками(팔을 흔들며)’는 동사가 명명하는 행위를 양태의 측면에서 수식하며, 동시에 부동사의 행위자는 주어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주어의 부차적인 행위를 명명한다. 따라서 고립된 문장 성분의 연결은 1980년 러시아어 아카데미 문법서(РГ-80)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방향적이다(разнонаправленные).²³⁾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고립되는가에 대해서는, 문장 주성분(주어, 술어)의 확장자(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 곧 한정어와 상황어, 그리고 보어가 고립될 수 있으며 나아가 문장 확장자, 곧 테테르미난트의 확장자도 고립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어형일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구(оборот)’라고 하는 고립된 어결합일 수도 있다. АГ-70과 РГ-80는 고립어구를 품사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고립어구는 부동사구(деепричастный), 형동사구(причастный), 명사구(субстантивный), 형용사구(адъективный), 정동사구(спрягаемо-глагольный), 부동사구(инфинитивный), 부사구(наречный)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адъективное обособленное определение)를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예를 들어, 문장 “Любимая форма речи была у него именно рассказ, просторный, свободный, богатый людьми, приключениями(그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말은 바로 이야기였다, 드넓고 자유로운, 사람과 모험으로 가득한).”에서 형용사 ‘просторный(드넓은)’, ‘свободный(자유로운)’, 형용사구 ‘богатый людьми, приключениями(사람과 모험으로 가득한)’가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에 해당한다.

23)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1980), с. 180.

다.24)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고립어에 대한 최초의 연구를 했던 페쉬콥스키의 용어를 빌자면 고립 형용사(обособлен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에 해당한다.25) 또한 아키모바 외(Акимова et al., 2009: 157)는 페쉬콥스키의 연구를 다룬 챗터에서 고립 형용사가 고립 일치 한정어(обособленное согласованное определение)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PГ-80과 페쉬콥스키의 연구를 고려하여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는 형용사형 고립어가 고립되기 이전에 수행했던 문장 성분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립 한정어 가운데 일치 한정어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형용사형 한정어가 고립되는 조건과 그것이 고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립 성분은 일반적으로 반서술적 기능과 부연기능을 수행한다. 술어는 시제의 표시를 통해 서술성을 표현하고, 따라서 고립성분 가운데 시제성을 갖는 행동사구나 부동사구가 주로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PГ-80에 따르면, 형용사형 한정어도 부연기능 뿐 아니라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는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가 부연기능과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연구를 검증하고, 나아가 문장 구조와 성분 이론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학습자에게 특히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문이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러시아어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고립 성분에 대한 선행연구

러시아 통사론의 역사에서 고립성분은 오랜 기간 동안 축약된 종속문으로 간주되어 왔다(그레치(Греч), 보스토코프(Востоков), 부슬라예프(Буслаев) 등의 연구).27) 이후 형식적 문법학과인 페쉬콥스키는 최초로 고립성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페쉬콥스키는 고립성분을 자신의 저서 “러시아어 통사론의 학문적 조명(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의 제22장 “고립 부차 성분(обособленные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члены)”에서 다루었다. 해당 장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어조에 주목하였다: 1) 복문 내에서 문장(절)의 수만큼 어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2)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중간에 위치할 경우, 문장이 삽입되는 시작점에 추가적인 어조 변화가 있다.28) 페쉬콥스키가 제시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
- (1) Когда я пришел *к нему*, его не было дома.
내가 그에게 갔을 때, 그는 집에 없었다.
- (1') Когда я пришел *к нему*,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его нет дома.
내가 그에게 갔을 때, 그가 집에 없다고 말했다.

24) 본고에서는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가 포함된 예문을 제시하기 위해 참고문헌 외에도 ‘러시아 국립 코퍼스(Russian National Corpus)’를 활용하여 예문을 수집했다는 점을 밝힌다. 검색 조건의 경우, 고립 성분 및 지배어의 위치, 고립 성분의 품사(즉 형용사), 구두점의 위치 등을 뒤에서 제시되는 각 고립 조건에 맞게 설정하였다.

25) Пешковский А. М.(1956), с. 425.

26) PГ-80에서는 부동사구(деепричастные обороты), 행동사구(причастные обороты), 명사 고립어구(субстантивные обороты)에 이어 형용사 고립어구(адъективные обороты)를 반서술적 고립어구(полупредикативные обороты)에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27) Акимова et al.(2009), с. 154

28) Пешковский А. М.(1956), с. 414.

여기에서 말하는 어조의 변화란, 어조의 상승과 하락을 말한다. 예문(1), (1')에서는 페쉬콥스키가 나타난 것과 같이 어조의 흐름이 선으로 나타나 있으며, 최고점에 있는 어조는 굵게 표시되어 있다.²⁹⁾ (1)과 (1') 모두 페쉬콥스키가 정의한 어조 상승에 부합하는 복문 예문이다. (1)의 경우, 첫 번째 절('Когда я пришел к нему')이 끝나는 구간에서 어조가 상승했다가 두 번째 절('его не было дома')이 시작되면서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두 번의 어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문 (1')는 3개의 절로 이루어진 복문이며, 'мне сказали'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어조는 'Когда я пришел к нему'에서 한번 상승하고, 'мне сказали'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며, 'что его нет дома'에서 점차 하락한다. 따라서 총 세 번의 어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페쉬콥스키는 '복합적 단위에서의 어조 변화는 문법적 분할(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дробление), 즉 문장의 경계와 관련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특성이 대상의 외적 표현으로 기능하는 어휘 단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³⁰⁾ 예를 들어 예문 (2)에서 화자는 'вы(당신)'로 나타난 청자에게 친절함이라는 특성을 부여한다:

(2) Я удивляюсь, что вы, с вашей добротой, не чувствуете этого.

저는 놀랍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친절함으로도, 이것을 느끼지 못하다니요.

위의 문장에서 'вы, с вашей добротой(당신이, 당신의 친절함으로도)'는 'вы, такой добрый', 혹은 'вы, который так добры'로 대체될 수 있으며,³¹⁾ 한국어로는 '그렇게 친절한 당신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는 어조 변화를 통해 강조되는데, 'Я удивляюсь'에서 상승, 'что вы'에서 상승, 'с вашей добротой'에서 상승하여 총 세 번 상승하고, 'не чувствуете этого'에서 하락한다. 그리고 페쉬콥스키는 이러한 부차적 성분이 특수한 어결합 형태(особая форма словосочетания)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였다.³²⁾ 또한 고립된 부차적 성분이란, 멜로디, 리듬과 동화된, 동시에 주변 성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하위 문장(절)과 동화된 (단독으로 혹은 종속 성분과 함께하는) 부차적 성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즉, 문장의 어조적 흐름과 본래의 문장 성분을 따라가지만, 특수한 이유(강조, 어순 변화, 추가 정보 제공 등)로 인해 문장 성분이 고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페쉬콥스키는 형식적 문법학과로서 고립 성분의 형식적인 특성인 어조, 휴지부, 강세의 수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부차적 성분이 고립되는 다양한 조건을 기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고립된 형용사, 즉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다음 여섯 가지의 조건에서 고립된다.³³⁾

1) 명사에 후행하며, 다른 부차적 성분을 가지는 형용사는 반드시 고립된다.

러시아어는 '자유 어순(свободный порядок слов)'을 가진 언어로 간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어순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어순(прямой порядок слов)'과 '역순 어순(обратный порядок слов)'을 구분한다. 먼저 한정어는 일반적으로 피한정어에 선행한다(예: 'просторная аудитория(넓은 강의실)'). 장소와 시간의 상황어는 술어에 후행하며(예: 'вернулся из библиотеки(도서관에서 돌아왔다)'), 행위 양태의 상황어(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образа действия)는 술어에 선행한다(예: 'громко разговаривает(크게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보어는 술어에 후행한다(예: 'прочитал книгу(책을 읽었다)'). 그러나 문장 성분이 전형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자리잡을 때, 해당 문장 성분은 고립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 (3)을 살펴보면 형용사 'безопасные(안전한)'는 지배어인 명사 'губернии(지방)'에 후행하면서 전형적인 어순을 위반하는데, 지배어와의 사이에 부차적 성분 'еще(여전히)'를 둬으로써 지배어로부터 분리된 위치에 있다.

29) 예문 (1)은 Пешковский А. М.(1956), p. 413을, 예문 (2)는 같은 글의 p. 414를 참조하였다.

30) 위의 글, p. 416

31) 위의 글, p. 415

32) 위의 글, p. 415

33) 고립 조건과 예문은 아키모바 외(Акимова et al., 2009)을 참조하였다.

- (3) Большая часть дворян бежала в губернии, *еще безопасные* (А. Пушкин).
대부분의 귀족은 여전히 안전한 지방으로 도망쳤다.

2) 선행하는 형용사를 가지는 명사에 둘 이상의 후행하는 형용사가 있는 경우, 후행하는 형용사는 반드시 고립된다.

해당 고립 조건은 고립되는 성분의 크기(объем обособляемой группы)와 관련이 있다. 고립되는 성분의 크기란, 고립되는 문장 성분의 확장성 정도(степен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сти)를 말한다. 아래의 예문(4)에서 명사 'строение(구조)'는 지배어로서 선행하는 형용사 'неуклюжее(투박한)'와 후행하는 두 개의 형용사 'просторное(넓은)'와 'пространное(광활한)'를 종속어로 가진다. 해당 문장을 발화할 경우 어조의 변화 또한 일어난다. 후행하는 두 개의 형용사, 즉 한정어는 동종 성분(однородные члены)이므로, 원래는 이를 휴지 없이 한 번에 발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해당 문장에는 이미 선행하는 형용사까지 있어 문장 전체를 단 하나의 휴지도 없이 발화하는 것은 길고 버거울 수 있다.

- (4) Это было *неуклюжее строение, просторное и пространное* (И. Тургенев).
그것은 넓고 광활한, 투박한 구조였다.

페쉬콥스키는 고립이 발화(речь)의 생리학적 측면(физиологическая сторон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화가 길어질수록 어떠한 성분을 독립적인 리듬의 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그것을 다른 성분과는 병합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³⁴⁾ 즉 문장이 길어질 경우, 인간의 호흡을 위해 특정 지점에서 문장을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발화의 심리학적 측면 또한 두드러진다. 특정 어구가 길고 무거울수록 통사적으로 복잡해지고, 하나의 단일한 총체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종합적인 맥락에서 확장이 많이 될수록 고립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3) 동사와 함께 복합 명사류 술어를 구성하는 형용사는 필요한 경우 고립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 (5)는 아키모바 외(Акимова et al., 2009)에서 예시로 제시된 레르мон토프의 시 «테레크의 선물(Дары Терека)»의 한 구절이다:

- (5) И старик во блеске власти / Встал, *могучий, как гроза,* / И оделись влагой страсти
/ Темно-синие глаза (М. Лермонтов).
그리고 권력의 광채 속 노인은 / 일어났다, 힘찬 (그는), 마치 뇌우처럼, / 그리고 열정의 습기를 입었다 / 그의 짙은 푸른색의 눈은.

복문의 첫 번째 절의 형용사 'могучий(힘찬)'는 어조와 문장부호의 측면에서 고립된다. 이러한 고립은 의도적이고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조와 문장부호가 없었다면 형용사는 동사 'встал(일어났다)'과 결합하여 복합 명사류 술어(составное именное сказуемое) 'встал могучий'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고립은 저자가 문장에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 4) 명사에 선행하는 형용사는 명사뿐 아니라 문장 전체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될 시 고립된다.

해당 고립 조건이 성립하는 문장에서 명사에 선행하는 형용사, 혹은 형용사구는 대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경우 명사, 즉 지배어에 선행하는 형용사는 문장 전체에 특정한 의미관계를 더함으

34) Пешковский А. М.(1956), с. 422

로써 문장을 확장하는 데테르미난트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문 (6)에서 주어인 두브롭스키는 '침묵했고, 자신만의 생각에 빠졌다'는데, 이는 '늙은 마부의 충성심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명사 'Дубровский'에 선행하는 형용사구³⁵⁾ 'Тронутый преданностью старого кучера'의 고립을 통해 강조된다.

(6) *Тронутый преданностью старого кучера*, Дубровский замолчал и предался своим размышлениям (А. Пушкин).

늙은 마부의 충성심에 감동한 두브롭스키는 침묵했고, 자신만의 생각에 빠졌다.

5) 명사에 선행하지만 직접 선행하지 않는 형용사는 고립된다.

전형적인 어순에서 형용사는 피한정어인 명사에 직접 선행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어휘가 삽입될 경우 형용사는 고립될 수 있다. 예문 (7)에서는 형용사 'скупой(인색한)', 'редкий(드문)'와 피한정어이자 지배어인 명사 'дождь(비)' 사이에 동사 'пошел(내렸다)'이 위치하며 형용사와 명사는 서로 분리된다.

(7) А через минуту, *скупой и редкий*, пошел дождь (М. Шолохов).

그리고 1분 후, 인색하고 드문 비가 내렸다.

6) 인칭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대개 고립된다.

인칭대명사는 원래 한정성이 가장 높은 어휘 중 하나이므로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통해 수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용사가 인칭대명사를 수식할 경우 대개 고립된다는 것은 인칭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함을 암시한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인칭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표현하는 독특한 의미와 관련된다. 인칭대명사는 대상을 가리키지만, 명명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통해 대상의 추가적인 특성을 언급하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의도하는 바를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 (8)에서는 형용사 'мятежный(불온한)'이 인칭대명사 'он(그)'를 수식하는데, 해당 형용사를 고립시켜 강조함으로써 '그'가 어떠한 상태로 '폭풍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표현하며, 이는 일종의 인과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비교: "그는 불온한 자였으므로 폭풍을 요구한다").

(8) А он, *мятежный*, просит бури... (М. Лермонтов).

그리고 그는, 불온한 (그는), 폭풍을 요구한다.

정리하면, 형용사는 전형적인 어순이 위반되는 경우 또는 명사구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 경우 어조나 구두점을 통해 분리될 수 있다. 이외에 형용사는 문두에 위치하여 문장 전체에 특수한 의미관계를 더하거나, 동사와 복합 술어를 형성하거나, 인칭대명사를 수식할 경우 의도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처럼 페쉬콥스키는 문장 성분이 고립되는 조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고립성분에 대한 형식적인 측면에 주로 집중되었고 문장 성분이 주변 성분들과 선행적인 결합관계로부터 분리되는 이유, 곧 이러한 고립성분이 수행하는 특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립성분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PG-80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고립 성분은 기능에 따라 반서술적 고립어구(полупредикативные обороты)와 설명 고립어구(поясняющие обороты)로 나뉜다.³⁶⁾ 먼저 반서술적 고립어구는 주성분을 확장하는 기능 외에 추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적인

35) 품사의 측면에서 'тронутый'는 형동사이다. 그렇지만 페쉬콥스키는 형용사와 형동사를 세분화하지 않고 모두 형용사로 보았다. 따라서 해당 예문을 설명할 때도 '형용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밝힌다.

36) PG-80에서는 "문장 확장 성분의 고립(обособл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хся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챕터의 하위 챕터로 반서술적 고립어구(§ 2104-2117, pp. 181-186)와 설명 고립어구(§ 2118-2124, pp. 186-188)가 기술되고 있다.

독립성과 큰 정보적 용량을 갖는다. 반서술적 기능은 문법적 시간 의미, 곧 시제를 포함하는 형용사구나 형동사구에서 주로 나타나며, 복합 술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형동사구와 부동사구의 시제는 주절에 있는 술어의 시제와 연동하므로 절대적인 시제가 아닌 상대적 시제이다. 예문 (9)를 살펴보면, 부동사 ‘*колыхаясь*(흔들리며)’와 부동사구 ‘*взрывая песок*(모래를 헤치며)’는 모두 술어 ‘*шел*(걸었다)’과 동시에 일어났고, 술어의 시제인 과거시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사류 반서술적 고립어구(именные полупредикативные обороты)의 시간 의미는 그것이 확장하는 문장의 시간적 의미와 일치한다. 예문 (10)에서는 명명 반서술적 고립어구 ‘*Мирные люди*(평화로운 사람들)’가 이어지는 문장 전체의 시간적 의미(‘전장의 위험을 힘겹게 견디고 있’던 과거의 사건)와 일치한다. 명사류 반서술적 고립어의 시간 의미는 부동사 ‘*будучи*’를 추가하면 더욱 명료히 확인할 수 있다. ‘*Будучи*’와 같은 불완료상 동사로부터 파생된 부동사는 주절의 시제와 ‘동시동작’을 명명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9) И шел, *колыхаясь*, как в море челнок, / Верблюды за верблюдом, *взрывая песок* (Лерм.).
그리고 그는 바다의 배처럼 흔들리며 걸었다, / 낙타 뒤 낙타처럼, 모래를 헤치며.
- (10) *Мирные люди*, они тяжело переносили опасности фронта (Панова).
평화로운 사람들, 그들은 전장의 위험을 힘겹게 견디고 있었다.
- (10') Будучи мирными людьми, они тяжело переносили опасности фронта.

반서술적 고립어구와 달리 설명 고립어구는 형태적으로 그것을 고립시키는 성분에 의존되어 있으며, 부연설명 및 구체화하는 특성을 가진다.³⁷⁾ 이는 아래의 예문 (11)에서와 같이 나타나는데, 설명 고립어구인 ‘*даже в молодые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ды*(심지어는 젊은 학생 시절에도)’는 상황어 ‘*никогда*(결코)’에 의존되어 있고, 이 ‘*никогда*(결코)’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 (11) Он никогда, *даже в молодые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ды*, не производил впечатления здорового (Чех.).
그는 결코, 심지어는 젊은 학생 시절에도 건강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РГ-80의 설명은 반서술적 고립어구와 설명 고립어구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예문 (10)은 РГ-80에서 명명 반서술적 고립어구의 예문으로 제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며 설명 고립어구와의 명확한 차이 또한 기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2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형용사형 한정어가 고립되는 조건과 그것이 고립되면서 수행하는 독특한 기능을 살펴보았다. 페쉬콕스키가 형용사형 한정어가 고립되는 조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한 반면, 이것이 고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특히 형용사가 시제 의미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된 바 없다. 또한 반서술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부연설명 기능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도 명료히 언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음 3장에서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의 기능에 대해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특히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가 어떤 맥락에서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3.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의 기능

본 연구는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가 수행하는 부연설명 기능과 반서술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반서술적 기능이란, 형용사가 술어가 명명하는 주어의 서술적 특성(предикативный признак)

37) РГ-80(p. 181)에 따르면, 술어가 동사인 경우에서 상황어적 의미를 가진 설명 고립어구는 예외에 해당한다.

외에 추가적인 특성을 명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통사론에서 서술성(предикативность)은 시제, 인칭, 양상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시제가 가장 핵심적이다. 시제는 현실 세계와 언어적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어는 반드시 문법적 시제 의미를 갖는다.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가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주어의 수식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시제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 부연설명 기능은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가 주어의 아닌 기타 문장 성분을 확장하는 경우로, 그것이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전달하는 내용을 부연설명한다.

3.1. 반서술적 기능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있는 형용사 고립어구는 설명의 기능을 갖지만 특정 고립 문맥에서는 반서술성을 갖는다. 우선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문법적으로 술어를 확장하는 경우, 곧 동사 술어와 함께 복합 술어를 형성하는 형용사가 고립되는 경우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고립어구는 주어(субъект)의 질적 특성을 포함한다.

(12) Три ступеньки крыльца вели в двухэтажный дом. Хороший был дом, *деревянный* (А. Н. Толст.).

세 개의 현관 계단은 2층 집으로 이어졌다. 집은 나무로 된, 좋은 집이었다.

(13) Какие все же удивительные у него глаза: не то доверчивые сверх меры, *не то мудрые* (Шукш.).

그는 얼마나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는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현명한 것 같기도 하다.

예문 (12)에서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 ‘деревянный(나무로 된)’는 원래 계사동사 ‘был’과 연결되어 복합 술어를 형성한다(비교: "Дом был хороший, деревянный."). 그러나 전형적인 어순이 위반되고 형용사와 동사 사이에 주어의 위치가 위치하며 형용사는 동사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다. 이 경우 형용사 한정어는 반드시 고립된다. 그러나 비록 동사로부터 분리되었을지라도 형용사는 여전히 동사와 함께 연결되어 복합 술어를 형성하며 계사동사로부터 문법적 시제를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비교: "Хороший был дом, (дом был) деревянный."). 예문 (13)에는 명시적인 계사가 없는데, 러시아어에서 계사는 현재시제에서 제로형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13)의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12)과 마찬가지로 생략된 계사로부터 현재시제를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비교: "Какие все же Ø удивительные у него глаза: (глаза Ø) не то доверчивые сверх меры, не то мудрые.").

특히 형용사 단형 고립 한정어는 반드시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형용사 단형은 한정어의 전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항상 술어의 위치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용사 단형 고립어구는 주어에 선행할 수도, 후행할 수도 있다. 또한 형용사 단형의 반서술적 사용은 시적 발화에 특징적이다(예문 (14), (15)).³⁸⁾

(14) Мир прежний сякнет, *слаб и тленен*. / Мир новый - общий океан, / Растет из бурь октябрьских: Ленин / На рубеже как великан (Брюс.).

지난 세상은 약하고 희미해지며 사라질 것이다. / 새로운 세상은 공동의 바다이며, / 10월의 폭풍으로부터 성장한다: 레닌은 / 거인처럼 경계에 있다.

38) 피동 행동사 단형 또한 이러한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앞선 형용사 단형과 마찬가지로 피동 행동사 단형의 문장 성분도 술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반서술적 확장자의 기능을 수행한다(예: "С дивана, / Сдвинут воды задеванием, / В окно проплыл чемодан (Маяк.)(소파에서, / 물이 접촉을 통해 움직였으며, / 창문에는 여행 가방이 떠나갔다).").

(15) *Колеблется воздух*, / Прозрачен и чист (Забол.).

공기가 흔들린다. / 맑고 깨끗하다.

반면, 산문에서 형용사 단형 고립 한정어는 드물게 나타난다(예문 (16)).

(16) *Худощав, легок на ногу*, он рано появляется в цехе (газ).

마르고 발이 가벼운 그는 가게에 일찍 나타난다.

이러한 반서술적 기능은 주어를 한정하는 형용사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페쉬콥스키가 언급한 형용사가 고립되는 조건 가운데 3)에 해당하는 “동사와 함께 술어를 구성할 수 있는 형용사는 필요한 경우 고립될 수 있다”에 해당한다. 특히 이 조건에서 “필요한 경우” 고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페쉬콥스키의 표현으로 ‘동사와 접합하고 싶지 않다면(не хотят сливать с глаголом)’ 의도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³⁹⁾ 이는 고립하는 성분의 의미적인 특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 (17)~(19)에서 동사(‘бежит’, ‘был’, ‘сидит’)는 형용사와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동사와 첫 번째 형용사 사이의 콤마를 제외할 경우에도 문장은 어색해지지 않는데, 복합 명사류 술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⁴⁰⁾ 이는 의도적인 고립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7) По степи осенью ехал, он *бежит, замухоренный, страшный*. (Б. Екимов)

가을에 초원을 지나갔는데, 그는 달리고 있는 것이다, 초라하고 무섭게.

(18) То есть хлеб *был, свежий, мягкий*, но, надо ж быть точным, *не теплый*. (А. Слаповский)

즉 빵은 신선하고 부드러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따뜻하지는 않았다.

(19) Клавдия просто *сидит, прямая, чуткая*, раскинув в стороны голые смуглые руки.

(И. Грекова)

클라우디아는 앉아있다, 곧고 예민하게, 거무스름한 맨 팔을 양옆으로 뻗은 채로.

또한 주어-대명사에 통사적으로 의존하는 형용사 고립 한정어도 그것이 명명하는 주어의 부가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이는 페쉬콥스키가 언급한 형용사가 고립되는 조건 6) “인칭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대개 고립된다”에 해당한다.

(20) *Малообщительный по натуре*, он после смерти жены стал еще замкнутее и нелюдимее

(Грин).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던 그는 아내의 사망 이후로 더욱 내성적이게 되었고, 사람들과 더 거리를 두게 되었다.

(21) Уже прошли последние тачанки обоза, а мы все стояли, *пасмурные и тихие* (Б. Горбатов).

마지막 수레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우울하고 조용히 서있었다.

39) Пешковский А. М.(1956), с. 426

40) 조남신, 박수빈(2017: 387-395)에 따르면, 명사류 술어(именное сказуемое)는 복합 술어(составное сказуемое)와 혼합 술어(сложное сказуемое)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혼합 술어는 "동사적 복합 술어와 명사류 복합 술어의 변이형"으로, 동사 미정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복합 술어의 개념을 살펴보자. 예문 (17)에서 사용된 예문 (18)은 복합 명사류 술어에서 추상적 연결 동사 'быть'가 사용된 사례이다. 예문 (17)과 (19)에서의 동사 'бежит'와 'сидит'와 형용사 조합은 “복합 술어의 특수한 경우로”, 동사의 인칭형이 보조부, 형용사가 명사류부에 해당하는 복합 명사류 술어이다. 따라서 예문 (17)~(19)에서 사용된 세 동사 모두 콤마가 제외될 경우 형용사와 함께 복합 명사류 술어를 형성한다.

РГ-80은 예문 (20), (21)의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가 부연설명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 앞에 'будучи'라는 부동사가 생략되며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부동사 'будучи'는 주절이 본동사와 동일한 시제 의미를 갖는다. 즉 예문 (20), (21)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 (20') Будучи малообщительный по натуре, он после смерти жены стал еще замкнутее и нелюдимее.
- (20") Он был малообщительный по натуре, и после смерти жены
- (21') Уже прошли последние тачанки обоза, а мы все стояли, будучи пасмурные и тихие.
- (21"), а мы все стояли и были пасмурные и тихие.

이러한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원래의 위치에서 고립됨으로써 상황어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22) Чапаев, такой **чуткий и гибкий во всех своих действиях**, так быстро все улавливавший и ко всему применявшийся, понял здесь, в степях, что с казаками бороться надо уже не тем оружием, каким боролись недавно с мобилизованными насильно колчаковскими мужичками (Фурм.).
모든 행동에서 그렇게 민첩하고 유연하며,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적응한 차파예프는, 이 초원에서 코사크들과 싸우는 것은 최근 강제 동원된 콜차크 농민과 싸웠던 것과 같은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 (23) Персонал, **довольно многолюдный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все же производил впечатление чиновников с малым интересом и пониманием хранимых ими сокровищ (И. Крачковский).
꽤 많은 능력 있는 직원들은 여전히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데 관심과 이해가 적은 공무원처럼 느껴졌다.

(22)과 (23)에서 형용사구 'такой чуткий и гибкий во всех своих действиях(모든 행동에서 그렇게 민첩하고 유연한)'와 'довольно многолюдный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꽤 많은 능력 있는)'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주어로부터 구두점을 통해 분리되면서 주어의 한정어 기능 외에 술어와 추가적인 의미관계를 맺는다. 곧 이들 고립 한정어는 행위의 양태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상황어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이밖에 한정어는 고립되면서 양보적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 다음 예문 (24)에서 형용사 'умный, честный, справедливый(똑똑하고 정직하고 공정한)'가 주어로부터 고립되며 '이러한 긍정적인 자질을 가졌음에도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양보적 의미를 가진다. (25)의 경우, 'Бесконечно грешный по мелочам(사소한 부분에서 잘못이 무한히 많은)'가 주어로부터 고립되며 '사소한 부분에서 잘못이 무한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뢰를 받았다'는 양보적 의미를 형성한다.

- (24) Ее поражало: он, **умный, честный, справедливый**, которого все уважали, он любит ее (Н. Ильина).
그녀는 놀랐다. 모두가 존경한, 똑똑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 (25) **Бесконечно грешный по мелочам**, он в больших делах заслуживал доверия (Л. Соловьев).
사소한 부분에서 잘못이 무한히 많은 그는 큰 일에 있어서 신뢰를 받았다.

3.2. 부연설명 기능

본 연구는 형용사형 한정어가 주어를 제외한 기타 문장 성분을 확장하는 위치에서 고립될 경우 부연 설명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특히 명사가 선행하는 형용사 한정어를 갖는 경우 후행하는 형용사구는 반드시 고립된다.⁴¹⁾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구의 길이가 길어지면 발화자는 어조를 통해 명사구를 분리하여 발음의 편의를 도모한다.

- (26) Она читала *собственные стихи*, на мой взгляд *прекрасные* (Триф.).
그녀는 내 눈에 아름다웠던 자신만의 시를 읽었다.
- (27) К ночи я долго слышу какие-то глухие удары, *похожие на пушечную пальбу* (Блок).
밤에 가까워지면 나는 대포 발사와 비슷한 어떤 둔탁한 소리를 오랫동안 듣는다.
- (28) В минуты раздумья и тишины в душе его снова подымалась знакомая волнующая мечта о море, *просторном и свободном, о плаваниях, далеких и долгих, о незнакомых берегах, о тихих закатах, торжественных и величественных* (Собол.).
상념과 고요의 순간에 그의 영혼에는 익숙하고 감동적인 꿈이 다시 일어났다, 넓고 자유로운 바다, 길고 넘 향해, 낯선 해안, 조용한 석양, 장엄하고 웅장한 순간들에 대한 (꿈)..

예문 (26), (27), (28)에서 형용사형 고립어가 포함되는 명사구는 매우 길어서 화자가 한 번에 발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26)에서 형용사 'прекрасный(아름다운)'는 피수식어 'стихи(시)'와 'на мой взгляд(내 눈에)'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다. 이때 'на мой взгляд'은 '내 눈에(내 생각에)'라는 의미로 형용사에 양상적 틀을 부여하며 피수식어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27)의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 'похожие на пушечную пальбу(대포 발사와 비슷한)'도 피수식어 'глухие удары(둔탁한 소리)'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예문 (28)의 'мечта(꿈)'는 그것을 수식하는 여러 전치사구와 연결되는데 이들 전치사구는 형용사와 명사를 포함한다. 해당 예문의 'о море, просторном и свободном, о плаваниях, далеких и долгих, о незнакомых берегах, о тихих закатах, торжественных и величественных(넓고 자유로운 바다, 길고 넘 향해, 낯선 해안, 조용한 석양, 장엄하고 웅장한 순간들에 대한)'에서 후행하는 형용사는 구두점을 통해 고립되고 있다. 이처럼 형용사형 한정어는 부차적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에도 고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것이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부연설명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앞서 주어를 확장하는 반서술적 고립 한정어의 경우와 같이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인과관계와 같은 상황어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29) Ивану Карловичу, *усталому, потному, раздражительному*, безумно не хочется ехать в клуб (Н. Ильина).
피곤하고 땀이 나고 짜증이 난 이반 카를로비치는 정말 클럽에 가고 싶지 않다.
- (29') Ивану Карловичу, который устает, потеет, раздражается, безумно не хочется ехать в клуб.

예문 (29)에서 여격 보어 'Ивану Карловичу(이반 카를로비치는)'를 수식하는 형용사 'усталому, потному, раздражительному(피곤하고 땀이 나고 짜증이 난)'는 고립되었다. 우선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는 인칭대명사와 같이 그 자체로 매우 한정성이 높은 어휘인데, 이것을 형용사를 통해 수식하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여

41) 이때 소유대명사적 형용사(притяжательное местоимен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가 선행하는 경우, 후행 형용사는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예: "В твои глаза зеленые / Взглянул я первый раз (Брюс.) (너의 녹색 눈을 / 나는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격 보어 'Ивану Карловичу'에 후행하는 형용사는 고립된 위치에서 여격 보어를 상태를 기술하는 부연 설명의 기능 외에 동사가 명명하는 그의 행동의 원인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29)에서와 같이 관계대명사 'который'를 통해 복문으로 변경할 경우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기능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4. 결론

본 논문은 일반적인 문장의 개념인 신타그마, 즉 하나의 연결체에서 벗어나 구두점과 어조를 통해 문장 성분과 성분 사이에 단절과 고립이 일어나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맥락에서, 무엇을 위해 그러한 단절과 고립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형용사형 한정어가 고립되는 조건과 고립된 위치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았다. PG-80에 따르면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부연설명과 반서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PG-80은 부연설명 기능과 반서술적 기능의 차이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반서술적 기능을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형 한정어가 여러가지 이유로 주어로부터 분리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형 한정어는 고립된 위치에서 술어가 명명하는 주어의 서술적 특성 외에, 술어와의 시제적인 연관성 속에서 주어의 추가적인 서술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연설명 기능은 부차적 성분을 수식하는 형용사형 한정어가 고립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때 형용사형 한정어는 고립된 위치에 피수식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부연설명한다. 두 경우 모두 형용사형 고립 한정어는 문장에 인과관계와 같은 추가적인 의미관계를 부여하며 상황어나 문장확장자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는 PG-80이 언급했던 고립성분의 다방향적 연결과 같은 맥락이다. 즉 한정어는 고립되어 그것이 의존하는 문장 성분으로부터 분리되면 문장의 의미구조를 복잡화하며, 혼합적인 문장 성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고립은 특정 성분을 주변 성분들로부터 고립시켜서 그것이 원래 주변성분들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던 문법적 의존관계와 의미적 관계를 헐겁게 하여 이를 통해 더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참 고 문 헌

조남신, 박수빈(2017), 러시아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Акимова Г.Н., Вяткина С.В., Казаков В.П., & Руднев Д.В.(2009), Синтаксис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Академия».

Пешковский А.М.(1956),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8-е изд.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Шведова Н.Ю. и др.(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II. Синтаксис.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예문 출처: 러시아국립코퍼스(Russian National Corpus). <https://ruscorpora.ru/>

러시아어 동사 현재형의 시제 전이 현상 분류

이 상 아
(박사7학기)

<목차>

1. 서론
2. 러시아어 동사의 시제 전이 현상
 - 2.1. 현재시제의 현재성
 - 2.2. 시제 전이 현상의 특징
3. 불완료상 현재형의 전이 용법
 - 3.1. 과거맥락의 현재형
 - 3.2. 미래맥락의 현재형
4. 결론

1. 서론

언어학 백과사전에서 전이(transposition, транспозиция)란 한 언어 형식이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동일 파라디그마를 구성하는 다른 형태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ЛЭС 1990:519). 즉 언어학에서 전이는 언어적 표현(기호)과 언어 외적 사실(의미) 사이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문법적 형태의 변칙적인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Шел бы ты домой!*에서 가정법 문형(*шёл бы*)이 명령법(*иди*)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러시아어 동사가 표현할 수 있는 전이 현상 가운데 시제 전이는 문법적 시제 의미와 문맥의 시간성(темпоральность)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Бондарко 1971:129).

그동안 러시아어 시제 범주는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는 직접 용법(прямое употребление)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전이 용법(переносные употребления)에 초점을 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러시아어학에서 전이 현상은 주로 조어(품사전성)와 서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시제 전이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도 주로 동사 현재시제형의 과거의미, 즉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전이 유형은 언어학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시제 전이 현상의 의미나 기능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전이 용법의 범위와 그 하위 분류, 전이가 발생하는 맥락적 조건 등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완료상 현재시제 형태의 전이 용법을 중심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러시아어 동사의 시제 전이 현상의 개념화 및 전이 유형의 분류와 특성 분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시제 전이 현상의 개념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재시제의 범주적 의미 자질인 ‘현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시제 전이 용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시제 전이 현상 가운데 불완료상 현재형의 전이 용법의 하위분류를 제시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2. 러시아어 동사의 시제 전이 현상

시제 전이 현상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은 전이 용법의 분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문법학자들이 시제 형태의 직접 용법과 전이 용법을 나누는 것에는 의견을 일치하지만, 러시아어 동사에는 양 용법을 구별하는 전용의 형태적 표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용법 간 경계의 모호성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다.

직접 용법과 전이 용법의 구분은 동사 형태가 전형적으로 지시하는 시제 의미(시간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특히 동사의 현재형의 전형적인 시제 의미로서 ‘현재성’은 과거성과 미래성을 연결하는 매개 영역인 동시에 각 시제성 영역에 경계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시제 전이 현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이 용법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현재 시제의 범주적 시간성으로서, 현재성의 개념을 검토하고, 시제 전이 현상의 공통의 특징들을 분석한다.

2.1. 현재시제의 현재성

시간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로 양분된다. 비교적 자연스러운 경계를 보유한 과거나 미래 달리, 화자가 현재로 인식하는 영역은 의미되는 상황 및 상황 참여자의 구체성과 일반성, 한정성과 비한정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매우 짧은 순간(찰나)에서 화자의 시야를 완전히 벗어난 넓은 시간의 영역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현재시제는 시간축에서 독립적인 영역을 점유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Богданов и др. 2009:438). 이렇듯 ‘현재’의 개념이 가변적이고 때로는 모호한 영역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문법적 현재시제를 상징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선형의(linear) 시간축에서 과거와 미래의 구간을 연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과거시제의 종결점과 미래시제의 시작점에 경계를 부여하는 중심축이 바로 현재시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시간 영역에서 다른 시간 영역으로의 이동을 전제하는 시제 전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제의 불변의 시간성 자질인 ‘현재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시제의 동시성(одновременность), 탈시간성(вневременность), 무표성(немаркированность) 등의 자질이 논해지기도 한다.

동사의 시제 형태는 시제 체계를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관계하며, 각 범주는 기준시점(точка отсчета)에 대한 사건의 시간적 연관성에 기초하여 대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문법적 시제의 기준시점은 발화 순간(момент речи)으로 상정되는데, 각 시제 범주는 이로부터 사건이 선행(предшествование), 후행(следование)하여 배치되거나 기준시점과 동시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예를 들어 동사의 과거형은 기준시점에 선행하는 범주적 의미를 보유하며, 선행성이라는 시간성 자질을 통해 현재형과 미래형으로부터 의미적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시제가 갖는 동시성은 기준시점에 대한 방향의 개념이 과거시제나 미래시제의 것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형의 동시성은 기준시점을 뒤따르거나 앞선다는 것을 가리키는 방향성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현재시제의 범주적 의미는 기준시점과 일치하여 전개되는 구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일상적이고 항시적인 속성을 갖는 상황도 나타낼 수 있다(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980:626).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시제의 범주적 시간성 자질을 이해해야만, 지속적인 상태와 같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행위, 특정 시간 구간에 고정되지 않는 반복적인 행위, 능력이나 성질과 같이 어떤 순간에든 나타날 수 있는 행위, 진리나 격언에서 범시간적으로 적용되는 행위 등 추상적인 현재의 의미까지 현재시제 형태의 직접적 의미로 포괄할 수 있다. 실제로, Бондарко(1971:64-74)는 발화 순간에 관계되는 행위가 표현되는 실제적 현재(настоящее актуальное)와 발화 순간과 행위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는 비실제적 현재(настоящее неактуальное)를 현재시제의 직접 용법으로 구별하고 있다. 정리하면, 현재시제는 발화 순간과 일치하는 점적인 의미로서의 현재에서 그 영역이 무한히 확장된 현재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현재시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현재시제의 탈시간성이나 무표성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이는 현재시제는 불변의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과거나 미래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다(이인영 1993:107). 그러나 현재형을 탈시간적 범주나 시제 체계의 무표적 성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재형의 전이 용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Бондарко(1971:161-161)는 불완료상 현재형이 과거 또는 미래의 행위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은 현재형이 시간 외적으로 사용되어 넓은 시간의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형이 과거와 미래를 실제화(актуализация)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형은 기준시점에 대한 동시성을 나타내는 고유 의 ‘양의(положительный)’ 의미 성분을 보유하므로, 현재형을 무표적 성분으로 평가하는 것 또한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현재시제에 대하여 단순히 발화시와 합치하는 의미의 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시점에 전후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추상적 의미의 현재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며, 현재시제의 범주적 의미로서 ‘현재성’을 과거나 미래로의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서(달리 말하면, 과거에 종결되지 않았고 미래에 개시되지 않는 것), 기준시점에서 유효한 상황의 시간성으로 규정한다.

2.2. 시제 전이 현상의 특징

동사의 시제 형태의 전이적 사용은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지닌다. 1) 동사의 시제 형태의 문법적 의미와 문맥의 시간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시제 전이를 활성화하는 맥락적 조건(수단)이 자주 동반된다. 3) 유의어적 관계의 시제 형태와 상호 교체 가능성을 지닌다.

1) 형태와 문맥의 불일치

언어단위의 기호와 이에 상응하는 의미의 관계는 구체적인 담화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경될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사의 시제 형태는 전이적 의미에서 사용될 때 형태의 범주적 시간성을 여전히 보존하며, 직접적 의미에 상응하는 형태와 구별되는 특별한 표현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завтра я уезжаю*라는 표현에서 화자는 미래의 행위를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하여 전달하면서 행위에 대한 확실성, 실제화된 느낌 등을 덧붙인다. 이는 본질적으로 미래시제에 관계되지 않는 이미지이다(Пешковский 2001:209). 때때로 시제 형태의 범주적 의미는 오히려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Пешковский(2001:209)는 이를 “장례식에서의 웃음이나 무도회에서의 울음”에 비유하며, 형태적 시제 의미와 실제 언어적 상황의 시간성 간의 모순이 범주적 시간성을 더욱 강렬하게 인식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제 전이 현상을 일종의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로서 설명할 수 있다. 문법적 단위가 전이적으로 사용될 때 동일 파라디그마에 속하는 상이한 형태들은 동의어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시제 전이 현상은 대조를 이루는 양 의미가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표현력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동형의어적이거나 보다는 문법적 은유에 가깝다. 남혜현(2017:9)은 문법적 은유를 “일정한 문법적 범주의 형태가 비유적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원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시제 전이 현상을 시제 범주 내에서의 시간 영역의 이동으로 파악한다면, 러시아어의 문법적 은유에 시제 전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시제 형태의 전이적 사용이란 동사의 문법적 형태가 나타내는 시제 의미가 은유적 시간성(метафорическая темпоральность)으로 전환되어 맥락적 시제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형의 전이 용법에서 실제 현재시제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형상적인 현재시제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나타내는 역사적 현재에 대해 사건이 화청자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하면, 시제 전이는 동사의 문법적 형태의 재해석(переомыслиени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이적 사용이 항상 특별한 표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작품 내의 작가의 발화

(авторская речь)에 사용되는 역사적 현재는 그러한 표현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Бондарко (1971:174)에서 강조하였듯, 형상성(образность), 감정성(эмоциональность), 표현성(экспрессивность) 등이 시제 전이 현상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이적 사용을 판정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시제 전이 현상에서는 항상 형태적 시제 의미와 맥락의 시간성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문맥의 시간성과 대조되면서 시제 형태의 문법적 의미는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지만, 발화 상황이나 텍스트 유형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표현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고, 때로는 특별히 강조되지 않을 수 있다.

2) 시제 전이의 맥락적 환경

전이는 의도성(интенциональность)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Пешковский(2001:208)는 형태와 맥락의 모순이 발생하는 원인을 화자가 순수 형태만을 활용하고, 그 형태에 비규범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желание)에서 찾는다. 전이 현상은 발화 의도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화자의 고의적인 규범 위반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이적으로 사용된 문장이 아니라 단순히 문법 규범을 벗어난 비문이 된다. 그런데 전이적 의미는 형태로 예측되거나 문법적 규칙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시제 문법소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시간성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예컨대 동사 현재형이 현재성과 과거성 또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의미할 수 없다.) 청자는 주어진 동사의 형태만으로는 맥락적 시제와 형태적 시제 간의 불일치를 포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자는 성공적인 발화가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실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자주 시간성 한정성분(темпоральный детерминант)으로서 텍스트에 포함되어 맥락적 시제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의 이동을 암시한다⁴². 이와 같이 시제 전이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수단에는 특정 시간 틀(план)을 구체화하는 어휘적 표지(시간 부사, 어결합 등), 동사 자체의 의미 부류, 담화 유형(режим) 등이 있다.

시제 형태가 전이적으로 사용될 때, 대개 맥락적 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어휘적 수단이 동반된다. (1)과 (2)에서 동사의 형태(иду, вижу, понимаю)는 현재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관계되는 행위이다. (1)의 *вчера*, (2)의 *недавно*와 같은 시간 부사는 기준시점의 시간 틀을 고정하여, 맥락적 시제 의미를 식별하게 해준다.

- (1) *Иду вчера* от остановки и уже издалека *вижу* ее — мне навстречу.

어제 정류장에서 걸어오는데 저 멀리 나의 맞은편에 그녀가 보였어요.

[Михаил Шишкин. Письмовник (2009)]

- (2) *Поднимаюсь недавно* по лестнице в гостинице «Красная».

얼마 전에 크라스나야 호텔 계단을 올랐어요.

[Роман Карцев. «Малой, Сухой и Писатель» (2000-2001)]

42) 은유화는 단어 간의 치환이 아닌, 개념 영역 간의 사상에 기초한다. 시제 전이 현상에서 시간성의 영역 간 이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예컨대 역사적 현재를 사용할 때, 화자가 마치 과거로 이동한다는 관점과(П. С. Кузнецов. «К вопросу о praesens historicum в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1949),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이동시킨다는 관점이다(В. В. Виноградов.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1947). 이와 관련해, Бондарко(1971:143)는 화자가 과거로 이동하거나 또는 화자가 과거를 현재로 이동시키는 것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과거의 실제화)에 대한 두 가지 심리학적 전제라 본다. 한편 Падучева(2010:381)는 역사적 현재에서 과거로 옮겨지는 것을 ‘관찰 시점’이라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시제 전이 현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화자나 사건이 아니라, ‘기준시점(точка отсчета)’이라는 입장이다. 시제 형태가 전이적으로 사용될 때, 형태적 의미가 발화 순간과 갖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끊어지고, 문맥에서 지시하는 어떤 순간으로 기준시점이 이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형의 전이적 사용은 동사가 의미하는 사태가 발화 시점이 아닌, 맥락에서 설정된 과거나 미래의 시점과의 동시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3)의 소사 *бывало*는 문장 전체의 시제를 결정하는 운용소로 작용하여 과거 시점을 문장 전체에 투사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현재에는 그러한 일상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을 함의한다(이남경 2018:52-53).

(3) Я, *бывало*, теперь в лес так *пройдуся*, или краем полей и радость меня охватывает всего: всему дивлюсь и всё понимаю.

예전처럼 이제 내가 그렇게 숲이나 들판의 귀퉁이를 지날 때마다 기쁨이 나를 온통 사로잡는다. 모든 것이 경이롭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

[М. М. Пришвин. Дневники (1927), 이남경 2018:56 재인용]

맥락적 시제를 표지하는 명시적인 어휘적 수단이 부재하더라도, 선행 맥락을 통해 기준시점으로 작용하는 시간적 순간이 고정되면, 그 후에 화자는 목적에 적합한 특정 시제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⁴³). (4)에서는 먼저 *взял, сел, поехал*의 동사 형태를 통해 발화시보다 앞선 때에 일어난 사건임이 전달되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불완료상 현재형이 연쇄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선행하는 문장의 시제를 통해 사건 전체의 시제가 과거임이 보장된다.

(4) *Взял* билет до моей любимой станции, *сел* в электричку и *поехал*. *Еду, гляжу* в окно. А там — начало мая, все *распускается, зеленеет*, душу *радует*.

가장 좋아하는 역까지 표를 끊고, 기차를 타고 갔다. 기차를 타고 가며 창밖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는 온통 5월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피어나고, 녹색으로 변해 마음을 기쁘게 한다.

[Владимир Сорокин. Кисет // «Родник», 1989]

그밖에, 동사 자체의 의미 부류도 맥락적 시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계획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할 때, 미래시제 형태와 현재시제 형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화자의 통제 영역 밖의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색하다(Бондарко(1971:155)의 예를 빌리자면, *Завтра мы беспокоимся, ...чихаем, ...слабеем*과 같은 표현). 이 유형에서는 공간에서의 이동 의미를 가지는 동사(*иду, уезжаю, отправляюсь* 등)의 전이가 전형적이다. 어휘 의미와 문법적 층위의 밀접한 상호관계는 이미 다양한 언어학 분야에서 관찰된 바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시제 전이 현상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제 전이 현상의 맥락적 환경으로 담화 유형(режим)을 고려해야 한다. Падучева (2010)는 전이 용법의 기술에 담화 유형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제의 의미를 적절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발화 담화(режим речевой, =режим диалогический)와 서사 담화(режим нарративный, =режим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ый)를 구별하여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⁴⁴). 동일한 유형의 전이 현상이라 할지라도 사용된 담화 유형에 따라 발화가 갖는 표현력, 은유적 효과가 다를 수 있다.

43) Бондарко(1971:147)는 역사적 현재에서 과거형과 현재형이 번갈아 사용된다(чередуется) 현상에 대해, 형태적 대조를 통한 구정보와 신정보의 분절, 또는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의 선명한 대조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예작품의 작가의 발화에서는 묘사되는 사건들이 속하는 두 가지 시간적 공간(временная плоскость)을 구별하기 위해 과거형과 현재형이 교체되어 사용된다. 주된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의 다른 이야기(회상)를 동사의 시제 형태로 구별하여 서술할 수 있다.

44) ‘발화 담화’와 ‘서사 담화’는 구체적인 화청자의 존재 유무로 구별된다. 발화 담화에서 대화 참여자는 직접적인 연결을 전제하는 시공간에 위치한다. 반면 서사 담화에서는 화자로서의 ‘я’가 부재한다. 완전한 의미의 화자가 없고 화자의 대리인으로서 서술자(повествователь)가 존재한다(Падучева 2010:376). 서사 담화에서는 서술자와 시공간을 공유하는 청자 역할의 수신자 역시 담화 내부에 부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화자의 역할을 하는 서술자와 외부 수신자인 독자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Падучева(2010:377)는 기존의 역사적 현재의 해석에는 담화 유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며, 역사적 현재의 은유성(метафоричность)은 발화 담화에 특징적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그는 서사 담화의 역사적 현재형과 과거형을 시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역사적 현재형은 어떤 상황에 수신자를 참여하도록 공통의 시야를 만드는 듯하고, 과거형은 수신자를 행위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였다(Падучева 2010:379). 즉 직접 용법의 과거형과 전이 용법의 현재형이 서사 담화에서 사용되더라도 청자(독자)의 입장에서 동등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서사 담화의 역사적 현재는 발화 담화에서보다 전이에 의한 은유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않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제 형태의 전이적 사용에서는 기준시점의 이동을 신호하는 다양한 맥락 요소의 사용이 특징적임을 강조할 수 있다. 시제 전이의 하위 유형의 분석에서 유형 별로 자주 동반되는 다양한 수단 및 특징적인 맥락적 환경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상호 교체 가능성

시제 형태가 전이적으로 사용될 때 동사의 형태는 맥락의 의미와 일치하는 규범적인 시제 형태와 유의어적 관계(синонимия)를 형성하고 특별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Бондарко (1971:173-174)는 전이 용법에서 동사의 형태를 맥락적 시제와 일치하는 형태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두 형태가 의미적으로 동등하지 않고(не равнозначны), 부분적으로만 일치함을 지적한다. 전이적 사용은 시간성을 형상적으로 표현하므로,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와 맥락적으로 결정되는 의미는 양상적 뉘앙스, 문체적 특성 등에서 차이를 가진다. 다시 말해, 전이적 사용은 형태와 문맥 사이의 모순에 따른 특별한 표현력 가질 수 있지만, 직접적 사용은 그러한 잠재성의 부재로 인해 문체적으로 덜 표현적인, 즉 중립적인 표현력으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격언이나 속담에서 완료상 미래형이 사용되어 잠재적인 반복을 함축하는 가정 세계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 의미에 전형적인 불완료상 현재형을 사용하여도 동일한 명제적 의미는 전달되지만 (5)과 같이 완료상 미래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듯한 어감을 줄 수 있다(이인영 1997:155).

(5) Старый человек плохого не *посоветует*.

원숙한 사람은 나쁜 일을 조언하는 법이 없다.

(이남경 2013:443)

다른 예로, 동사의 미래시제 형태는 발화시 이전에 빈번하게 발생한 일상적인 행위나 상황을 명명할 수 있다. (6)에서 *помажу*와 *вытру*는 완료상 동사 *помазать*, *вытереть*의 미래형이지만, 해당 맥락에서는 과거에 수행된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맥락적 시제 의미에 따르면, *помажу*를 *помазывал*로, *вытру*를 *вытирал*로 교체하여도 명제적 의미는 보존된다⁴⁵⁾.

45)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맥락적 시제로의 치환 시 상의 전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문 (5), (6)의 완료상 미래형을 (5'), (6')과 같이 맥락적 시제 의미에 일치하는 형태로 바꾸면, 각각 현재시제 형태와 과거시제 형태로 치환되며, 이때 시제의 변화와 함께 동사의 상이 불완료상으로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Старый человек плохого не *советует*.

(6') Ко мне же, отче, в дом принашивали матери детов своих маленьких... и я маслом священным... *помазывал* вся чувства и... младенцу спину *вытирал*...

(6) Ко мне же, отче, в дом принашивали матери детов своих маленьких... и я маслом священным... помажу вся чувства и... младенцу спину *вытру*...

신부님, 저한테 말입니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 찾아오곤 했었지요... 저는 성유로... 모든 감각들을 문질러 주고... 어린애의 등을 닦아내곤 했지요.

[Аввакум, житие. 이인영 1997:154 재인용]

* * *

지금까지 시제 전이 현상의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성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이 현상에서 관찰되는 공통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시제의 범주적 의미 자질로서 현재성은 과거나 미래로의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서, 기준시점에서 유효한 상황의 시간성을 가리킨다. 현재시제가 점유하는 시간 영역은 과거의 종결점과 미래의 시작점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과거시제와 미래시제의 범주적 의미 자질을 설정할 수 있다. 과거성과 미래성은 현재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각각 과거에 대한 방향성(선형적 시간축에서 좌를 지향하는 시간성)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선형적 시간축에서 우를 지향하는 시간성)을 갖는 시간성을 의미한다.

둘째, 시제 전이 현상의 기본 전제는 형태적 시제 의미와 맥락의 시간성 사이에 불일치이다. 형태와 맥락의 의미적 모순은 발화에 순수 시간성의 의미 외에 부가적인 뉘앙스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특별한 표현력은 시제 전이 현상의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전이적 사용을 판정하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셋째, 시제 형태는 오직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만 은유적 의미를 획득한다. 전이의 전제는 시제 형태를 비전형적인 시간의 틀(план)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이 용법은 맥락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맥락은 형태가 적절한 의미적 기능을 실현하는데 참여한다. 시제 형태가 전이적으로 사용될 때 맥락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새로운 기준시점을 신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활성화 수단(актуализатор)으로는 시간 틀을 구체화하는 어휘적 표지, 동사 자체의 의미 부류, 담화 유형 등이 있다.

넷째, 시제 전이 현상에서 동사의 형태는 맥락적 시제 의미와 일치하는 규범적인 형태와 상호 교체 가능하다. 그러나 교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명제적 의미는 동일하더라도 양 형태가 부여하는 양상적 뉘앙스, 문체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불완료상 현재형의 전이 용법

러시아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적 시제 체계에 의하면, 발생 가능한 시제 전이 현상은 형태적 시제(문법적 시제)와 의미적 시제(맥락적 시제)의 상응관계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6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태적 시제	의미적 시제	예시
현재시제	과거시제	Вчера <i>гуляю</i> с Томом, он в кусты забежал, а там мертвая женщина в красном халате! 어제 톰이랑 걷고 있었는데, 그가 덩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거든, 그런데 거기에 빨간 가운을 입은 죽은 여자가 있었어! [Даниил Корецкий. Менты не ангелы, но... (2011)]
	미래시제	Завтра я <i>уезжаю</i> в Одессу. 나는 내일 오데사로 떠나. [В. Д. Варзацкий. Дневник (1974)]
과거시제	현재시제	Часто бывает: человеку <i>прогнозировали</i> три месяца жизни, а он лечение <i>получил</i> , душу свою <i>оздоровил</i> и <i>произошло</i> полное излечение. 종종 있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Дарья Рощеня. Со мной все хорошо! Когда мы отрицаем страшный диагноз (2017)]
	미래시제	Если никто не поможет мне за это время, я <i>погиб</i> .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었어. [Евгения Пищикова. Пятиэтажная Россия (2007)]
미래시제	과거시제	Бывало, <i>сберутся</i> добрые люди, <i>выпьют</i> по чарке, песняка играют.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를 부르곤 했었지. [Борис Екимов. Пиночет (1999)]
	현재시제	Бывает, муха <i>пролетит</i> , ты <i>проснёшься</i> и до утра глаз не <i>сомкнёшь</i> , а тут шум, споры, переполох, а тебя не <i>добудиться</i> . 파리 한 마리만 날아가도 잠을 깨어 아침까지 눈을 붙이지 못하는가 하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말다툼을 하며 난리가 나도 쿵쿵 코를 골아대며 잠을 자곤 하지. [Б. Л. Пастернак. Доктор Живаго (1945-1955)]

표1. 러시아어 시제 전이 유형

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어 시제 전이 현상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으나⁴⁶⁾, 시제 형태의 직접 용법과 전이 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문법적 이론의 틀을 마련한 것은 A. В. Бондарко (1971) «Вид и время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значение и употребление)»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어 시제 연구는 기본적으로 Бондарко의 의미 분류를 따르고 있는데, 전이 현상에 있어서도 그의 연구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Бондарко(1971)는 불완료상 현재형의 전이 용법을 1) 역사적 현재(настоя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 2)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настоящее эмоциональной актуализации), 3) 미래의 행위를 의미하는 현재(настоящее при обозначении будущих действий)로 구분한다. 본고에서는 Бондарко의 분류를 삼분적 시제 체계 및 형태적-의미적 시제 관계에 따라 재배치하여, 현재형의 시제 전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기준시점이 발화시에 앞서는 순간으로 이동하는지, 발화시에 뒤따르는 순간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과거

46) А. А. Шахматов.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1941; В. В. Виноградов.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1947; П. С. Кузнецов. «К вопросу о praesens historicum в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1949; А. М. Пешковский.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1956, 2001; А. А. Потебня. «Из записок по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е» 1958 등

맥락의 현재형(역사적 현재,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과 미래맥락의 현재형(예정된 행위의 현재, 가상적 행위의 현재)을 분류하였다.

형태적 시제	의미적 시제	시제 전이 유형
현재시제	과거시제	역사적 현재 (настоя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 (настоящее эмоциональной актуализации)
	미래시제	예정된 행위의 현재 (настоящее намеченного действия)
		가상적 행위의 현재 (настоящее воображаемого действия)

표2. 불완료상 현재형의 시제 전이 유형

본 장에서는 재배열한 불완료상 현재형의 시제 전이 유형의 특징을 살펴본다. Бондарко(1971) 이후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유형(역사적 현재, 예정된 행위의 현재)의 분석에만 치중되어 있어 현재시제의 전이 현상 전반을 체계화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Бондарко 및 이후의 최근 (2000년대) 연구들을 검토하여, 현재시제 형태의 전이 현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3.1. 과거맥락의 현재형

문법적 관점에서 현재형의 전이 용법의 개념적 중심은 문맥은 과거를 가리키고, 문법적 형태는 현재를 가리킨다는 점이다(Бондарко 1971:144). 현재형의 전이 용법에서는 발화 순간이 아닌, 텍스트에 고정된 어떤 순간으로 이동한 기준시점과의 동시성을 갖는 상황이 의미된다. 현재형의 은유적 잠재성은 형상적인 시간성 자질로부터 야기되는 실제화(актуализация)에 있다.

과거맥락에서 현재형이 사용될 때 기준시점은 발화시에 앞서는 순간으로 이동하며, 현재형은 과거 사건의 실제화를 위해 사용된다. 이 유형에서는 1) 역사적 현재(47)와 2)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가 분류된다.

1) 역사적 현재(настоя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

언어보편적 현상으로 간주되어 전이적 사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가장 활발한 형태로 알려져 있는 역사적 현재는 주로 행위나 사건의 심리적 실제화를 불러일으키는 생동감(живопись), 형상성(изобразительность)과 같은 표현적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⁴⁸⁾. 아래 (7)에서 화자는 과거 사실을 묘사하면서 동사의 현재형(иду,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распаивает, приглашает)을 사용하여,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마치 다시 한 번 경험하듯 이야기를 전달하고, 독자(청자)를 이야기의 유사(quasi) 목격자로 만든다. 이를 통해 화자는 과거의 행위를 보다 감정적이고 극적인 것으로(драматизированный) 제시할 수

47) 사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서술 방식을 강조하여 서술적 현재(настоящее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е), 회화적 현재(настоящее живописное), 묘사적 현재(настоящее описательное)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불린다.

48) 이미 많은 연구에서 역사적 현재의 기능 분석이 다루어졌고, 오늘날에는 문예작품에서의 작품 분석의 기법으로 적용하는 등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Е. П. Демчик, Е.П. Соколова (2015). - М. Булгаков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Г.П. Мосолова, П.В. Каштанова (2016). - Д. Рубина «Почерк Леонардо», Л. Е. Улицкая «Казус Кукоцкого», Л. Е. Улицкая «Медя и ее дети» 등) 어학적 접근에서는 전이 현상의 형태론적, 구문적 특성에 주목한다면, 문학적 접근에서는 주로 전이적으로 사용된 시제 형태의 문체적 효과에 관심을 둔다. 특히 시제 전이 현상을 작가의 전체적인 서술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아, 작가가 추구하는 효과적인 슈제트 설계 방식과 연관 지어 분석된다.

있다(Путяйкина 2018:453). Тимофеев(1999)는 역사적 현재의 이와 같은 표현력을 “마치 과거에서 촬영된 영화의 장면을 보는 듯하다”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 (7) — Ты знаешь, *иду* вчера по улице, возле меня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Жигуленок», совершенно незнакомый водитель *распахивает* дверь и *приглашает* меня прокатиться. 있잖아, 내가 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쥐굴리가 내 옆에 멈춰 서더니, 웬 모르는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는 나보고 타라고 그러는 거야.

[Коллекция анекдотов: женщины (1970-2000)]

역사적 현재는 담화자간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구두 발화에 가장 특징적이지만, 문예작품의 인물들의 대화, 작가의 서술, 역사적 저작물 및 전기 등에서도 자주 관찰된다. Падучева(2010)는 역사적 현재가 사용되는 담화 유형을 ‘발화 담화(режим речевой)’와 ‘서사 담화(режим нарративный)’로 구분하여, 담화 유형에 따른 역사적 현재의 은유적 효과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Бондарко(1971:146)가 역사적 현재의 하위 유형으로 화자의 직접적인 생생한 이야기(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й, живой рассказ говорящего)와 사건을 전달하는 작가의 서술(авторск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을 구별한 것과 상응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Путяйкина(2018)는 구어적 역사적 현재(разговорное настоя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와 문학적 역사적 현재(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тоя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를 구분하였고, Годизова(2018:22)는 문예작품에서 인물들 간의 발화와 작가의 서술에 사용된 역사적 현재형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위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발화 담화에서의 역사적 현재형이 더 큰 표현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많은 연구에서 역사적 현재가 사용된 담화 유형에 따라 발현되는 표현적 풍부함의 정도가 다름을 기술하고 있지만, 서사 담화에서 은유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서사 담화에서의 역사적 현재형을 이미 신선한 표현력을 상실한 일종의 사은유(dead metaphor)로 보는 관점이다. Бондарко(1971:145)는 작가의 서술에서 사용된 역사적 현재를 관습화된 기술적 수단(техническое средство)이라 설명한다. 즉 작품 내 작가의 발화, 역사 저술, 위인 전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사적 현재형은 이미 일반화된 서술 방식으로, 과거의 형상적 실제화를 매번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형태의 문법적 의미와 과거에 대한 시간적 관련성의 대조는 역사적 현재의 항시적인 자질이므로, 어느 정도의 표현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관점에 따르면, 서사 담화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연결이 단절되어 은유적 효과의 경험자인 수신자에게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된다. Путяйкина(2018:453)의 설명으로는, 구어적 유형에서는 항상 화자로서의 ‘나(я)’가 존재하며 사건의 시간적 실제성(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과 발화의 발언(произнесение) 시간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문학적 유형에서는 화자의 역할을 하는 서술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부재하며, 이야기되는 사건만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각 담화 유형에서 화자(서술자)와 청자(독자)의 상관관계가 달라지며, 이로 인해 발화 담화에서는 화청자가 공동의 시야를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만, 서사 담화에서는 그러한 연결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서사 담화에서는 수신자(독자)에게 특별한 감정적, 표현적 뉘앙스가 전달되기 어렵다.

한편, 기능적 관점에서는 ‘과정 의미’의 역사적 현재와 ‘사건 의미’의 역사적 현재가 구별된다. Тимофеев(1999)는 역사적 현재형이 사용될 때 과거와의 관련성은 주로 과거와 연결된 의미를 가진 상황어에 의해 설정된다고 보았으며, 시간 상황어가 가리키는 의미의 구체성에 따라 상황의 의미적 특성이 달라짐을 언급하였다. 먼저 구체화되지 않은 과거를 의미하는 상황어(в детстве, в ранней молодости, во время отпуска, летом, ...)를 포함하는 경우, 역사적 현재형은 해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된 행위를 나타낸다(Летом *отправляюсь* в лес, *вдыхаю* запах сосен, *любуюсь* природой.)⁴⁹⁾ 이와 달리, 상황

49) 소사 *бывало*는 이 뉘앙스를 강화한다. 문장에 삽입된 *бывало*는 발화 전체의 시제 의미를 과거로 고정시

어가 구체적인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경우(*вчера, в пять часов вечера, двадцатого февраля, ...*) 현재형은 과거의 특정 사건을 나타낸다(*Вчера иду по лесу и нахожу много грибов.*). 이 유형의 발화는 대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후행하는 부분은 선행하는 부분에서 명명된 행위를 실현한 후에 발생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아래 (8)에서 현재형은(*иду, наслаждаюсь, люблюсь, выхожу, начинаю*) 배열 순서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 (8) ... *вчера иду по лесу, наслаждаюсь* запахом цветов, *любуюсь* соснами и вдруг *выхожу* на полянку, там много грибов, и я *начинаю* собирать их.
 어제 나는 숲속을 걸으며, 꽃향기를 맡고 소나무를 감상하고는, 돌연 버섯이 많은 작은 풀밭으로 가 버섯을 줍기 시작했다.

(Тимофеев 1999)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특징을 지적한다. 불완료상 동사들만이 갖고 있는 현재형이 완료상 동사에 고유한 ‘순차적인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 Падучева(2010:379)는 역사적 현재의 맥락에서 불완료상 현재형이 개시성(*начинательность*)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행위의 중간 국면을 강조하는 불완료상 동사에는 부재하는 의미이다. 이 의미를 통해 역사적 현재는 사건 의미(*событийное значение*)를 보유하며, (9)에서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현재형 동사가 연쇄적으로 사용될 때, (본래는 완료상 동사에 특징적인)연속적으로 행해진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⁵⁰).

역사적 현재가 사용될 때 주로 과거와의 관련성을 표지하는 상황어나 어결합이 동반되지만, 자주 사용되는 특정 동사 부류가 전이적 사용을 신호하는 맥락적 환경으로 작용한다. 시제 전이 현상에서의 의미적 제약성에 주목한 Попова(2019:95)에 따르면, 역사적 현재의 ‘회화적’ 요소는 직접 관찰 가능하고 인식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동동사(*глаголы движения*), 물리적 행위 동사(*глаголы физического действия*), 발화 행위 동사(*глаголы речевого действия*) 등으로부터 자주 전이가 발생한다.

2)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настоящее эмоциональной актуализации*)

이 유형은 현재형의 전이적 사용의 하위 유형 중 학술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부류이다. Бондарко (1971:150)는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를 화자에게 놀람(*удивление*)이나 분노(*возмущение*)를 야기한 과거 사실의 감정적-표현적 실제화(*эмоционально-экспрессивная актуализация*)에 사용되는 전이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정적 실제화가 작용하는 과거의 사건은 화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이와 맥락적으로 대조되는 과거의 사실에는 화자에게 있어 중요한(*принципиальное*) 의미가 부여된다. 아래에 Бондарко(1971)의 예시가 있다.

키고, 관련되는 일련의 행위(*сидит, смотрит, оглядывает, понимает*)에 반복성을 부여한다.

Удивительное дело — *сидит, бывало*, на собрании, внимательно *смотрит* в рот тем, кто говорит, *оглядывает* зал и будто бы все *понимает*.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는 종종 회의에 참석하여, 말하는 이들의 입술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회의장을 살피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Владимир Чивилихин. Про Клаву Иванову (1964)]

50) 역사적 현재가 과정 의미 외에도, 사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시간 상황어와의 결합성에서 확인된다. Падучева(2010:379)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 현재는 *неожданно, внезапно, моментально, вдруг*과 같은 부사들과 결합되는데, 본래 이 부사들은 완료상과 결합한다. 아래는 Падучева(2010:379)의 예이다.

а. Неожданно из-за отдаленного кустарника *выползает* луна. [역사적 현재]

б. Неожданно из-за отдаленного кустарника *выползла* луна. [완료상 과거]

в. *Неожданно из-за отдаленного кустарника *выползала* луна. [불완료상 과거]

- (9) Двенадцать лет трудился он над этой задачей, двенадцать лет писал он второй том «Мертвых душ», писал, переписывал, переделывал и всё не считал оконченным, ни разу не мог удовлетвориться... *И вот он сам сжигает* их и, сжегши, *умирает*. Всё это полно страшного, огромного смысла.

그는 이 문제를 12년 동안 연구했고, «죽은 자들의 영혼» 2권을 12년 동안 썼어요. 쓰고, 다시 쓰고, 고쳤지만, 끝이 보이질 않았고, 전혀 만족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그것들은 불태웠고, 전부 불에 타고나선 목숨을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끔찍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요.

[Письмо И. С. Аксакова И. С. Тургеневу от 26 февраля 1852 г.; Бондарко(1971:151) 재인용]

(9)에서 *и вот*을 기준으로, 전후 맥락에서 주어지는 사실들이 대조된다. 선행 맥락에서는 과거형이 사용되어 텍스트 전체의 시제가 과거의 시간 틀에 고정된다. Бондарко(1971:151)의 분석에 따르면, 선행 맥락에서 묘사되는 사건의 강도와 규모가 강조되면서(*двенадцать лет, писал, переписывал, переделывал* 등에 의해) 서서히 발화의 감정적 긴장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긴장성이 절정에 근접한 지점에서, 기대하는 결과에 모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정적 실제화가 활성화된다.

후행 맥락에서 화자는 예상치 못한 과거의 사실을 묘사하면서 동사의 현재형(*сжигает, умирает*)을 사용하였다. 선행 맥락에서는 과거시제 형태만을 사용하였는데, 후행 맥락에서는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하여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 사이의 대조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이와 함께, 전이적 현재형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사실은 관찰 시점과 동시적인 시간 틀에서 재경험하듯 인식되고, 평가된다. Бондарко(1971:152)는 여기서 현재형 대신 과거형이 사용되었다면(*сжег, умер*) 논리적 연결성은 보존되었으나, 사건에 대한 감정적-표현적 실제화의 효과가 상실될 것이라 설명한다.

이 유형은 예상 범주를 벗어난 행위나 사건의 갑작스러운 도래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전달한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발생했거나 항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실과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할 때 전이적 현재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10)에서는 *и вдруг*을 기준으로 오랜 기간 당연시해 왔던 상황(‘땅의 소유주는 화자이다’)과 이를 부정하는 새로운 상황의 도래(‘땅의 소유주는 화자가 아니다’)가 대조적으로 관찰된다.

- (10) Сюрприз какой! Владеем землей чуть ли не триста лет, *и вдруг* нам *заявляют*, что земля не наш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거의 300년 동안 땅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우리 땅이 아니라고 말하다니요!

[Чехов. Предложение; Бондарко(1971:152)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감정적 실제화의 예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으로, *и вот, и вдруг*과 같은 어휘적 수단을 통해 전후 맥락의 대조의 뉘앙스가 강조된다. 이를 기준으로 선행 맥락에서는 맥락적 시제와 일치하는 동사 형태가 사용되고, 후행 맥락에서는 전이적 현재형이 사용된다. Бондарко(1971:151)는 그러한 수단으로 접속사 *а*, 어결합 *и вдруг, а тут вдруг, и вот*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추가적인 예문 분석을 통해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형을 표시하는 다양한 맥락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과거맥락에서 사용된 현재형의 하위 유형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두 경우 모두 현재형이 문맥에서 객관적 과거에 관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역사적 현재와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역사적 현재가 텍스트의 효과적인 서술 방식과 관계되는 개념이라면,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감정적, 표현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3.2. 미래맥락의 현재형

미래맥락에서 현재형이 사용될 때 기준시점은 발화시에 뒤따르는 순간으로 이동하며, 전이적 현재형은 비현실성(ирреальность)을 전제하는 미래의 사건에 형상적인 현실성(реальность)을 부여한다. 이 유형에서는 1) 예정된 행위의 현재와 2) 가상적 행위의 현재가 분류된다.

1) 예정된 행위의 현재(настоящее намеченного действия)

계획된 행위를 언급하며 행위 수행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시제 형태가 미래의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다. 미래맥락에서 전이적 의미는 주체의 의식(сознание) 속에서 행위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주관적 표상에 기반하여 발생한다(Грибешенко 2008:93). 이 유형의 의미적 특징은 행위는 미래에 실현될 것이지만, 행위를 실현하려는 의도(намерение), 준비 태세(готовность), 결의(решимость),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한 확신(уверенность) 등은 이미 현재에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Бондарко 1971:154).

(11)에서 호텔 투숙객인 화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지만, 다음날 호텔을 떠날 예정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인다. 화자는 미래에 수행할 행위를 현재형(уезжаю)으로 언급하여, 이를 행하려는 의향이 화자에게 분명히 있음을 전달할 수 있다. 화자의 발화를 통해 청자는 미래의 상황이 높은 확률로(거의 예외 없이) 실현될 것이라 추측한다. 행위 실현에 대한 확실성의 뉘앙스가 강조되는 까닭은, 미래시제의 맥락적 의미와 현재형의 문법적 의미 사이의 대조가 마치 이미 실현된 듯한 형상적인 현실성을 미래의 행위에 부여하기 때문이다.

(11) Кухней не воняет, правда во дворе какие-то грузчики все время грохают и матом ругаются. Да не страшно, я завтра *уезжаю*.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진 않지만, 사실, 안뜰에서 화물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서로 욕설을 퍼붓네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저는 내일 떠날 거니까요.

[Алексей Слаповский. Большая Книга Перемен // «Волга», 2010]

이 유형에서 묘사되는 상황은 미리 계획할 수 있고 주체의 의도에 따라 발생 가능한 행위를 전제한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들에서 화자의 의지에 좌우되는 능동적(активный) 행위를 의미할 수 있는 동사가 이 의미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로 목적 지향적인(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е)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들이 해당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부류로는 공간에서의 이동(идти, ехать, уходить, уезжать, вылетать, отправляться, возвращаться), 발화 행위(говорить, рассказывать, подтверждать, звать), 행위의 착수 및 종결(приступать, начинать, кончать), 획득(заказывать, брать, получать)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 있다(Попова 2019:96).

예정된 행위의 현재의 가장 전형적인 부류는 위에서 살펴본, 화자의 계획된 행위와 의도를 묘사하는 현재형이다. 그러나 화자의 통제 영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선행 사건에 인과적으로 관계되는 미래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현재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예외 없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 등이 포함된다. (12)에서 화자는 조건절에 미래형을 사용하여 전체 맥락의 시제를 미래시제로 고정한 후, 주절의 현재시제 형태(лишаюсь)를 통해 예상되는 결과적 상황을 강조하여 전달한다. 또한, (13)의 ‘봄의 도래’와 같은 자연 현상은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미래의 상황으로, 현재형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 (12) Если вы не выйдете в высшую лигу, я *лишаюсь* всего — и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ресла, и всей моей карьеры!

만약 당신이 빅 리그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대통령직과 내 경력까지 모두!

[Артем Тарасов. Миллионер (2004)]

- (13) Через 1 дней *начинается* весна! Ох, радость, ох, счастье! Весна придёт!!!⁵¹⁾

하루가 지나면 봄이 시작된다! 오, 기쁘고 행복하구나! 봄이 올 것이다!!!

[Вера Хлудова. Вся прелесть жизни тайная... (из дневника) // «Наука и жизнь», 2008]

그동안 예정된 행위의 현재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12), (13)과 같이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형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전이 현상은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확인, 단언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예정된 행위의 현재형이 갖는 확신성의 의미는 때때로 촉구(побуждение), 지시(предписание), 원망(пожелание)의 양상적 뉘앙스와 연결되는 행위를 표현한다(Бондарко 1971:156).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 행위는 미래에 관계되지만, 청자가 수행해야 할 행위를 현재형(*едешь*)으로 표현하여 행위 실현에 당위적이고 필연적인 뉘앙스를 부여한다.

- (14) Завтра, в общем, Абэ, завтра я зайду за тобой... да, в пять. Настраивайся, будь готов, Абэ, собери вещи, завтра ты *едешь*.

내일, 어쨌든, 아베, 내일 내가 널 데리러 갈게... 그래, 5시에. 갈 준비하고, 아베, 짐을 챙겨, 내일 너는 가는 거야.

[Андрей Белозеров. Люди до востребования // «Волга», 2012]

2) 가상적 행위의 현재(настоящее воображаемого действия)

가상적 행위의 현재는 화자의 상상 속에서 마치 현재가 되는 미래의 상황(картина)을 묘사한다(Бондарко 1971:158).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 은유적인 현재에서 실제화되면서 마치 화자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려진다. 아래 예시에서 미래에 속하는 일련의 행위들이(*входит, видит, торчит, ходит, доносится*) 현재시제 형태를 통해 마치 눈앞에서 전개되듯 형상적으로 묘사된다.

- (15) Вообразите, *входит* Ильчин и *видит* диван, а обшивка распорота и *торчит* пружина, на лампочке над столом абажур сделан из газеты, и кошка *ходит*, а из кухни *доносится* ругань Аннушки.

일리친이 들어가서 소파를 보니, 커버가 찢어져 있고 스프링이 드러나 있으며, 탁자 위 램프의 갓은 신문지로 되어있고, 고양이도 돌아다니는데, 부엌에서는 안주쉬카의 꾸지람이 들려온다고 상상해 봐.

[М. А. Булгаков. Записки покойника (Театральный роман) (1936-1937)]

51) ‘Через 1 дней’는 원문 그대로의 표현이다.

이 유형의 특징으로, (15)의 *вообразите*, (16)의 *предположим*과 같이 어떤 행위를 상상하거나 가정하고 있음을 표지하는 상황어구가 자주 포함된다.

(16) Вот *предположим*,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следствии человек *говорит*, что дал показания добровольно, а перед присяжными *заявляет*, что его пытали.

사건 수사에서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다고 말하고,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Лед тронулся // «Газета», 2003.07.02.]

미래맥락의 전이적 현재형의 두 하위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동사의 형태는 현재시제의 의미를 보유하지만, 문맥은 미래를 가리킨다. 맥락적 의미와 현재형의 문법적 의미 사이의 대조는 미래의 행위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은유적인 현실성을 형성한다. 예정된 행위의 현재에서 강조되는 것은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으로, 가정하는 사건에 필연적 뉘앙스를 부여한다. 반면, 가상적 행위의 현재의 경우, 미래 사건의 형상적인 실제화와 관련된 표현적, 감정적 뉘앙스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지만,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가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중요한 차이로, 예정된 행위의 현재형은 상투적인 표현(*штамп*)이 되어 자주 감정적, 표현적 신선함을 상실하지만, 가상의 행위의 현재에서는 매번 현재시제의 형상적인 특성이 선명하게 강조된다(Бондарко 1971:160). 예정된 행위의 현재에서 행위 자체는 미래에 관련되지만, 행위 실현에 대한 화자의 믿음, 확신과 같은 양상적 뉘앙스는 현재의 시간성 영역에 속한다. 이 유형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영역 간 연결성은 형태와 맥락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현재시제 형태가 가까운 미래의 행위를 나타내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즉, 특별한 표현력을 갖지 않는) 표현방식이 될 수 있게 한다.

*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형은 상당히 자주 과거 및 미래의 맥락에서 전이적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시제 전이 현상은 효과적인 서술 기법으로서 발화에 특별한 표현력을 부여할 수 있다. 1) 과거의 사건을 마치 화청자의 눈앞에서 전개되듯 현실화하고 2) 감정적 표현의 수단이 되며 3) 예측되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신성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 가상적 행위를 생생하고 형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불완료상 현재형의 전이적 사용은 현재시제의 동시성 자질에 의한 실제화(*актуализация*) 개념에 기반한다. 즉, 현재형의 전이 용법에서는 맥락적으로 고정된 특정 시점으로 기준시점(관찰 시점)이 이동되고, 과거에 발생했거나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기준시점에 동시적이며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완료상 현재형의 전이 용법에서 동사의 형태는 현재시제의 의미를 보유하지만, 문맥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를 가리킬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어 동사 현재형의 시제 전이 현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불완료상 현재형의 전이 유형을 분류하였고 각 하위 유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시제 전이 현상의 개념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재성의 개념을 ‘과거나 미래로의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서 기준시점에서 유효한 상황의 시간성’으로 규정하였다. 시제 형태가 전이적으로 사용될 때, 동사의 형태적 시제 의미와 문맥의 시간성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시제 전이를 활성화하는 맥락적 수단이 자주 동반되며, 맥락의 의미와 일치하는 규범적인 시제 형태로 교체 가능한 공통의 특징이 있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사 현재형의 전이 현상의 개념을 ‘텍스트에 고정된 과거 또는 미래의 어

편 순간으로 이동한 기준시점과 동시성을 갖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Бондарко(1971)의 현재형의 전이 유형을 동사의 형태적 시제와 맥락적 시제의 상응관계를 고려하여 과거맥락의 현재형과 미래맥락의 현재형을 나누었고, 각각의 하위 유형으로 역사적 현재와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 예정된 행위의 현재와 가상적 행위의 현재를 분류하였다.

전이적 현재형의 하위 유형을 아우르는 기본 전제는 동사의 형태는 현재시제의 의미를 보유하지만, 문맥은 과거나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이 용법에서 현재형의 의미는 은유적 시간성으로 전환되어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기준시점에 동시적이며 관찰 가능한 사건으로 실제화한다. 이를 통해, 과거맥락에서 현재형은 묘사되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거나 사실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평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미래맥락에서는 행위 실현에 대한 확실성의 뉘앙스가 강조되거나 미래의 상황을 마치 이미 실현되는 듯 형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어 동사 현재형의 시제 전이 현상을 유형화하고, 전이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역사적 현재와 예정된 행위의 현재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감정적 실제화의 현재와 가상적 행위의 현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어 시제 전이 현상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자주 동반되는 맥락적 환경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 및 다양한 예문에서의 검증 등을 통해 시제의 전이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문맥 요소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남혜현(2013), “문법적 형태의 전위 연구: 러시아어 인칭대명사의 인칭/수형태의 전위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29(2). 131-159.
- _____ (2017), “문법적 전이와 문법적 은유에 대한 재고”, *슬라브어 연구* 22(2). 1-18.
- 이남경(2013), “러시아어 미래시제의 양상적 추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421-449.
- _____ (2018), “시간 조사 было, бывало 의 과거와 현재”, *노어노문학* 30(4). 37-62.
- 이인영(1993), “소위 “역사적 현재” 에 관하여: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8. 101-151.
- _____ (1997), *러시아어학 - 보다 현실적 접근을 찾아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 Богданов С.И., Евтюхин В.Б., Князев Ю.П., Смирнов Ю.Б., Рыжова М.Ю. В. & Воейкова М.Д.(2009), *Морф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ик для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Бондарко А.В.(1971), *Вид и время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значение и употребление)*. М., Изд. Просвещение.
- Годизова З.И. & Лю Х.(2018), “Перенос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форм времени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Lingua-universum* (3). 20-24.
- Грибещенко О.А.(2008), “Метафорическ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форм времени глагольных предикатов в предложениях с темпоральными детерминантами”, *Научная мысль Кавказа* 2(54). 93-96.
- Демчик Е.П. & Соколова Е.П.(2015), “Транспозиция форм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глаголов в русском, сербском и македонском языках”, *Альманах мировой науки* (2-2). 14-17.
- Егоров Д.С.(2014),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транспозиции глагольных форм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в контекст будущего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Фил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а* 4 (38). 75-78.
- Крылова А.С. & Сафронова Н.А.(2020), “О переносном употреблении форм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глагола”, *Государство. Общество. Церковь*. 319-324.
- Лабашева Н.А.(2009), “Основное, вторичное и метаф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ременной формы”, *Вестник Адыг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2: Филология и*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е 3. 177-181.

- Лайла П.(2015), “Связь между категорией модальности и переносным значением времени и наклонения глагола в изучен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Мир русского слова (2). 99-107.
- Никитинская Л.В.(2021), “К вопросу о семантических типах метафорических выражений”, Вопросы зарубежной филологии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135-139.
- Мосолова Г.П. & Каштанова П.В.(2016), “Специфика переносн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временных форм глагола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е Д. Рубиной и Л. Улицкой”, Гуманитарные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е (1). 118-121.
- Пешковский А.(2022),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Litres.
- Падучева Е.В.(2010), “К интерпретации видо-временных форм в нарративном режиме: настоящее историческое”, Компьютер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технологии (9). 375-381.
- Пуляйкина М.В.(2018), “Перенос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форм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Студент и наука (гуманитарный цикл). 452-456.
- Попова Е.И.(2019), “Семантическая обусловленность переносн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временных форм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Актуальные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2-3). 99-104.
- _____ (2021), “Контекстные основания транспозиции временных форм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Central Asian Journal of Literature, Philosophy and Culture 2(5). 150-155.
- Ремчукова Е.Н.(1997), “Понятие транспозиции, ее разновидности и функции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Труды по русской и славянской филологии. Лингвистика. 154-171.
- Тимофеев К.А.(1999), “О транспозиции временных форм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стория языка. Новосибирск,. 3-7. URL: <http://www.philology.ru/linguistics2/timofeyev-99.htm> (검색일: 2023-02-26)
- Шамилова З.М.(2017), “К вопросу об общем понятии транспозиции”,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гуманитарных и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2-1). 120-122.
- Шведова Н.Ю.(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1: Фонетика. Фонология. Ударение. Интонац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Морфология. М.: АН СССР.
- Ярцева В.Н.(Ed.)(1990),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러시아어 일성분문장의 주어성에 대한 연구: 무인칭문을 중심으로

Исследование субъектности в односостав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фокус на безлич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조서진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 3학기)

< 목 차 >

1. 서론
2. 주어와 인칭성의 개념
 - 2.1. 다양한 언어 층위에서 주어의 개념
 - 2.1.1. 문법적 주어
 - 2.1.2. 심리적 주어 (테마)
 - 2.1.3. 논리적(의미적) 주어
 - 2.2. 주어의 개념과 인칭성
 - 2.3. 주어의 자질과 주어성 검증 기제
 - 2.4. 러시아어에서 주어성 정의
 - 2.4.1. 이중요인적 접근법
 - 2.4.2. 다중요인적 접근법

1. 서론

러시아어 일성분문장(однососта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그 중에서도 ‘무인칭문(без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은 러시아 언어학계에서 흥미롭고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연구 대상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자들 사이의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무인칭문의 ‘주어성(субъектность)’ 및 ‘인칭성(личность)’에 대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지점이다.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가 준수되어 모든 절이 반드시 문법적 주어를 가져야만 하는 영어·프랑스어 등과는 달리, 러시아어에서는 소위 ‘무주어문(бесподлежащие предложения)’이 존재할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 무주어문의 발생 양상은 다양한데, 주로 ‘일성분문장’이나 ‘불완전 이성분문

장(неполные двусоста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불완전 이성분문장의 경우 담화·화용적(discourse-pragmatic) 기제로 인한 주성분의 생략이 이루어진 형태이므로, 생략이 이루어지기 전인 문장의 원형에 대해서는 생략 이전의 주성분을 복원하여 상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성분문장인데, 문장의 주성분 중 하나가 생략되었음에도 이성분문장과 같이 ‘완전한(полные)’ 문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문장이 생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주성분 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일성분문장 중에서도 ‘술어형 일성분문장’, 즉 문장의 주성분 중 소위 ‘주어’가 생략되고 ‘술어’만 나타나는 유형에는 무인칭문을 포함하여 ‘한정인칭문(определённо-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비한정인칭문(неопределённо-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일반인칭문(обобщённо-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미정형문(инфинити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등이 존재한다. 이때, 무인칭문과 기타 술어형 일성분문장을 분류하는 기준은 ‘행위주 복원 가능성’이 된다. 한정인칭문이나 미정형문은 행위주에 대한 명백한 특징이 이루어져 복원될 수 있고, 비한정인칭문이나 일반인칭문은 비록 정확한 특징은 불가능하지만 술어의 형태를 통해 행위주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인칭문에 대해서는 행위주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페쉬콥스키(Пешковский 2022: 343-344)는 무인칭문에 대하여 “발화(речь)뿐만 아니라 사고(мысль)에서도 주어와 제거된 문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민족언어학(ethnolinguistics) 또는 문화언어학(cultural linguistics)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특징, 예를 들면 ‘비합리성(иррациональность)’이나 ‘비통제성(неконтролируемость)’, ‘자연 중심적 사고’나 ‘숙명론적 태도’가 행위주나 경험주의 존재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무인칭문의 통사적 특성으로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Jarintzov 1916; Бежбицка 1996; 이인영 1997; 강성희 2005 등).

그러나, 술어에 의해 명명되는 행위나 경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주나 경험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무인칭문을 포함한 러시아어의 일성분문장의 ‘무주어성(бесподлежащность)’, 또는 ‘무인칭성(безличность)’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제시된 문장 유형에 대해서도 주어성 또는 인칭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인칭 및 주어와 관련한 개념을 검토한다. 특히, 주어를 그 기능이나 의미에 따라 ‘문법적(grammatical)’, ‘의미적(semantic)’, ‘심리적(psychological)’ 주어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이고, 러시아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어성 자질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자질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무인칭문의 정의를 살피고, 무인칭문이 속하는 대분류인 일성분문장의 기타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무인칭문이 다른 일성분문장, 특히 술어형 일성분문장과 구분되는 지점을 명확히 한다. 이후 무인칭문을 먼저 형태·통사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다시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새롭게 정립된 주어성의 개념과 자질을 활용함으로써 3장에서 세분화한 무인칭문의 주어성/인칭성 자질을 재검토하여 무인칭문 가운데에도 소위 ‘통사적 주어’를 인정할 수 있는 불완전 이성분문장에 해당하는 유형이 존재함을, 즉 전통문법적 관점에서 ‘무인칭문’으로 통칭했던 유

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주어와 인칭(성)의 개념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подлежащее’와 ‘субъект’의 두 가지가 사용된다. 전자는 문법적 주어, 후자는 논리·의미적 주어를 의미한다. 문법적 주어와 의미적 주어는 주어에 대한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문법적 주어는 주격(именительный падеж) 명사구만이 가능하고, 의미적 주어는 주격 명사구뿐만 아니라 사격(косвенный падеж)¹⁾ 명사구를 비롯하여 다른 수단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의 예문 (1)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의미적 주어로 기능한다.

- (1) a. Мой сын поступил в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우리 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b. От Сеула до Москвы очень далеко.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아주 멀다.)
c. Ходить по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опасно. (도로를 따라 걷는 것은 위험하다.)
d. Что он испугался, не удивительно.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e. Придёт он или нет, зависит от ряда обстоятельств. (그가 올지 안 올지는 여러 상황에 달려있다.)
f. Мне холодно. (나는 춥다.)

(예문 (1a)~(1e)는 김형섭 2014: 254에서 인용)

(1a)는 주격 명사구가, (1b)는 전치사구가, (1c)는 동사의 미정형(infinitive)이 이끄는 절이, (1d)는 보문소(complementizer) что가 이끄는 보문소절이, (1e)는 동사의 정형(finitive)이 이끄는 절이, 마지막으로 (1f)는 여격 명사(구)가 문장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된다. 이 중, 전통적 개념에서 문법적 주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주격 명사구가 사용된 예문 (1a)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주어, 적어도 문법적 주어를 지나치게 단순한 개념으로 포착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문법적 주어와 의미적 주어의 상관관계, 러시아어에서의 문법적 주어와 의미적 주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법적 주어와 의미적 주어란 무엇이며,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1) 사격에 대비되는 용어로는 직격(прямой падеж)이 사용된다. 직격에 주격과 대격을 포함하는 견해와, 주격만을 포함하는 견해가 모두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직격에 주격만이, 사격에 주격을 제외한 5개의 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2.1. 다양한 언어 층위에서 주어의 개념

기능 문법(Functional Grammar)의 주창자인 할리데이(Halliday 2014: 79)는 주어를 ‘문법적 주어(grammatical Subject)’, ‘심리적 주어(psychological Subject)’, ‘논리적 주어(logical Subject)’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문법적 주어란 “무엇인가 서술되는 것(something is predicated)”을 의미한다. 이때의 문법적 주어와 술어(Predicate) 사이의 관계는 순전히 형식적인 문법적 관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문법적’이라는 용어가 붙는다. 다음으로, 심리적 주어란 “메시지의 관심사(the concern of the message)”를 의미한다. 화자가 절을 생성해 내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머릿속에 생각했던 요소이므로, ‘심리적’이라는 용어가 붙는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논리적 주어란 “행동의 수행자(doer of the action)”를 의미한다. ‘논리적’이라는 용어는 기호(symbol)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 ‘문법적’과는 달리, 대상(things)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 붙은 용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법적 주어는 ‘주어(Subject)’, 심리적 주어는 ‘테마(Theme)’, 논리적 주어는 ‘행동주(Actor)’와 각각 상응하는 개념이 된다. 먼저, 테마는 ‘메시지로서의 절(clause as a message)’ 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이때 테마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기반(ground)으로 선택한 요소로, 메시지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으로, 주어는 ‘소통/교환으로서의 절(clause as exchange)’ 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에서 주어는 교환의 보증인(warranty), 즉 화자가 말하는 내용의 유효성(validity)을 증명해줄 수 있는 요소로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주는 ‘표상으로서의 절(clause as representation)’ 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진행 중인 인간의 경험을 과정적으로 표상하는 의미를 갖는 절 내에서 행동주는 그 과정의 능동적 참여자(active participant), 즉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 ‘주어적 요소’로 기능하는 세 가지 주어가 하나의 동일한 성분에 대해 사상(mapping)되는 경우가 가장 무표적이라면, 모두 다른 성분에 대해 사상되는 경우가 가장 유표적이다. 예문 (2)의 무표적 구조 및 그 변이형²⁾을 통해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를 조금 더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The duke gave my aunt this teapot. (공작은 우리 이모에게 이 주전자를 주었다.)

a. 무표적 구조

<u>The duke</u>	<u>gave</u>	<u>my aunt</u>	<u>this teapot</u>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			

2) 더 많은 변이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본고에는 가능한 모든 변이형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b. 변이형 A

<u>my aunt</u>	<u>was given</u>	<u>this teapot</u>	<u>by the duke</u>
심리적 주어			논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c. 변이형 B

<u>this teapot</u>	<u>my aunt</u>	<u>was given</u>	<u>by the duke</u>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

이처럼, 문장에서 세 가지의 주어적 요소는 모두 일치하거나 일부 요소만 일치할 수도 있으며, 모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의 각 층위에서의 주어적 요소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2.1.1. 문법적 주어

문법적 주어는 ‘문장의 문법적 성분분석(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членение предложения)’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장성분(ч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에는 주어(подлежащее), 서술어(сказуемое), 보어(дополнение), 한정어(обстоятельство)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는 문장의 각 요소가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통사적 기능에 따라 성분을 분석한 것이다. 언어유형론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어는 SVO 어순을 갖는 언어로 분석될 수 있다. 비록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가장 중립적인 어순이 SVO, 즉 주어(подлежащее) – 서술어(сказуемое) – 직접 보어(прямое дополнение)의 순서가 된다(Bailyn 2012; Greenberg 1963; Sirotinina 2003 등). 이로 인해 문장의 가장 왼쪽, 즉 문두에 나타나는 성분이 주어로 정의되기도 하며 (Keenan 1976: 319), 이때의 주어는 술어와 성(gender), 수(number) 및 인칭(person)과 같은 일치자질(phi-features; φ-features)에 대하여 일치(agreement) 관계를 보인다.

2.1.2. 심리적 주어 (테마)

심리적 주어는 ‘문장의 실제적 성분분석(актуальное членение предложения)’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테마(theme, тема)와 레마(rheme, рема)가 구분되는데, 이는 문장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분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테마는 이미 알려진 구정보(данное)에 해당하고, 레마는 새롭게 알게 되는 신정보(новое)에 해당한다. 테마와 레마는 각각 심리적 주어와 심리적 술어로 명

명할 수 있다. 문장의 정보 구조는 문장의 어순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심리적 주어는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적고, 새로운 정보를 위한 사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두에 위치한다. 이와 달리 심리적 술어는 청자에게는 새로운 정보이므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며, 구정보에 새롭게 덧붙이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테마보다 후위에 자리하게 된다(Mathesius 1939; Adamec 1966 등). 어순의 이러한 전형성으로 인해, 심리적 주어와 통사적 주어는 서로 일치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그러나, 문장 내 정보 구조의 배열은 문장의 생성자인 화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화자는 소통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어순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문법적 주어와 심리적 주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문장을 테마와 레마의 두 부분으로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테마와 레마를 분리할 수 있는 문장을 분리문(расчлене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문장을 비분리문(нерасчлене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³⁾으로 부를 수 있는데, 비분리문의 경우 테마는 없고 레마만 존재하며, 이를 전언적(thetic; ∅-Theme) 문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2.1.3. 논리적(의미적) 주어

마지막으로 논리적 주어는 흔히 말하는 ‘의미적 주어(semantic subject)’와 가장 연관이 깊은 개념이다. 무인칭문의 주어를 논의함에 있어서 논리적 주어는 세 가지 유형의 주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논리적 주어는 필모어(Fillmore 1967 등)의 격 문법(Case Grammar)에서 제안되는 심층격(deep case) 이론, 또는 그루버(Gruber 1965)나 다우티(Dowty 1991) 등이 주장한 의미역(semantic roles) 이론에 가깝다. 두 이론은 결론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전자는 형태·통사적 개념에, 후자는 의미적 개념에 해당한다. 의미역은 의미(역) 관계(thematic relations)에 기반하는데, 의미 관계는 “논항(argument)이 서술어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 관계”를 의미하며(Carnie 2012: 229) 그 역할의 목록으로 제시되는 것이 의미 역할, 또는 의미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마다 의미역은 다소 상이하게 구분되지만⁴⁾, 다음 (3)을 일반적인 의미역 분류로 간주할 수 있다.

3) 코브투노바(Ковтунова 1980: 195)에 따르면, 비분리문은 ‘의사소통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문장(коммуникативно нерасчлене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심리적 주어를 논의하기 위한 개념 자체가 소통 문법적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가 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겠지만, 아프레샨(Апресян 1995: 125-126)은 25개의 의미역을 제시한 바 있다. 목록에 ‘субъект’나 ‘объект’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논항의 통사적 위치 및 의사소통적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가 된다(황서경 2005: 259). 의미역이 술어와 논항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의미역을 ‘통사적 결합가(syntactic valency)’로 해석하는 견해 역시도 찾아볼 수 있다.

- (3) 의미역 분류 (Gerritsen 1992: 30; Haegeman 1994: 49; Carnie 2012: 229-231 등)
- a. 행위주(Agent, A):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주체⁵⁾
 - b. 피행위주(Patient, P):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
 - c. 대상(Theme, T):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으로 인해 움직여진 사람이나 사물
 - d. 경험주(Experiencer, Exp): 술어가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 개체
 - e. 수혜주(Benefactive/Beneficiary, B):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의 혜택을 받는 개체
 - f. 목표점(Goal, G): 술어가 나타내는 활동이 방향 지어진 개체
 - g. 출발점(Source, S): 술어가 나타내는 활동의 결과로 무언가가 개체로부터 움직일 때, 그 개체
 - h. 장소(Locative/Location, L):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가 처해 있는 위치
 - i. 도구(Instrument, Inst): 행동을 수행하거나, 행동이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데 수단으로 사용되는 개체
 - j. 사역주(Cause/Causer, C): 다른 개체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이나 행동의 시발자 또는 원인

아래 예문 (4)을 통해 실제 의미역이 술어에 대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 (4) a. John_{Agent} put the book_{Theme} on the table_{Goal} (with a pair of tongs_{Instrument}).

(존은 책상 위에 책을 집게로 놓아 두었다.)

(Carnie 2012: 234에서 인용)

- b. Megan_{Experiencer} loves Kevin_{Theme}.

(메간은 케빈을 사랑한다.)

(Carnie 2012: 235에서 인용)

카니(Carnie 2012: 233-236)에 따르면, 의미역은 ‘외논항 의미역 역할(external theta role)’과 ‘내논항 의미역 역할(internal theta role)’로 구분된다⁶⁾. 일반적으로 전자는 주어 위치에, 후자는 (간접) 목적어 위치

5) 할리데이(Halliday 2014)에서 논리적 주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제안된 ‘행동주(Actor)’는 ‘행위주(Agent)’와 유사한 개념이다. ‘행동주’ 개념은 자켄도프(Jackendoff 1990: 258)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자켄도프는 의미역의 층위(tier)를 ‘주제 층위(thematic tier)’와 ‘행동 층위(action tier)’로 나누어야 함을 역설했다. 주제 층위는 움직임 또는 장소와 관련이 있으며, 행동 층위는 행동의 주체와 행동의 객체와 관련이 있다. 자켄도프의 관점에서는 행동 층위의 의미역이 선행하며, 주제 층위의 의미역은 후행한다. 다른 학자들의 의미역 위계를 고려해보았을 때, 자켄도프가 제안한 행동주를 행위주(A)로 이해함에는 큰 무리가 없으며,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할리데이의 행동주 역시 행위주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은 동사구(VP) 내부에서 동사구를 구성하면서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정의되고,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은 동사구(VP) 외부에서 동사구에 의해 서술되는 성분으로 정의된다(이종현 2000: 9). 이러한 설명 방법은 투사(projection) 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에 부여되는 의미역으로 볼 수 있다. 의미역, 그 중에서도 외논항 의미역 역할은 (통사적) 주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위 ‘의미역 위계(thematic hierarchy)’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의미역 위계는 자켄도프(Jackendoff 1972)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으로, 둘 이상의 논항이 하나의 문장에서 등장할 때, 위계가 높은 의미역이 우선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주어의 전형적인 통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논항이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미역 위계는 주어를 선택하는 규칙과도 유사하게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학자들마다 의미역 위계는 상이하게 설정된다. 몇몇 학자들의 의미역 위계를 (5)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5) a. 자켄도프(Jackendoff 1972: 43)

행위주(A) > 장소(L)/출발점(S)/목표(G) > 대상(T)

b. 브레스난과 카네르바(Bresnan & Kanerva 1989: 23)

행위주(A) > 수혜주(B) > 수신주(Recipient)/경험주(Exp) > 도구(Inst) > 피행위주(P)/대상(T)
> 장소(L)

c. 반 발린(van Valin 1990: 226)

행위주(A) > 영향주(Effector) > 경험주(Exp) > 위치(L) > 대상(T) > 피행위주(P)

d. 스피어스(Speas 1990: 16)

행위주(A) > 경험주(Exp) > 대상(T) > 장소(L)/출발점(S)/목표(G) > 방법(Manner)/시간(Time)

e. 그림쇼(Grimshaw 1990: 8)

행위주(A) > 경험주(Exp) > 장소(L)/출발점(S)/목표(G) > 대상(T)

한 문장에 동일한 의미역을 갖는 논항이 여러 개 등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층적으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미역 위계와 더불어 ‘의미역 기준(theta criterion)’과 ‘동일 의미역 배당 가설(Uniform Theta Assignment Hypothesis)’을 참고할 수 있다. 의미역 기준은 (6)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의미역 기준

- a. 각 논항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 개의 의미역만이 부여된다.
- b. 각 의미역은 오로지 한 개의 논항에만 부여된다.

논항과 의미역 사이에는 반드시 일대일 대응이 요구되며, 한 문장에서 동일한 의미역을 갖는 논항이 두

개 이상 나올 수 없음이 의미역 기준을 통해 명확해진다. 개별 문장에서, 의미역 기준을 준수하며 위계에 따라 논항에 대해 의미역이 부여된다는 내용의 가설이 ‘동일 의미역 배당 가설’의 내용이다.

학자마다 비록 의미역 위계를 상이하게 구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통적으로 행위주(A)가 가장 높은 위계를 차지한다. 즉, 문장에 나타나는 행위주(A)는 전형적으로 주어가 된다. 만약 행위주가 문장에서 부재한다면, 주어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의미역은 경험주(Exp)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경험주는 범언어적으로는 많은 심리술어(psychological verbs)⁷⁾와, 러시아어에 대해서는 상태 범주(категория состояния)에 대해 (의미적) 주어로 기능한다. 예문 (7)은 한국어, 영어 및 러시아어의 예시를 나열한 것으로, 한국어의 술어 ‘좋다’, 영어의 술어 ‘admire’, 러시아어의 상태범주 ‘холодно’는 의미상 주어로 의미역 Exp를 요구한다.

- (7) a. 나는 따뜻한 날씨가 좋아.
b. I admire you.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c. Мне очень холодно. (나 너무 추워.)

살펴본 바와 같이, 문법적 주어는 문장의 통사적 측면을, 심리적 주어는 문장의 담화-화용적 및 소통적 측면을, 논리적 주어는 문장의 의미적 측면을 고려한 주어의 분류이다. 위와 같은 문법적 주어, 의미적 주어, 심리적 주어는 ‘주어성’이라는 상위의 개념을 형성하는 하위 범주이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어성의 각 하위 범주에 대한 개별적이고 단절된 이해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러시아어에서 주어와 문법적 주어를 거의 동일시했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주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의 자질들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비교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주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어성의 관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무인칭문을 대상으로 주어성의 자질을 검증하고자 한다.

2.2. 주어의 개념과 인칭성

‘인칭(лицо)’과 ‘인칭성(личность)’의 관계는 ‘시제(время)’와 ‘시간성(темпоральность)’, ‘상(вид)’과 ‘상성(аспектуальность)’의 관계와 같다. 시간성이나 상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각각 시제와 상인 것처럼, 인칭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칭을 떠올릴 수 있다.

설명에 앞서, 인칭성/무인칭성 범주에 대해서는 용어 ‘личность/безличность’ 외에도 ‘персональность/имперсональность’가 사용될 수 있다(Худяков 2005, Попова и др. 2001 등). 해당 용어는 영어의

7) 일반적으로 ‘심리술어’는 인식이나 감정·정서적 경험 및 판단 등을 나타내는 술어로 정의된다. 해당 술어의 주어를 행위주(A)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주로 심리술어가 명명하는 상태(state)는 사람의 생각과 같이 내적인 상태(inner state)를 표상하므로, 행위주가 아닌 경험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im)personality를 러시아어로 음역한 차용어로 볼 수 있는데, (без)личность와 (им)персональность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동일하다. 조어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용어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영어에서의 ‘person’이 러시아어에서의 ‘лицо’와 마찬가지로 인칭 범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어에서 персона는 인칭 범주를 의미하기보다는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운데, 이러한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오히려 일성분문장에서의 인칭성/무인칭성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им)персональность가 더욱 적합한 용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성분문장에서 (문법적) 주어가 생략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행위주(A)의 상정 불가능성으로 인함인데, 이로 인해 실제로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인 어떤 사람이 문장 층위에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без)агентивность’ 또는 ‘(non-)agentivity’, 즉 ‘(비)행위주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인칭문에 대해서 ‘без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바, 본고에서 또한 (без)личность라는 용어를 따르고자 한다.

인칭은 발화 행위의 참여자에 대해 (주어로 표현된) 동작이 맺는 관련성 또는 비관련성을 표현하는 서로 대립되는 일련의 형태 체계를 의미한다(АГ80 I: §1516). 화자를 표현하는 1인칭, 청자를 표현하는 2인칭, 화·청자를 제외한 대상 또는 무생물을 표현하는 3인칭으로 구분되는데, 1인칭과 2인칭은 행위와 화행 참여자 간의 관련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 인칭적(собственно-личные)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 3인칭은 이러한 관련성을 포착할 수는 없어 대상 인칭적(предметно-личные) 의미를 갖는다. 3인칭 형태를 사용하면 술어에 의해 명명되는 동작이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 구문 형태가 비한정인칭문이 된다.

인칭성(личность)/무인칭성(безличность)은 언어 보편적인 의미-통사적 범주로서, 문장의 의미적 주체(субъект)를 외부 세계의 대상, 즉 지시체(референт)과 연관시키는 동시에, 해당 대상의 시·공간적 분리성(выделенность) 또는 개별성(отдельность)의 정도를 표현한다(ЛЭС 1990: 272, Худяков 2005: 190 등). 이는 동사에 대한 분류범주(классификационные категории)로⁸⁾, 인칭 범주에 대한 관계, 문법적 결합성 및 통사적 기능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남혜현 2017: 12). 인칭성의 전형적인 표현 수단은 인칭 동사(личные глаголы)로, 인칭 범주(категория лица)와 수 범주(категория числа)에 따른 동사의 활용형이 구성하는 파라디그마(парадигма)가 주로 주격으로 나타난 주어와 결합함으로써 인칭성이 발현된다. 이와 달리, 무인칭성의 전형적 표현 수단은 소위 무인칭 동사(безличные глаголы)로, 일반적으로 무인칭 동사의 활용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3인칭 단수 중성형만 존재한다. 무인칭 동사를 사용하면

8) 러시아어의 문법범주는 크게 어형변화범주와 분류범주로 구분된다. 문법범주(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категории)는 동질적이면서도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형태론적 형태들의 서로 대립되는 행렬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하는데(Бондарко 1976: 10-11), 동일한 어형에서 서로 대립되는 문법적 범주 의미가 동시에 표현될 수는 없다(Плунгян 2000: 107-109). 어형변화범주(словоизменяемые категории)는 인칭, 수, 격, 시제, 법등과 같이 단어가 어형변화할 때 그 이유가 되는 문법범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분류범주는 어떤 어휘장(лексические поля)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상의미로, 명사의 성(род)이나 활성성(одушевленность), 동사의 자동성(непереходность)/타동성(переходность)이나 인칭성/무인칭성 등이 그 예시가 된다.

주로 사람이나 자연 및 환경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인칭, 즉 인간의 의지적 행위와는 무관하다. 무인칭 동사 이외에도 상태범주(категория состояния) 어휘, 인칭 동사에 후치사 -ся/сь를 부착한 형태의 어휘 및 피동형동사의 단형 등을 통해서 무인칭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무인칭문의 전형적인 표현 수단과도 일치한다.

인칭성 범주와 무인칭성 범주 간에는 상호 전이가 가능하다. 인칭 동사를 무인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물체화/대상화(объективизация)’ 시킬 수 있으며, 무인칭동사를 1인칭 또는 2인칭 형태의 동사로 어형변화하여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의인화(персонификация)’ 시킬 수도 있게 된다.

(8) Ветром унесло лодку. (바람에 의해 배가 움직였다.)

예문 (8)은 행위동사 ‘уносить-унести’를 의도적으로 무인칭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개입하지 않는, 자연력(стихия)에 의한 상태변화임을 의미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인칭성/무인칭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일성분문장, 특히 무인칭문의 주어성 연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칭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무인칭문에 대해서, 전통적 연구에서는 무인칭문의 의미적 특성으로 무인칭성만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리 동사나 상태 범주 등과 같이 특정한 경험이 동사로 표상되는 경우에 통사적 위치상으로 주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경험주’에게도 인칭성이 부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Мне скучно.” 와 같은 예문의 경우, 나를 지루하게 만든 대상은 의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칭성이 발현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혹은 상태범주 어휘인 ‘скучно’를 경험하고 지각하는 주체가 여격 명사 ‘мне’이기 때문에 인칭성이 발현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전자는 인칭성을 다소 좁게 이해하는 경우라면, 후자는 인칭성을 넓게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칭성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것이며,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러시아어에서의 주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3. 주어성 자질과 주어성 검증 기제

서로 다른 언어 층위에서의 주어와 관련한 문제는 러시아어에만 국한된 사실은 아니다. 한국어에서도 주어와 관련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기제로 인해 주어가 생략되는 주어 생략 구문이 빈번하게 관찰되어 러시아어와 완전히 동일한 유형의 현상으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소위 ‘이중 주어 구문(dual-subject constructions)’이나 ‘주격 중출 구문(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에서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이중 주어 구문으로는 다음 (9)와 같은 예문을 떠올릴 수 있다.

- (9) a. 토끼_{NP1}가 꾀_{NP2}가 많다.
 b. 철수_{NP1}가 키_{NP2}가 크다.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등이 붙으면 문장에서 주어로 기능하게 되는데, 예문 (8)에서는 NP1과 NP2에 모두 주격 조사가 부착되어 있다. NP1과 NP2 모두 문장에서 주어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보다 두 명사에 모두 주격 조사가 부착되어 문장에서 주격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러한 문장을 이중 주어 구문 또는 주격 중출 구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NP1과 NP2를 모두 주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어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다양한 견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일규(2022) 참고). 두 명사구 NP1과 NP2를 모두 주어로 간주하는 견해(Chae & Kim 2008 등), NP1을 주어로 간주하고 NP2는 목적어나 보어로 간주하는 견해(목정수 2018 등), NP1을 대주어(major subject)로 간주하고 NP2를 문법적 주어(grammatical subject)로 간주하는 견해(Yoon 2015 등), NP1을 통사적/문법적 주제(syntactic/grammatical topic)로 간주하고 NP2를 주어로 간주하는 견해(임홍빈 2007 등), NP1을 부가어(adjuncts)로 간주하고 NP2를 주어로 간주하는 견해(홍기선 2014 등)와 같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통일된 분석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도 임홍빈(2007)이 제시한 견해는 본고에서 제시된 다층위적 주어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주제(topic)’ 개념은 심리적 주어인 ‘테마’와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임홍빈(2007: 135)는 주제를 “‘무엇’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한다고 하였을 때, 주제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대하여성(aboutness)’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테마(theme) - 레마(rheme)’ 구분은 ‘구정보(old) - 신정보(new)’, ‘초점(focus)/주제(topic) - 평언(comment)’ 구분과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거의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임홍빈(2007)의 분석을 따르자면 주격 중출 구문의 예문 (8)에서 NP1은 심리적 주어가 되며, NP2는 문법적 주어가 되는 것이다. 상술된 다양한 견해에서, 두 NP 성분 중 특정한 성분이 주어로 기능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주어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어성 검증 기제(Subjecthood test, 이하 S-Test)’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가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통사적 자질들을 어떤 NP가 상당 부분 보유한다면, 그 NP를 주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언어마다 주어가 보이는 통사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 대해 S-Test가 일치할 수는 없으나, 언어보편적으로 주어가 공유하는 몇 가지 자질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키난(Keenan 1976)은 ‘주어 자질 목록(Subject Properties List, SPL)’을 제시하여, 주어가 갖는 언어보편적인 통사적 현상을 기술하였다.

키난은 주어를 정의하기 위해 수많은 문장들 중 의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문장(Basic Sentences, b-sentences)’을 정의하였으며, 기본문장의 주어를 ‘기본주어(Basic Subjects, b-subjects)’로 설정하였다. 기본문장에서 어떤 명사구(NP)는 아래에 나열하게 될 SPL의 과반수를 자질로 보유하거나, 또는

다른 NP에 비해 비교적 많은 SPL을 자질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의 NP를 기본주어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주어의 정도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완전하게 주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키난의 이러한 시도는 소위 ‘주어’가 갖는 언어보편적인 자질들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자질은 크게 ‘자율 자질(Autonomy Properties)’, ‘격 표지 자질(Case Marking Properties)’, ‘의미역 (Semantic Roles)’, ‘직접 지배(Immediate Dominance)’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자질에 대해서는 아래 (10A)-(10D)에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예문을 통해 입증이 필요한 경우는 키난이 제시한 예문을 활용하여 설명을 덧붙였음을 밝힌다. 또한, 자질의 기술에서 사용되는 용어 ‘주어’와 ‘문장’은 모두 ‘기본주어’와 ‘기본문장’을 의미함을 밝힌다.

(10) 키난(Keenan 1976)의 주어 자질 목록(Subject Properties List)

A. 자율 자질(Autonomy Properties)

a. 독립 존재성(Independent Existence): 주어는 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나 특성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A student writes a poem.”에서, 주어 A student는 술어 write가 명명하는 행위와 무관히 존재하지만, 목적어 a poem은 술어 write가 명명하는 행위의 결과로만 존재할 수 있다.

b. 필수 불가결성(Indispensability): 비주어 요소와 달리, 주어는 문장에서 생략되면 비문이 되는 필수 성분이다. 예문 “John hunts lion (for a living).”, “John hunts (for a living).”에서 목적어 lion의 생략은 비문을 만들지 않지만, “*Hunts lions (for a living).”에서 주어 John의 생략은 비문을 만든다.

c. 자율 지시성(Autonomous Reference):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referent)는 발화의 순간에 청자에 의해 식별 가능해야 하며, 주어의 뒤를 따르는 NP의 지시체에 의존할 수 없다. 한 문장 내에서 두 NP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면, 주어는 유표적(marked)으로 나타날 수 없고 생략될 수도 없다. 즉, “*He-self admires John.”은 비문이 되며, “John admires himself.”는 가능하다. 자율 지시성의 하위 항목으로는 다음의 18가지가 있다.

c-1. 주어는 다음 공지시(coreference)의 지배 성분이 될 수 있다.

① 재귀대명사(reflexive pronouns)

② 공지시적 생략(coreferential deletion) 및 대명사화(pronominalization)

- John_i talked to Bill_j for awhile and then he_{i, j} left. [대명사화]

- John_i talked to Bill_j for awhile and then ∅_{i, j} left. [공지시적 생략]

③ 역행(backward) 대명사화 및 역행 공지시적 생략

- When he_{i, j} got home, John_i talked to Bill_j. [역행 대명사화]

- On ∅_{i, j} arriving home, John_i talked with Bill_j. [역행 공지시적 생략]

c-2. 주어는 전환지시(switch reference) 표지의 통제자로 기능하는 NP이다.

- c-3. 주어는 동사 일치(verb agreement)의 통제자로 기능하는 NP이다.
- c-4. 주어는 절(clause)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지시적 성분으로 기능하는 NP이다.
 - 사고(thinking) 동사의 보어 절에서 채귀대명사가 모절(matrix clause)의 NP에 의해 결속될 수 있다면, 채귀대명사는 항상 보어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난다.
 - 모절의 NP와 보어가 공지시적일 때, 주어는 문장에서 공지시적 생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주어는 등위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s)를 뛰어넘어 공지시적 생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주어는 동사의 연속적 구성(verb serialization) 하에서 공지시적 생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c-5. 절대적 지시성(Absolute Reference)
 - 문장이 참이라면, 주어에 의해 지시되는 (구체적/추상적) 개체 또는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 만일 주어가 비한정적(indefinite)이라면, 주어의 자질을 갖는 목적어가 있더라도 목적어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시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날씨 표현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시성이 주어성의 필수적 조건이 될 수 없다.
- c-6. 전제적 지시성(Presupposed Reference)
 - 일반적으로 지시적인 NP는 부정화(negation), 의문화(questioning), 조건화(conditionalization) 과정에서 지시성이 유보되지만, 주어의 지시체는 보통 유보되지 않고 전제화된다.
 - 비한정적 주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의 함축 여부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 c-7. 은유적 관용어구(Metaphoric Idioms): 관용어구에서, NP의 지시 및 존재 함축은 유보된다.
- c-8. 주제(Topic): 일반적으로 주어는 문장의 주제,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체는 화·청자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 c-9.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s), 고유명사(proper nouns), 지시사(demonstratives)와 같이 지시성이 높은(highly referential) NP는 주어가 될 수 있다.
- c-10. 주어는 승진 변형(advancement transform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절 내의 한 NP에 대하여, 다른 NP에 적절한 (주어의) 위치, 격 표지 및 동사 일치와 같은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의 자질을 비주어에 할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주어는 주어의 위치로 승진된다.
- c-11. 주어는 비주어에 비해 넓은 범위를 갖는다.
- c-12. 일반적으로 주어는 문장의 가장 좌측에서 나타난다.
- c-13. 주어는 관계절화(relativize), 의문화 및 분열문(cleft)화 될 수 있는 NP이다.
- c-14. 주어는 그 소유주가 관계절화, 의문화 및 분열문화 될 수 있는 NP이다.
- c-15. 관계절화된 위치에서 인칭대명사는 주어의 위치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c-16. 주어는 인상(raising)될 수 있는 NP이다.
- c-17. 주어는 형태적으로 독립적인 (강조) 대명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명사는 완

전한 NP와 결합할 수 있다.

c-18. 주어는 유동 양화사(floating quantifiers)를 출발시키는 NP이다.

B. 격 표시 자질(Case Marking Properties)

- a. 자동사(intransitive) 구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격 표시가 부재한다. (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 b. 주어는 사동화(causativization)에 따라 격 표시가 변경되는 NP이다.
- c. 주어는 행위명사 – 주로 소유주나 비주어 행위주 – 로 격 표시를 변경할 수 있는 NP이다.

C. 의미역(Semantic Roles)

- a. 주어의 의미역 — A, E 등 — 은 주동사(main verb)의 형태로부터 예측 가능하다. 유정성(animacy)과 같은 의미 범주 정보 또한 예측 가능하지만, 목적어의 의미가 주어의 의미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 b. 일반적으로 주어는 행위주를 표현한다. (문장에 행위주가 없는 경우에는 주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자질이다.)
 - c. 일반적으로 주어는 명령문의 수신인(청자)를 표현한다.
 - d. 일반적으로 주어는 사역 구문(causative sentence)에서 사역주(causer) NP와 동일한 위치, 격 표시, 동사 일치를 공유한다.

D. 직접 지배(Immediate Dominance)

- a. 주어는 뿌리 절점(root node) S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받는다. 그러나, 아래의 세 경우는 한 문장에서 뿌리 절점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NP가 하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a-1. 무표적 어순이 VSO인 경우
 - a-2. 주어와 목적어의 상대적인 위치가 자유로운 경우
 - a-3. 동사구 성분성(VP-constituency)이 SVO에서만 나타나고, SOV 언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는 다요인적 개념(multi-factor concept)으로, 제시된 SPL 중 다른 NP에 비해 많은 수의 자질을 보유하는 NP를 주어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키난의 SPL이 갖는 의미는 주어에 대한 언어 보편적 자질을 도출하고자 했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SPL의 모든 자질이 러시아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0-A-a)의 자질 ‘필수불가결성’의 경우에는, 러시아어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무주어구문이 생산적으로 발생하는 러시아어에서, 주어 성분은 필수 성분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0-A-c-3)에서 제시된 ‘동사 일치

지배 성분으로서의 주어' 자질의 경우도 러시아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다. 러시아어에서 주어와 동사 간의 일치는 상호 영향적이다. 예를 들어, 문장 “Я говорю.”에서, 동사의 1인칭 단수 활용 형태인 говорю는 주어인 1인칭 대명사 я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동사의 1인칭 단수 활용 형태 говорю가 주어로 я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장 “Он говорил.”에서, говорил은 동사의 과거 시제 남성형으로 실현되었다. 이 형태는 주어 он이 남성이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사 활용형 говорил이 주어로 он을 필요로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가 동사의 형태를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도 주어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러시아어 통사론에서는 주어-술어 관계를 일방적 지배관계가 아닌 ‘상호의존관계(координация)’로 간주한다.

또한, 자질 중 몇 가지는 단순히 주어 NP의 특성을 기술할 뿐, 주어성 검증 기제로 삼기에는 빈약하다. 예를 들어, 자질 (10-A-c-11)의 경우 단순히 주어 NP가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넓다고만 기술하고 있지, 이 자체만으로 주어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는 없다. 자질 (10-A-c-12)의 경우도 문장의 가장 좌측에 나타나는 NP를 주어로 간주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향성(tendency)에 대한 논의로 주어성 검증 기제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다음 2.4장에서는 러시아어에서 전통적으로 무주어문으로 간주되던 몇몇 문장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무주어문, 특히 무인칭문의 주어성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러시아어의 주어성 검증 기제를 검토하여, 이를 통해 키난의 주어성 자질에서 러시아어에 적용 가능한, 그리고 반드시 적용해야 할 자질들을 선택하고자 한다.

2.4. 러시아어에서 주어성 정의

러시아어에서, 소위 “주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왔다. 문장의 주어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문법적 주어에만 주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어의 주어는 매우 협소하게 이해되었으며 오로지 주격으로 실현된 명사만을 문장의 주어로 인정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어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주어를 이룰 수 있는 몇 가지의 자질(properties)을 동원함으로써 주어를 살펴보는 연구가 출현했다. 소위 ‘주어성(subjecthood; подлежащност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록 문장에 문법적 주어, 즉 통사적으로 표층에 실현된 주격 주어는 없더라도 주어성이 가장 높은 NP를 문장의 주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자의 접근 방법은 주어에 대해 ‘격(падеж)’과 ‘일치(согласование)’라는 두 개의 요인만을 채택한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 두 요인 이외의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을 통해 주어를 판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4.1장과 2.4.2장에서는 각각 러시아어 주어에 대한 이중요인적 접근법과 다중요인적 접근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4.1. 이중요인적 접근법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 문법적 주어는 명사의 주격 형태로 표현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으며(АГ 80 II: §2241), 동사와의 일치를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어에 대한 이중요인적 접근(двухфакторный подход)으로, 테스텔레츠(Тестелец 2001)의 주장에 이러한 접근법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주격’과 ‘동사 일치 통제’의 두 가지 요인만을 주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11) 러시아어의 주어성 자질 (Тестелец 2001: 318-319)

- a. 통사적 주어는 주격으로 형성된다.
- b. 통사적 주어는 인칭, 수 및 성 범주에 따라 정형동사(finite verb)와의 일치를 통제한다.

위의 주어성 자질은 주어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여 제시된 것이다. 즉, 세 가지 주어의 유형 중 문법적 주어만을 주어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러시아어나 영어는 주어-술어 간 일치(Subject-Predicate Agreement, SPA)⁹⁾가 발생하는 언어로, 주어는 일치의 통제 성분(agreement controller), 술어는 일치의 목표 성분(agreement target)이 되어 성·수·인칭으로 대표되는 일치자질을 공유한다.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주어, 즉 외논항은 시제구(TP) 또는 굴절소구(IP)의 지정어, 즉 [Spec, TP]나 [Spec, IP]인 보문사구(DP)에 위치하게 되고, 모든 DP에는 격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격 여과(case filter)’ 원리에 의거하여 어떠한 격이 부여되는데, 이 때 [Spec, TP] 또는 [Spec, IP]의 위치에 부여되는 격이 주격이 되는 것이다(Carnie 2012: 337-338)¹⁰⁾.

SPA가 발생하는 언어에서 주어의 위치에 전형적으로 주격이 할당되는 것은, 통사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격’만을 주어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어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은 접근 방법이다. 모든 절이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즉 [Spec, TP]는 DP 나 절(CP)로 채워져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EPP)가 엄격하게 준수되는 영어, 이탈리아 등에서는 주어가 없는 구문에 대해서도 [Spec, TP] 위치에 허사를 삽입하는 허사삽입규칙(expletive insertion rule)이 준수된다. 따라서, 영어에서 “rain.”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지만 “It rains.”은 형식적으로나마 주어가 있

9) 일치(agreement; согласование)는 어결합(словосочетание)에서 발생하는 통사적 연결(связь)의 일종이다. 주어와 술어 간의 결합은 소위 ‘서술적 연결’로, 어결합을 넓게 이해한다면 서술적 연결이 포함될 수 있지만, 어결합을 좁게 이해할 경우 서술적 연결은 포함될 수 없다. 본고에서의 일치는 한정어(의존어)와 형태가 피한정어(지배어)의 형태를 성, 수, 격 범주에서 닮아가는 통사적 연결로서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술어가 일치 자질을 서로 공유하며 닮아가는 현상으로 한정하여 논의한다.

10) 주격 주어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다른 방식의 설명 또한 가능하다. 시제투사구(T')의 핵어인 T는 [격: 주격], [μ Tense:], [EPP] 자질을 가지며, vP는 의미역 A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Spec, TP] 자리에 명사를 인상(raise)시키는 자질 [EPP]와 자질 [격: 주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어는 주격 명사로 나타나게 되며, vP의 [tense:] 자질이 그대로 복사되어 보문소구(CP) 전체의 시제를 결정하게 된다(김형섭 2014: 255).

으므로 정문이 된다. 이와 같이 허사대명사(pleonastic pronouns)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주격 주어가 할당되지만, 허사에 별도의 의미역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러시아어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러시아어의 경우 EPP가 반드시 준수될 필요가 없다. 즉, 주어의 위치가 통사적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문법상 틀린 문장이 되지 않는다. EPP가 준수되지 않으니, 허사삽입규칙 역시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러시아어에서는 주어가 없는 구문에 대해 허사를 삽입하는 것이 비문을 형성한다. 따라서, “Темнеет.”은 가능하지만, “Это/Оно темнеет.”은 비문이 된다. 이로 인해 러시아어에서는 무주어 구문이 매우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이다¹¹⁾.

보편문법적으로는, 문법적 주어가 부재하는 문장을 ‘무주어구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주어는 반드시 통사적으로 표층에 실현될 것이 강제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간에 주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유형의 구문을 특수하게 무주어구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어와 같이 주어의 비실현이 용인되는 언어에서는 문법적 주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무주어구문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될 수 있다. 문법적 주어가 부재하지만, 어렵지 않게 문법적 주어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라면 주어가 존재하는 구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본질적인 무주어구문은 통사적으로는 물론 의미적으로도 주어를 상징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주어구문’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장을 두 종류 – ‘고유한 무주어 구문(собственно-безподлежащие предложения)’과 ‘주어 생략 구문(субъектно-эллипти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 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며, 전자는 문법적, 논리-의미적으로도 주어를 상징할 수 없는 경우, 후자는 (의미적) 주어의 존재가 입증되지만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한다.

본고의 이러한 관점 하에서, 러시아어의 일성분문장에 대해서는 전통적 입장과는 다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해진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2) a. Хочешь пойти в кино? (영화관에 가고 싶어?)
- b. Любишь кататься, люби и саночки возить. (썰매 타기를 좋아한다면, 썰매를 끌고 가는 것도 좋아해라.)
- c. Вам звонят. (당신, 전화 와요.)

(Акимова и др., 2009: 113에서 인용)

(12a-c)는 각각 한정인칭문(определенно-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일반인칭문(обобщенно-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비한정인칭문(неопределенно-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는 모두 러시아어의 일성분문장으로 간주된다. 일성분문장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이번

11) 정하경·이수현(2020)에서는 현대 러시아어의 구어적 사용에서는 무인칭 환경에서 지시대명사의 중성 단수형 это와 인칭대명사의 중성 단수형 оно가 제한적으로나마 문법적 허사 주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실험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장에서는 간략한 설명만을 덧붙인다.

(12a)에는 동사 ‘хотеть(원하다)’의 2인칭 단수 활용형인 хочешь가 사용되었다. 비록 표층적 주어는 생략되었지만, 대화라는 상황 맥락 하에서 2인칭 청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주어 ‘ты’를 어렵지 않게 복원할 수 있다. (12b)는 러시아어 속담으로, 동사 ‘любить(사랑하다, 좋아하다)’의 2인칭 단수 활용형인 любишь가 사용되었다. 비록 일반인칭문의 경우 속담을 접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주어가 될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2인칭 단수 형태가 사용되었으므로 주어 ‘ты’가 복원된다. 의미적으로도, 속담을 읽는 특정 개인을 주어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어로 ‘ты’를 복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12a-b)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정인칭문과 일반인칭문은 통사적·의미적으로 주어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어 생략 구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c)의 경우는 (12a-b)와 달리 주어를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장 (12c)의 발화 맥락으로는, 청자가 휴대전화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당신에게 전화가 와요.”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다. 사용된 동사는 ‘звонить(전화하다)’의 3인칭 복수 활용형인 звонят으로, 동사가 명명하는 행위의 주체인 발신자가 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행위주를 특정하여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화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전화의 발신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당신에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주를 밝히는 것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고유한 무주어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¹²⁾.

예문 (12)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 문장에서 주어는 단순히 통사적 현상을 넘어 의미적 현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표층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복원이 가능하다면 주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어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불필요한 경우에는 문장에 주어 자체가 부재하는 채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사적 자질만을 전적으로 고려한 전통적 주어성 자질은 수정되어야 한다.

2.4.2. 다중요인적 접근법

주어에 대한 키난(Keenan 1976)과 같은 보편문법적인 설명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러시아어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이중요인적 접근으로부터 벗어난 다중요인적 접근(многофакторный подход)이 등장하기 시작한다(Козинский 1983; Циммерлинг 2011 등). 다중요인적 접근법에서는 어떤 특정한 NP의 주어성을 검증하기 위한 주어성 검증 기제가 소위 ‘주어의 특성(признаки подлежащего)’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어 왔다.

12) 일반적으로 비한정인칭문은 수동문(passive constructions)과 비슷하게, 문장의 직접 또는 간접 목적어를 문두에 놓고, 문두에 놓인 목적어를 심리적 주어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치바니(Chvany 1975), 그린버그와 프랭크스(Greenberg & Franks 1991), 무어와 펄뮤터(Moore & Perlmutter 2000)는 (소속 절 내에서의) 문두-화제성, 재귀대명사 *себя* 및 재귀형용사 *свой*의 결속(binding) 가능성을 제시한다(이인영 2007: 208에서 재인용). (13)은 문두-화제성, (14)는 재귀사의 결속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13)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стол. (나는 이 책상이 맘에 들어.)

(14) a. Борису не работать у себя дома. (보리스는 자기 집에서 일할 수 없다.)

(Moore & Perlmutter 2000: 378; 이인영 2007: 208에서 재인용)

b. Борису не жить со своей матерью. (보리스는 자기 어머니와 살 수 없다.)

(이인영 2007: 208에서 인용)

무어와 펄뮤터(Moore & Perlmutter 2000)는 추가로 술부, 그 중에서도 술어부 조격과의 일치, PRO를 통한 피통제 가능성, 인상 가능성을 제안한다(이인영 2007: 209에서 재인용).

(15) Той рукописи не быть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зарубежным издательством.

(이 원고는 해외 출판사에서 출판될 수 없다.)

(Moore & Perlmutter 2000: 393; 이인영 2007: 209에서 재인용)

술어부에 사용된 조격 형용사 *опубликованной*는 주어부에 사용된 NP인 *той рукописи*와 성, 수 범주에서 각각 여성, 단수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때의 NP는 주어로 간주할 수 있다.

PRO를 통한 피통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PRO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PRO는 격이 부재하는 위치에서 발견되는 영(null) DP를 의미한다. PRO는 소위 ‘주어 통제(subject control)’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주어 통제 문장이란 주절의 주어 DP가 매입절 속의 주어인 PRO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문장을 의미한다.

(16) Jean_i is reluctant [PRO_i to leave]. (장은 떠나기를 망설였다.)

(Carnie 2012: 430에서 인용)

위의 예문 (16)에서, 주절의 주어 DP인 Jean은 매입절의 주어인 공범주(empty category) PRO와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다. 이렇게 PRO를 통제할 수 있는 성분을 주어로 간주하는 것이다.

(17) Борис_i сделал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PRO_i DAT работать одному].

(Moore & Perlmutter 2000: 397; 이인영 2007: 209에서 재인용)

예문 (17)에서, чтобы가 이끄는 절에는 대격 형태로 사용된 одному와 격에서 일치하고, 주절의 주어 DP인 Борис에 의해 결속되는 여격 형태의 PRO 주어가 존재하는데, 이를 (비록 영형이지만) 주어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상(raising)은 주어에서 주어로의 인상(Subject-to-subject Raising, SSR)과 주어에서 목적어로의 인상(Subject-to-Object Raising, SOR)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SSR은 매입절의 주어가 주격을 부여받기 위해 주절의 [Spec, TP] 자리로 이동하는 DP 이동의 종류로 정의되며, SOR은 매입절의 주어가 대격을 부여받기 위해 주절의 [Spec, AgrO] 자리로 이동하는 DP 이동의 종류로 정의된다.

(18) a. Jean is likely to [Jean leave]. (장은 떠날 것 같다.)

(Carnie 2012: 437에서 인용)

b. I want Jean_i [t_i to dance]. (나는 장이 춤을 추기를 원한다.)¹³⁾

(Carnie 2012: 442에서 인용)

주어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상의 형태는 SSR인데, 다음의 러시아어 예문 (19)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19) Им_i не начать [Они_i работать одним]. (그들은 본인들끼리만 일하기 시작할 수 없다.)

(Moore & Perlmutter 2000: 399; 이인영 2007: 209에서 재인용)

예문 (19)에서, 주절의 (의미상) 주어 им은 대괄호 안의 동사 원형 работать의 숨은 주어 DP로 상정할 수 있는 они가 주절의 주어 DP로 SSR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인상된 DP를 주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콘드라쇼바(Kondrashova 1993: 259; 이인영 2007: 214-215에서 재인용)는 수동화(피동화) 가능성을 주어성 검증 기제로 제안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원래 능동문에서의 주격 주어와 대격(винительный падеж) 목적어는 수동화를 거침으로써 수동문에서 각각 조격(творительный падеж) NP와 주격 주어로 전환된다. 예문 (20a)에서 주격 주어 ключь는 (20b)에서 조격 ключом으로 전환되었고, 대격 목적어 дверь는 주격 주어 дверью로 전환되었다.

13) t의 경우 흔적(trace)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당 위치에 있던 DP인 Jean이 주절의 목적어 DP로 이동됨에 따라 흔적이 남아있는 위치임을 나타낸다.

- (20) a. Ключимен открыл дверьвин. (열쇠가 문을 열었다.)
 b. Дверьмен открыта ключомтвор. (문이 열쇠로 열렸다.)

(정정원 2010: 157-158)

이와 같은 수동화가 주격 NP를 주어로 갖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해당 NP를 주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콘드라쇼바의 설명이다. 예문 (21)은 능동문의 여격 주어가 수동화를 거쳐 수동문에서 조격 NP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격 주어와 같은 통사적 현상을 보이므로, (21a)의 대격 명사를 문장의 주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1) a. Иванудат обмануть Васювин. (이반은 바샤를 속여야만 한다.)
 b. Васеимен быть обманутым Иваномтвор. (바샤는 이반에게 속을 것이다.)¹⁴⁾

(Kondrashova 1993: 259에서 인용; 이인영 2007: 209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레투치(Летучий 2022)는 러시아어의 주어성 검증 기제를 몇 가지 항목으로 목록화하였다. 주어성 검증 기제로 제시된 항목을 몇 가지로 범주화하고, 어떠한 범주의 검증 기제를 통과했는지에 따라 주어를 ‘원형적인 문법적 주어(канонические подлежащие)’와 ‘비원형적인 문법적 주어(неканонические подлежащие)’로 구분하여 간주한다(비원형적인 문법적 주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Циммерлинг(2012) 참고). 레투치가 제안한 주어성 검증 기제의 목록은 다음 (22)와 같다.

(22) 레투치(Летучий 2022)의 러시아어 주어성 검증 기제

A. 주어의 지위와 문법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특성

- a. 동사 일치의 통제 성분
- b. 주격
- c. 부동사(деепричастий)의 통제 성분
- d. 미정형절과 부동사절에서 비복원적 영형, 즉 PRO로의 변환

B. 주어의 지위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특성

- a. 논항 재귀사 себя, 소유 재귀사 свой, 상호 지표 друг друга 통제 가능성
 - b. 목적 의미의 미정형절 통제 가능성
- : Я привёз Серёжу на работу, **чтобы** выдать ему деньги.

14) 예문 (19)은 의미상 주어로 대격을 갖는 미정형문(инфинитив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의 예시로, 미정형문은 다양한 양태적 의미(модальные значения)를 갖는다. (19a)의 경우 ‘의무’의 양태적 의미를, (19b)의 경우 ‘확정적 사실’의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도록 번역하였으나, 문맥에 따라 번역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C. 행위주의 상위 통사적 지위(문법적 주어 및 직접 목적어)와 연관된 특성

- a. “Я приехал туда уже стариком.” 유형의 구문에서, 행위주의 부차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한정사(депиктивы) (형용사 및 몇몇 명사)

(22A)의 모든 기제를 통과하면 ‘원형적인 문법적 주어’로 간주된다. (22A)의 특성을 전혀 갖지 않거나 일부만 나타내더라도, (22B)의 기제를 통과하면 ‘비원형적인 문법적 주어’로 간주된다. (22A)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22B)의 특성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어로 간주될 수 없는데, 특히 (22C)만을 갖는 경우는 주어로 간주될 수 없다.

이외에도 김형섭(2014)에서 몇 가지의 S-Test를 통한 주격 주어와의 비교를 통해 여격 주어의 통사적 주어성을 입증한 바 있는데, 사용된 S-Test는 다음과 같이 목록할 수 있다¹⁵⁾.

(23) 김형섭(2014)의 S-Test

- a. 재귀대명사 *себя*와 *свой* 결속 가능성
- b. PRO 변형 특성
- c. [чтобы + 미정형동사] 절에서의 PRO 통제 가능성
- d. [чтобы + 정형동사] 절에서의 pro¹⁶⁾ 통제 불가능성
- e. 부동사 표현의 PRO 통제 가능성
- f. 부정생격으로의 전환 불가능성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고에서 일성분문장의 주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S-Test로 삼기로 한다.

(24) 본고에서 사용되는 S-Test

- a. 동사 일치의 통제 성분
- b. 재귀대명사 결속 가능성
- c. *чтобы* 절에서의 PRO/pro 통제 (불)가능성
- d. 부동사 표현의 PRO 통제 가능성
- e. PRO 변형 특성

15) 김형섭(2014)에서 제안된 S-Test의 경우 기준에 살펴본 S-Test와 거의 중복되므로, 각 목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16) 격이 없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PRO와 달리, pro는 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동사 일치 형태가 풍부한 언어들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러시아어는 SPA 언어이므로 pro가 관찰 가능한 언어 중 하나이다.

2장에서는 다양한 언어 층위에서의 주어 개념을 문법적 주어, 심리적 주어, 논리적 주어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주어의 개념과 인칭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칭성에 대한 좁은 이해가 아닌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고의 논지가 전개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전형적으로 무인칭문으로 받아들여지던 몇 가지의 문장 유형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무)인칭성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어로는 ‘(им)персональность’가 더욱 적합할 것이지만, 용어 연관성을 위해 ‘(без)личность’를 사용할 것이다. 이후 한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 사례를 통해 주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피고, 어떤 NP가 주어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주어에 대한 보편문법적 분석인 키난의 SPL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성 검증 기제, 즉 S-Test를 설정하였다. 러시아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S-Test를 다양한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본고에서 사용될 S-Test를 정리하였다.

이후 3장에서는 러시아어의 일성분문장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무인칭문과 일성분문장의 기타 유형 간 차이점을 밝힌다. 이후 무인칭문을 그 특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대해 S-Test를 적용함으로써 주격 주어 구문에서 관찰 가능한 통사적 현상과의 공통점·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무인칭구문에 대해서도 주어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한국어 문헌]

- 강성희. (2005). 러시아인의 민족적 특징을 통하여 살펴본 러시아어. *러시아학*, (1), 1-20.
- 김일규. (2022). 한국어 주격중출구문 연구에 대한 고찰 및 급진구문문법에 기댄 제안. *한국어학*, 97, 95-124.
- 김형섭. (2014). 러시아어의 주어성 연구: 주어-동사 일치의 문제. *외국학연구*, (28), 251-278.
- 남혜현. (2017). 문법적 전이와 문법적 은유에 대한 재고. *슬라브어 연구*, 22(2), 1-18.
- 목정수. (2018). 서술절 설정에 대한 재론-‘서술절’개념 비판에서 ‘쪼개진 목적어’ 유형 정립까지. *국어학 (國語學)*, 87, 39-83.
- 이인영. (1997). *러시아어학 - 보다 현실적 접근을 찾아서*.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이인영. (2007). 러시아어 ‘여격 주어’ 구문 재고. *러시아연구*, 17(1), 205-240.
- 이종현. (2000).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과 투사 구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 (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Vol. 25).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정원. (2010). 러시아어와 폴란드어의 수동구문 비교. *슬라브어 연구*, 15(2), 155-172.
- 홍기선. (2014). 한국어의 격중출구문과 담화구조. *언어*, 39(3), 677-699.
- 황서경. (2005). 의미역 Agent, Force, Instrument에 대한 재고. *슬라브어 연구*, 10, 259-276.

[영어 문헌]

- Bailyn, J. F. (2012). *The syntax of Russi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snan, J., & Kanerva, J. M. (1989). Locative inversion in Chicheŵa: A case study of factorization in grammar. *Linguistic inquiry*, 1-50.
- Carnie, A. (2012). *Syntax: A generative introduction*. Wiley-Blackwell.
- Chae, H. R., & Kim, I. (2008). A clausal predicate analysis of Korean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3(4), 869-900.
- Chvany, C. V. (1975). *On the syntax of BE-sentences in Russian*. Cambridge, Mass.: Slavica Publishers, Inc.
-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547-619.
- Fillmore, C. J. (1967). The case for case.
- Gerritsen, N. (1992). The invariant meaning of the Russian reflexive affix-sja. *Acta Linguistica Hafniensia*, 25(1), 29-37.
- Greenberg, J. H.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 meaningful elements. *Universals of language*, 2, 73-113.
- Greenberg, G. R., & Franks, S. (1991). A parametric approach to dative subjects and the second dative in Slavic.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71-97.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 Gruber, J. S. (1965). *Studies in lexical relations*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Haegeman, L. (1994). Verb raising as verb projection raising: Some empirical problems. *Linguistic Inquiry*, 25(3), 509-522.
- Halliday, M. A. (201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 Jackendoff, R. (1990). On Larson's treatment of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21(3), 427-456.
- Jarintzov, N. (1916). *The Russians and their language*. BH Blackwell.
- Keenan, E. L. (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Subject and topic*, 303, 333.
- Kondrashova, N. (1994). Agreement and dative subjects in Russian. In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2. The MIT Meeting*.
- Mathesius, V. (1939).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Prague: Academia.
- Moore, J., & Perlmutter, D. M. (2000). What does it take to be a dative subject.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18, 373-416.
- Sirotinina, O. B. (2003). *The word order in the Russian language*.
- Speas, M. (1990). *Phrase structure in natural language* (Vol. 21).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Van Valin Jr, R. D. (1990). Semantic parameters of split intransitivity. *Language*, 221-260.
- Yoon, J. H. S. (2015). Double nominative and double accusative constructions.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79-97.

[러시아어 문헌]

- Adamec, P. (1966). *Порядок слов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 Акимова, Г. Н., Вяткина, С. В., Казаков, В. П., & Руднев, Д. В. (2009). *Синтаксис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Апресян, Ю. Д. (1995). *Синоним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языка.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М.: Языки рус.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 Бондарко, А. В. (1976). *Теория морфолог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й*. Наука. Ленингр. отд-ние.

- Вежбицкая, А. (1996). Язык. Культура. Познание. М, 289.
- Ковтунова, И. И. (1980). Порядок слов.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2, 317-320.
- Козинский, И. Ш. (1983). О категории «подлежаще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нститу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АН СССР. Проблемная группа по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и приклад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убликации, (156).
- Летучий, А. Б. (2022). Подлежащее. Русская Корпусная Грамматика (<http://rusgram.ru/%D0%9F%D0%BE%D0%B4%D0%BB%D0%B5%D0%B6%D0%B0%D1%89%D0%B5%D0%B5>)
- Пешковский, А. (2022).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Litres.
- Плунгян, В. А. (2000). Общая морфология.
- Попова, З. Д., & Стернин, И. А. (2001). Очерки по когни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980). том 1. М. (=АГ80 I)
-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980). том 2. М. (=АГ80 II)
- Тестелец, Я. Г. (2001). Введение в общий синтаксис.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Худяков, А. А. (2005). Категория персональности/имперсональности: опыт когнитивного анализа.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professorhudyakov.ru>
- Циммерлинг А.В. Неканонические подлежащ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 От формы к значению, от значения к форме.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в честь 80-летия А.В. Бондарко. М.: Знак, 2011. 568-590.
- Ярцева, В. Н., & Артюнова, Н. Д. (1990).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